근로자

17 호

9월 15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7호 (39)

1949년9월15일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립 一년에 관한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 성

(만장 총기립 우뢰와 같은 박수 속에 등단, 박수 오래 계속)

대의원 여러분!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실시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의 정부가 수립된 一주년 기념일입니다.

조선사람들은 여러세기 동안 봉건왕조의 통치밑에서 학대를 받아 왔으며 반세기 동안이나 외래침략세력 강도 일본제국주의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에서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자기 손으로 자기의 주권인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인민의 리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발포하고 인민의 행복된 생활과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을 위하여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민족은 민족력사에 있어서 새로운 력사의 첫걸음을 걷게되였고 조선사회는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지도에서 오랫동안 빛을 잃었던 우리나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기빨을 가지고 세계지도 위에 다시 빛나게 되였습니다.

식민지적 인종 차별 대우를 받으며 어데가서 쓰러진들 누구도 돌보지 않던 망국노의 설음을 받던 우리민족이 이날부터는 당당한 자기국가를 가진 민족으로서 세계민주주의 각 국가와 동등한 대렬에 서서 자기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며 자기의 경제 문화를 세계 각국과 교류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력사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생된 一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민족이 능히 자유독립의 길로 민주주의적 길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우리의 해방자인 쏘련군과 쏘련인민과 쏘련정부와 그의 수령인 위대한 쓰딸린대원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민족은 또한 대대손손이 그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대의원 여러분!

인민공화국 정부는 리승만 반동역도들이 자기의 모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영원히 분렬하며 국토를 영원히 량단하려는 비렬한 발악을 다하고 있고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려고 애를 쓰며 남조선 지역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정책을 로골적으로 쓰고있는 조건하에서 남조선 인민들이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시대 이상의 압박 착취를 당하며 인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쑤록 파탄되어 가는 민족의 가장 절박한 위기에 처하여 있는 형편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전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우리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인민들앞에는 우리 민족을 분렬하며 우리의 국토를 영원히 량단하려는 미제국주의자와 리승만 반동분자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남조선인민들을 제二차 망국노의 신음속에서 구원하여 급속한 기간내에 국토의 완정과 민족의 통일을 쟁취하는 임무가 제기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와 전체 인민들은 이 중대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을 보장하는 데 가장 기본조건으로 되는 쏘미량군 동시 철거에 대한 쏘련정부의 제의를 실천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자기의 제일 첫과업으로 내 세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이상에서 말한 이 첫 임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제一차회의에서 쏘미량국 정부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명의로 쏘미량군은 一九四七년 九월 二十六일에 쏘련정부에서 제의한 쏘미량군 동시 철거에 대한 제의를 실현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였습니다。쏘련정부는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이 요청을 접수하고 곧 자기의 군대를 一九四八년말까지 북조선 지역에서 완전히 철거하였습니다。그리하여 쏘련정부는 수十년동안의 일제의 압박에서 우리민족을 해방시켜주었고 일제의 손에서 빼앗은 철도、광산、은행、공장、기업소들을 우리 인민에게 도로 넘겨주고 북조선 지역에서 三년간 주둔하고 있는 동안 모든 민주주의 개혁과 경제 문화건설사업에 도움을 주고 해방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는 곧 자기 군대를 철거하였습니다。이것은 오직 쏘베트사회주의국가의 정당한 대외정책의 표현이며 쏘련은 진정한 해방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친선할 수 있는 인민의 국가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기군대를 조선지역으로부터 철퇴할 것을 거부하고 자기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주둔케 하며 남조선 지역을 완전히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남조선 「국회」에서 매국노들을 선동하여 미군 계속주둔 요청안을 결정케 하도록 책동하였습니다。나라 팔아먹기를 전업으로 삼는 리승만도배들은 소위 「국회」 내에서까지 외국군대를 조선내에 두는 것은 민족독립에 절대 부당한 것이라는 일부 반대파의 의견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철퇴를 주장한 자기 반대파들을 공산주의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구실로 그를 체포 탄압하며 미군 계속 주둔 요청안을 채택하였습니다。이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조선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군대를 철퇴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소위 「유·엔위원단」이라는 허수아비같은 놈들을 끌고 와서 통일을 시켜 준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미국사람들은 조선사람들의 대중적 여론을 기편하기 위하여 자기의 군대를 二천여명의 군사사절단으로 남조선에、남겨두고는 철퇴시켰다고 한동안 떠들다가 며칠 안되어 해군들을 군함에 또

싶고 와서 군사방문하려 조선에 또 왔다고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연막탄으로서 조선사람을 기편하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소위『국방군』을 강화하여 동족상쟁의 내란을 야기시킬 준비들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오직 소련군대만은 북조선에서 철거하고 남조선에서는 아직 미군이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며 민족반역자와 야합하여 우리민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미제국주의자의 내정간섭이 계속 존속하고 있으며 미제의 사수로 남조선 반동분자들의 발악은 날로 더 심하여 지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 공화국정부는 자기 정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조선 인민들과 애국적 력량들을 우리 정부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며 정치 경제 방면에서 모든 민주주의 력량들을 더 강화 준비함으로써만이 조국의 신속한 통일과 완전 자주 독립 운동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일체 가능한 조건을 리용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三년 동안에 이미 쟁취한 민주주의적 성과들을 더욱 튼튼히 하며 그를 발전하여 강력한 공화국의 정치 경제토대를 축성하며 민주주의적 근거지를 확고히 하는 사업을 가장 중대한 과업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 근거지를 민주주의적으로 확고히 건설함으로써만이 북조선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더욱 향상하며 인민들의 참다운 민주주의에 대한 승리의 신심을 더욱 북돋아주며 인민들로 하여금 조국의 통일과 민주주의적 국가를 건설함에 자기의 정치 경제 력량들을 다 동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남조선 인민에게도 오직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 사회제도만이 부강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 주는 동시에 북조선과 같은 민주주의적 강대한 성벽이 있음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항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게 할 것입니다。그뿐만 아니라 리승만 매국도당들의 매국적 파괴행동으로 인하여 극단으로 파탄되였던 남조선 인민들의 물질생활도 조국통일 이후에 급속히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화국 정부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시대에 이미 채택한 一九四八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숫자를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一九四九년 새해부터 一九五〇년도말에 완수할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수립하여 그를 최고인민회의 제二차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인민 경제 각부문의 발전 속도를 더욱 제고시키며 아직까지 복구하지못하였던 공장들을 다 복구하며 설비가 불완전한 공장들을 완전히 설비하며 이미 운전되고 있는 공장들은 그 설비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함으로써 일제 시대의 식민지적 편파성으로 인하여 인민 경제 각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을 퇴치하며 인민들의 생활 필수품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용 생활품들을 많이 생산할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공화국 정부와 전체 인민들은 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이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성립 一년 동안에 북반부의 민주건설의 승리적 성과를 본다면

첫째 산업

조선산업에 가장 중요 부문인 제철 제강 중공업방면에 있어서는 황해제철소의 三五〇톤 용광로 一기를 비롯하여 청진제철소의 五〇〇톤 용광로 一기를 복구하기 시작하여 불원간 완공할 것이며 일제산업의 편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던 제강 부문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진제철소에 제강 및 압연 강재 생산을 위한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업과 농업발전에 가장 많이 수요되는 전동기와 변압기들은 과거에는 전연 생산 못하던 것이 一九四八년도 말부터 우리의 손으로써 강서전기제작소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기계공업에 있어서도 평양중앙기계제작소를 一九四八년도말에 건설하여 우리 공업에 있어서 가장 락후된 기계 공업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화학 부문에 있어서 원산석유공장들을 완전히 복구하여 조선에 있어서 제일 중대한 애로의 하나로 되어 있던 액체연료와 기계유들을 자기 손으로 생산하여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조잡한 계산과 방법으로 건설하여 놓았던 발전소들은 많은 수리와 개조를 가하

지 않으면 그 수명을 오래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발전소들을 다시 보수 개조하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결정하고 금년에 가장 위협한 형편에 처하여 있던 수풍발전소의 에프론공사를 수억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대보수에 착공하여 우기전에 공사를 완수한 결과로 금년 장수기의 그 위험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금년 봄부터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많은 광산들이 복구 또한 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二개년 경제 계획의 중점의 하나로 되고 있는 인민들의 의복문제를 해결하는 섬유 공업은 一九四八년도말에 평양스프공장을 복구하였고 금년에 와서는 앞으로 만여명의 로동자가 일할 수 있는 대규모적인 평양방직공장을 건설하는 도정에 있습니다。

一九四八년도부터 길주팔프공장에 증설하기 시작한 길주제지공장은 금년 봄에 완성하여 四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설계획에 들어 있는 남포관초자공장도 건설사업이 착착 진행되어 불일간 생산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一년 동안에 많은 공장들이 복구 신설되었으며 신설과 복구하는 공장들도 다 계획대로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은 자기의 설비능력을 다 발휘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一九四八년에 있어서 인민경제의 기본적 토대로 되는 국영 산업생산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二·六배 이상으로 장성되었으며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첫 해인 一九四九년 계획 실행에 있어서도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一九四九년도 계획도 물론 초과 달성될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국영 지방산업에 있어서도 지나간 一년동안에 각공장들을 신설하고 설비 능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한 결과 인민들의 생활 필수품 생산은 一九四八년에 九억四천八백여만원에 달하여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三배 이상으로 증가되었고 一九四九년 상반년 계획을 초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一九四九년도에는 一九四八년도에 비하여 약 一五〇%로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산업체계에 있어서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을 퇴치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인민들에게 대한 각종 생활 필수품의 공급량이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방면에 있어서 그 발전이 급속도로 장성되는 것은 공화국 북반부의 새로운 사회제도 밑에서 새로운 생산관계에서 인민들의 열성적인 창조적 로력에서만이 능히 볼 수 있는 현상이며 과학적인 계획경제로서 인민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방면에 있어서도

토지의 주인이 된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앙양되고 정부와 각급 인민위원회에서 비료를 충조 시켜 주며 적기에 선진적 영농방법으로써 이를 조직 지도하며 특히 정부는 농촌경리를 자연에 예속되는 폐해로부터 해방하며 륙전보다 三배이상 더 증산하는 수전을 개간하는 것과 관개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미간지 개간하는데 많은 주의를 돌렸습니다。

一九四八년도만 하여도 一만五천여정보의 경지가 새로 확장되었으며 약 一만三천정보의 안전수리답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식량조건을 더욱 풍족하게 하기 위하여 수로연장만 하여도 九〇키로나 되며 二만五천정보나 관개하게 될 평남 안주수리공사를 작년부터 착수하여 전체 인민들의 애국적 열성과 적극적인 참가로써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수전면적을 확장하기 위하여 서해안 일대에 폐지로 버려두고 있는 간사지를 개척하기 위한 조사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리하여 一九四八년말에 와서 경지면적은 二백三十五만六천여정보로써 토지개혁전에 비하여 약 四%의 확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우기 一九四九년에는 한재가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종면적이 二백三十七만五천여정보로써 九만四천九백여정보가 확장되었습니다。 一九四八년도의 곡물수확고는 일제의 최고수

준인 一九三九년도의 생산수준보다 一〇·四%나 더 증가하였으며 토지개혁전에 비하며는 二九%의 증가를 보게되었습니다。금년도에도 비록 부분적으로 천수답에 한재를 입었으나 총적으로 보아 작년보다 못하지 않은 수확고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과 농업발전의 장성 속도에 수응하여 상품류통도 급속한 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영상업과、소비조합상업망이 광범히 확장되어 산간 벽지까지도 국영상점과 소비조합 상점들이 많이 설치되어 一九四八년도 말에 그 점포수는 二천二백여개소로 되었으며 상품 류통액은 十六억九백여만원에 달하며 一九四九년에 와서는 상점망이 약 三천三백개소로、상품 류통액은 백五十九억九천五백여만원으로 장성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상점과 소비조합 상점망이 확대 발전되는 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련락을 더욱 밀접하게 하는 동시에 간상배들이 물가를 마음대로 폭등시키는 것을 제재할 뿐만 아니라 시장물가를 적절히 조정하며 물가를 저하사키여 근로인민의 물질생활을 향상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방면에 있어서도 공화국 정부가 성립된 이후부터는 쏘련과 중국 기타 지방과의 무역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 국가건설에 경제적으로 수요되는 원료、자재、기계등을 많이 수입하게 되어 신설 복구하는 공장과 이미 운전하는 공장들에 많은 물자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쏘련과의 무역인데 그의 비중은 一九四八년만 하여도 二억一천四백九十만五천루블이였고 一九四九년도에는 三억三천七백四만루블로 향상되었습니다。그 쏘련과의 무역은 거의 전부가 우리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원료와 기계들을 수입하는 것입니다。그 원료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철 제강사업에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 없는 콕쓰용 석탄입니다。콕쓰용 석탄은 四八년도만하여도 약 三十만톤을 수입해 왔으며 四九년도에는 약六十만톤이라는 콕쓰탄을 수입하였습니다。해방 직후부터 작년까지 액체연료와 기계유의 곤난으로 선박과 자동차들을、거의 운전하지 못하다싶이 되었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산석유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그 공장의 중요한 원료로 수만톤의 원유를 쏘련에서 수입하여 지금에는 액체연료의 제근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업과 운수에 충족할만한 공급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도 기계부속품을 제작할만한 기계들을 수입하여 중앙기계제작소를 창설하였고 올연간 三만추의 방사기들이 수입되어 평양에 대방적공장이 五〇년도에는 설치될 것입니다。기타 각공장의 원료와 기계부속품들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중요한 각종 수입물품이 수천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영상공업에、대하여서는 기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등록제를 실시하며、광산위탁경영과 분광제를 실시하며、자금이 부족한 기업가들에게는 자본을 대부하도록 하며、개인무역들도 많이 활동할 조건들을 지어주었습니다。그리하여 정부는 민영상공업가들의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며 그의 창발력을 더욱 발휘하여 자기의 자본과 능력으로써 국가 상공업발전에 적극 참가하며 조국건설사업에 이바지하도록 모든 조건을 지어 주었습니다。이리하여 一九四八년도에 와서는 민영 중소 상공업가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五一% 장성되었으며 그 생산총액은 一九四八년에 二七억四천七백여만원으로서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四〇여%가 장성되었으며 소득액은 五一%의 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수 체신부문에 있어서도 막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철도부문에 있어서의 중요한 성과는 一九四八년말에 평원선 및 만포선 일부를 전기화하였습니다。이 전기화로써 우리 철도운수능력은 급속히 제고되었으며 또 앞으로 철도전기화에 대한 큰 전망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철도부문에 있어서는 一九四八년에 一천一백六十만톤의 화물수송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고 一九四九년의 계획도 초과 실행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철도부문에의 이와 같은 발전은 인민경제 각부문의 발전을 보장하였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상품류통을 촉진시켰습니다。

체신부문에 있어서도 一九四八년에 우편국 설치계획과 전신선로 연장계획을 초과 실행하였으며 금년에

있어서도 체신 및 전신선로 연장을 비롯하여 모든 계획이 성과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 및 도시경영부문에 있어서는 一九四九년도에 도로 교량공사 및 주택신설계획을 성과있게 달성하고 있으며 하천공사에 있어서의 제방공사는 一七〇키로메터나 되는 계획을 상반년에 이미 七七%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이 제방공사가 완성되면 약 二만五천정보의 농경지가 수해를 입지 않게 되며 一천二백여정보의 황무지가 옥답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국가교육방면에 있어서는

一九五〇년도부터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은 一九四九년초부터 광범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인민들의 열성적인 참가와 교육부문에서 일하는 교육일군들의 노력으로써 학령아동 재조사 사업과 통학구역의 배정과 학령아동을 수용할만한 교사를 신축하는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인민들의 자발적인 로력、자력의 원조로써 대부분의 준비사업은 一九五〇년 九월 一일 전으로 완성되여 정강에 제시된 바와 같이 一九五〇년도부터는 완전히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화국 정부는 최대의 주의를 돌려 중등、전문、대학들의 확충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바 一九四八년도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四천一백六十교에 달하게 되었으며 그 학생 총수는 약一백七十만명에 달하였으며 각종 기술전문학교와 초급기술학교는 八十五교로 증장되었으며 학생 수는 약 三만三천명에 달하였습니다。

교육성 지도밑에 있는 기술학교를 제한 이외에도 각성에서 경영하는 직장기술학교와 기술전문학교들의 수효는 一백七十여교에 달하며 그 학생 총수는 약 一만二천명에 달하였습니다。 고등교육부문에 있어서는 一九四八년에 十一교의 대학에서 약八천명의 대학생이 공부하였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이후 一년동안 교육방면에 치중한 노력으로써 一九四九년도의 보통교육부문의 학교 수는 五천一백二十四교로 학생 수는 一백九十만八천五백七十一명으로 장성되었습니다。 교육성 관할밑에 있는 기술전문학교와 초등기술학교의 학생 수도 一九四八년도보다 一九四九년도에는 약七천명이나 증가되였으며 각

성산하에 있는 직장기술학교 수와 학생 수도 많은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부문에 있어서는 四九년도에는 강원도 교원대학을 비롯하여 대학의 수가 十五교로 증가되었으며 학생수는 一만三천二백二十二명으로 장성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고등교육을 받는 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하여서는 국내에서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가 쏘련으로 류학생들을 많이 파견하여 공부를 하게하였습니다。 一九四八년도에 八〇명을 파견하였고 一九四九년도에도 백여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자기의 기술간부를 자기손으로 양성하여 가져본 일이 없던 우리나라에도 금년부터는 자기손으로 양성해낸 민족기술간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一九四九년도에 기술전문학교와 초급기술학교에서 이미 졸업한 학생 수는 二천一백十七명이며 금년말까지 졸업할 학생이 약 二천명에 달하고、있습니다。 一九四九년도에 고등교육을 졸업한 학생들은 九백二十三명이며 금년말까지 졸업할 학생 수가 四백十七명이나 됩니다。 이 외에도 각 직장기술학교에서 졸업한 많은 기술간부들이 산업건설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재직 간부양성사업에 있어서도 一九四八년도에는 행정간부 二천七백九十一명、교육간부 八천九백三十명과 기술간부 二만六천八백여명을 양성하였으며、一九四九년도에는 행정간부 一만一천四백여명과 기술간부 一만二천三백여명을 양성하여 행정부문과 산업부문에 등용하고 있으며 교육방면에서 일하는 교육일군들을 재양성한 것이 근 만명에 달합니다。

행정 산업 교육부문 이외에도 각정당 사회단체들의 간부양성사업도 수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질서를 유지하며 민족을 보호하는 보안일군과 군사간부들도 수천명을 양성하여 내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화국정부는 전체 교육체계를 통하여 많은 청년학생들을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가장 필요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간부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제고시키며 조국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케 하기 위하여 성인교육을 광범히

전개한바 문맹퇴치는 물론 일반적 지식보급을 위한 성인학교 성인중학교들을 대량적으로 설치하여 一九四九년도 현재까지 三천七백十八교의 성인학교와 성인중학교가 설치되어 十四만四천八백八十一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속성 성인학교를 설치하여 수十만의 인민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건방면에 있어서도 一九四八년 十월부터 금년 六월까지 七十四개소의 진료소를 설치하였으며 一九四五년말에 四백五十一개에 달하던 무의면이 금년 六월말 현재에는 백三十四개로 격감된 것을 비롯하여 전체 인민들의 보건에 많은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경제 문화건설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정부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一九四八년 十二월에 생활 필수품에 대한 국가 가격을 一〇·二% 저하시켰습니다. 국가가격의 인하와 화폐개혁 이후 날로 공고하여지고 있는 원 가치의 제고는 일반시장의 소매물가도 현저하게 저하시켰습니다. 루차에 걸쳐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을 증가하였는데 교육부문에서는 三五% 내지 三七%, 교통운수부문에 있어서는 五〇%를 더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산업성 산하 전체 로동자들의 평균임금이 금년二·四분기에 이르러 작년 동기에 비하여 一六·六%가 증가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와서 탄광 광산 림산 직장들에서 일하는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실시하는 결정을 채택하고 여러가지 가급금과 연료등을 보조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게 하였습니다.

해방후 곤난을 당하던 식량 문제는 三년 동안의 농촌 경리 발전에 따라 북반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소되였고 식량조건이 점차적으로 유족하게 되었으므로 一九四九년초부터 전체 로동자 사무원들의 식량 배급정량을 제고하였으며 시장의 쌀값은 대폭적으로 인하되어 인민들의 생활 안전이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량 부족이라는 시비는 벌써 근절되였습니다.

또한 전체 인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년 八월에 소득세률을 종전보다 一九·七% 인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근로인민의 자제들의 향학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탄광, [illegible]

산, 림산 직장들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자제들은 중학부터 장학금을 받게하였으며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급여 범위를 학생 총수 五〇%로부터 八〇%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직장 중요한 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특별 배급제를 실시케 하며 산업발전에 따라 부족되는 주택들을 많이 건축케 하였습니다.

지난 一년동안 사회보험 제도에 의하여 정휴양의 혜택을 받은 자는 三만七천여명에 달하며 구혈금과 무료치료의 혜택을 받은 로동자 사무원은 수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민들의 물질생활은 급격히 향상되였습니다.

물질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인민들의 문화적 요구도 제고되였습니다. 정부는 향상된 인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신문과 잡지들을 발간하며 많은 극단과 써-클들을 조직하여 활동하게 하며 많은 기록영화들이 제작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들은 어느 궁벽 산촌에서도 신문 잡지를 다 보고 있으며 민주건설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가 급속도로 부흥 발전되어 온 것은 정치 경제 및 문화적 각방면에서 인민들의 자유 발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제도에서만 가능하며 인민정권이 수립된 사회 조건 하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정부는 창립 이후 지방 정권 기관을 강화하고 인민위원회와 인민들과의 련계를 더욱 밀접히 하며 정권기관 간부들의 사업작풍을 개선하며 생산기업소들과 국가재산들을 보호하는 방면에서 거대한 사업들을 하여놓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三월에 지방 정권 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을 일층 민주화하며 공고화하기 위하여 도 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도 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선거에 있어서 공화국 북반부 유권자 총수의 九九·九八%가 참여하여 자기들이 추천한 립후보자들에게 투표하고 각급 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 각계 각층 인민 대표 五천八百五十三명을 선거하였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정부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매국적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에 조성된 위급한 정치 정세 하에서 북반부의 모든 민주건설의 성과를 수호하며 외래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침습을 방위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무력으로써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심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들을 능히 보위할 수 있으며 조직있고 규률있고 전투력이 훌륭한 강대한 인민의 무장력량으로 장성되였습니다. 우리 인민군대와 경비대는 언제든지 조국과 인민의 부름에 따라 적을 소탕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렬한 박수)

정부는 이와 같이 국내에서만 경제 정치 군사에 대한 건설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일체 민주주의국가와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설정하며 그들과의 친선관계를 튼튼히 하며 전세계 민주진영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와 위신을 제고하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우선 사회주의 쏘베트국가를 위시하여 체코슬로바키아, 파란, 루마니아, 항가리, 불가리아, 몽고, 기타 각 인민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들과 평등적 립장에서 국교를 맺게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은 국제 민주진영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등장하였으며 자기의 위신을 국제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二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쏘련방문 정부대표단을 조직하여 쏘련에 파견하였습니다. 이 정부대표단의 활동에 의하여 조쏘량국간에는 경제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이 성립되였습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조쏘량국간의 친선은 더욱 공고히 되였고 우리 공화국 민주건설은 일층 촉진되였습니다.

지난 一년 동안에 공화국 북반부 민주건설에서 우리가 거둔 승리들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그러나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미제국주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매국노 리승만도당들의 살인적 략탈과 야수적 만행이 지난 一년 동안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남반부의 민족 경제는 최후적 파탄에 이르게 되였으며 인민들의 경제 생활은 기아상태에 처하게 되였습니다.

그도 부족하여「월가」의 상인들은 리승만 괴뢰 정부와 소위「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고 八·一五해방 후 미군정 실시 이래 금년 六월까지 그들이 소비한 군수 물자 八억三천만 딸라를 괴뢰 정부의 부채로「경제원조안」에 산입시키고 소위「한미공동합판회사」를 만들어 이 기업체들을 통하여 남반부의 철도, 해운, 광산등 중요 경제기관들을 미제국주의 침략자본이 독점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민족 경제를 여지없이 파괴하는 한편 공화국 남반부를 완전히 미제국주의의 독점 상품 시장과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남반부 조선인 중소 상공업자들은 전반적으로 급속히 파산되고 있습니다.

一九四七년 二월 현재로 남조선의 기업체 총수는 一만二백九十여개소이던 것이 동년 十二월말에 와서는 九六·七%가 파산되였으며 三·三%로 三백四十개소의 기업체가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광업 부문에 있어서도 종전에 비하여 一〇%에 해당한 六十六개소의 기업소가 남아 있을 뿐이고 九〇%의 기업소들이 전부 파산당하였습니다.

농기구 생산에 있어서는 一九四六년 九월부터 一九四七년 八월까지 一년간의 생산액이 그 전해에 비하여 六一%의 감소를 보게 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 상공업자들이 파산된 대신에 몇개 기업체들이 신설되였다하나 그것은 거의 전부가 미국침략상인들과 조선 매국적 상인들의 상업과 무역에 국한한 기업들뿐입니다. 그중에는「월가」상인들의 직접 지배 하에 있는 기업체가 五〇%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서울에서 발간되는「우리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자는「一九四八년 五월 이전에 남조선 공업 생산 수준은 종전에 비하여 二〇% 내지 三〇%로 저하되였는데 五월 이후 생산수준은 종전의 겨우 一〇%에 불과하였다」라고 중국「상해주보」에

보도하였습니다. 또 지난 八월 三十일 「에이·피」통신에 의하면 一九四八년도의 남조선의 수입액은 一억八천九백만 딸라인데 수출은 수입의 겨우 四·七%밖에 아니되는 八백九十만 딸라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리승만도당들이 남반부의 민족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이며 남반부를 「월가」상인들이 자기의 독점적 상품시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곧 미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 정부간에 맺어진 소위 「한미경제협정」의 결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반부 농촌경제도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비하여 경지면적은 九十八만五천여 정보나 황무지로 변하였고 생산고는 八〇% 이하로 저하되였습니다. 봉건적 소작제도는 더욱 가혹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으며 괴뢰 정부의 량곡 수탈 정책은 강제 공출 강제 수매등 기타 방법으로 잔인하게 단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一九四八년 전라남도에서만 미곡 수탈량이 一백四十만석이나 되였는데 그것은 일제시대의 최고수량에 비하여 十八만석을 초과하고 있다 하며 이러한 사실은 전라남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남조선 각도에 공통되는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탈한 량곡들은 일본에 수출하여 미제국주의의 동방침략의 기지인 일본 재무장화에 보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농촌 경리는 여지없이 파탄되고 농민들의 생활 형편은 기곤상태에 처하고 있습니다.

로동자들은 저렴한 임금과 가혹한 착취에 의하여 생산의욕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터를 떠나서 가두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현재 남조선의 실업 및 파산자의 수는 三백만 이상을 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남반부의 전체 애국인민들은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리승만 괴뢰 정부를 반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국주의 군대와 「유·엔조선위원단」이 우리 강토로부터 즉시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에서도 북조선과 같이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애국자들의

기업체를 국유화하며 민주주의 로동법령 및 남녀평등권법령을 실시케 하기 위하여 영웅찬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 괴뢰 정부는 「경찰대」와 「헌병」, 「국군」들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외치는 애국인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았습니다. 一九四九년七월까지 남조선에서 애국지사들이 투옥된 수는 十五만四천여명에 달하였고 학살된 수는 九만三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미제국주의자들과 반동파들의 이와 같은 참혹한 도살정책은 광범한 애국인민들로 하여금 무장적 투쟁에로 궐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망국적 五·十단선 반대투쟁을 계기로 제주도를 발화점으로한 애국 무장 운동은 한라산으로부터 지리산에 연장되었고 지리산으로부터 태백산, 태백산으로부터 오대산까지 련속되고 있습니다.

남반부에 있는 인민유격대들은 지난 一년 동안의 장렬한 투쟁을 통하여 그들은 군사적으로 장성되고 정치적으로 단련되어 인민들 속에 뿌리를 박고 인민들과의 밀접한 련계로써 자기 대오를 점점 확대하여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며, 기묘하게 적의 근거지를 습격하며, 적을 매복기습하는 전투들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백산 유격대들은 의성 영주등 군소재지를 습격하였으며 지리산 유격대는 광양에서 적一개대대를 소멸하여 많은 무기들을 탈취하였고 최근에는 거창 군소재지를 습격하여 자기 대오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一년 동안 남조선 각지에서 진행된 유격 전투는 하계 대소 전투 三천여회에 달하며 수천정의 보총과 기관총 박격포등 무장들을 탈취하였습니다.

남조선 망국 괴뢰 정부는 수개 사단을 동원하여 「토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렬한 인민들의 지지와 인민들로써 조직된 유격운동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렬해지며 무장투쟁에서 유격대들은 점점 장대하여 가고 있습니다.

리승만도당들은 남조선에서만 인민을 도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북조선 지역까지 마수를 뻗쳐 인민들을 도살하여 인민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그리하여 一九四九년초 이래 지금까지 남조선 소위 「국방군」과 「경찰대」들은 三八연선에 집중하여 부단히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침입하여 촌락을 략탈하며 농가에 방화하며 로유를 학살하는등 잔인하고도 비인도적인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반부 지역에 침입한 소위 「국방군」과 「경찰대」 및 「방화단」과 「간첩」들은 다 우리 경비대들에게 소탕되었으며 우리 경비대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자들의 만행에 대하여 엄중한 타격을 주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열렬한 박수)

대의원 여러분!

남조선 소위 「국방군」과 「경찰대」들은 인민유격대와 경비대들에게서만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내부에서도 부단한 동요로서 와해되고 있습니다。작년 十一월 려수에서 소위 「국방군」 十四련대가 폭동을 일으켜 인민유격대로 넘어 갔으며 금년 五월에는 춘천에 주둔하였던 춘천대대와 홍천대대가 의거하여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넘어와서 인민군대에 편입되었으며 이때를 전후하여 소위 「해군함정」들도 의거하여 북반부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그는 매국노 리승만도당들이 근로인민의 자제들을 강제 징모하여 군대에 편입시키고 동족상쟁을 감행하는데 대하여 조선청년들은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식민지화 정책을 위하여 동족상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였습니다。앞으로도 소위 「국방군」 내에서는 이러한 의거행동이 부단히 일어날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 一년 동안에 공화국 남반부에서 진행된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 탈정책과 리승만 매국도당들의 매국적 행위는 더 로골화해졌으며 남조선에서 반동파들이 인민들에게 감행한 학살정책은 수만의 동포들을 도살하였으며 수백만의 남조선 동포들을 기아선상에서 방황하게

하였습니다。이와 같이 남조선 인민들의 생사존망의 절박한 위기에 처하여 있는 정세하에서 전체 인민들이 누구를 물론하고 다 이구동성으로 외치며 갈망하는 것은 급속히 남북통일을 실현하며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하려는 음모를 분쇄하고 완전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길 밖에는 아무런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국의 통일을 급속히 완성하기 위하여 一九四九년 六월 二十六일 남북조선 七十여개의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로써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고 그 결성대회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책을 채택하여 남북조선 전체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와 각층 각계의 인사들과 전조선 인민에게 제의 호소하였습니다。

평화적 통일방책이 발표되자 전조선인민들은 이 제안을 찬동하며 그를 지지하여 나섰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도 전체 인민들의 의사에 부합되는 이 조국전선의 평화적 통일제안을 가장 정당한 방법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찬동하며 그를 실현하기에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을 성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 괴뢰 정부와 매국도당들은 이 평화적 통일제안을 극히 두려워 하며 그것을 남조선인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으로 이를 탄압하며 방해하고 있습니다。남조선괴뢰정부와 매국도당들은 왜 이 평화적 통일안을 접수하지 않고 그를 반대합니까?

그것은 남조선 괴뢰정부와 매국도당들이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적 대행기관으로서 남조선을 떼어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원치 않으며 남조선 괴뢰 정부는 친일분자와 민족반역자들의 집단으로서 四년동안에 걸쳐 남조선에서 인민을 도살한 그 죄악이 인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통일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그들은 어데까지나 민족을 분렬하며 인민을 배반하며 자주독립을 방해함으로써 자기의 상전인 미제국주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궐기한 남조선인민들을 무조건 투옥 학살하며 三八선과 그 이북 지역에서 무장충돌을 일으킴으로써 조선의 아들 딸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동족상쟁을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일어난 인민의 흘리는 피와 그 수많은 죽음에 대하여 리승만도배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인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놈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조국의 나아가는 길과 인민들이 요구하는 일을 끝까지 방해할 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대세는 인민의 힘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남조선인민들은 벌써 평화적 통일만을 지지하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도처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리승만도당들에게 강제로 끌리어 가서 그들의 억압과 기편에 추종하는 「국방군」에게까지 이 평화적 통일에 대한 선언서가 침투된다면 「국방군」들은 자기 동족을 살해하는 리승만의 어용물(御用物)이 되기를 거부하고 이를 지지하여 일어날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만일 남조선 인민들이 다 일어나고 리승만을 추종하던 「국방군」이 대량적으로 동족상쟁을 반대하고 일어나는 때에는 리승만 매국도당들은 자기 지반을 상실하고 완전히 고립될 것이며 우리의 남북통일은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이상의 모든 사실들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들 앞에 제기되는 과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이미 축성된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민주기지를 일층 튼튼케 하는 장엄한 건설사업을 더욱 맹렬히 전개하여야 하겠으며 그를 조국통일과 국토완정을 보장할 수 있는 일층 위력있는 확고부동한 요새으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의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을 일층 확고히 하며 인민들과의 그들의 련락을 일층 긴밀히 하며 공화국 정부의 온갖 결정과 법령들을 더욱 고상한 정치적 각성을 가지고 민속히 실천하여야 할 것이며 공장, 광산, 철도, 운수, 농촌, 어촌, 교육 문화 기관들에서 자기에게 부담된 모든 임무들을 충실히 실행하며 공화국 북반부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 초과 완수를 위한 더욱 장엄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전체 인민들은 일층 고상한 민족적 각성을 가지고 인민의 원쑤들에게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과 경각성을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적들은 교활 음흉하며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적들은 공화국 남반부에서 인민들의 투쟁대오를 혼란시켜 보려고 별별 야비한 수단과 책동을 다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들의 로력으로 건설된 우리 공장, 제조소, 철도, 운수기관들과 정권기관을 파괴하려고 파괴분자, 탐정분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일층 긴장하고 동원된 상태에서 매결음마다 적들을 탐색하며 적들의 시도를 제때에 적발 폭로하고 그들을 소탕 분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어느때보다도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며 조국과 인민의 초소에 선 공화국 인민군대와 경비대와 보안대들을 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인민들은 인민군대와 경비대 보안대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력량을 집중하며 인민군대 경비대 보안대의 전사 하사 군관들의 가족들에 대한, 전인민적 원호사업을 일층 강화하며 조국보위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장하며 물심 량면으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들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화국의 전체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들은 평화적 조국통일 방책에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제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더욱 장엄한 거족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을 로골적으로 선동하며 준비하고 있는 리승만역도들의 매국 매족적 정체를 일층 철저히 폭로하며 원쑤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강철같은 투쟁대렬을 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단결된 인민들의 위력으로써 원쑤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들의 지반을 없애버림으로써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고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오늘 국제정세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궐기한 우리 조선인민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었습니다. 전후 위대한 쏘련인민이 쟁취한 평화적 건설의 승리와 동남구라파 제국가들에서 인민 민주 제도의 확립과 중국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들은 국제 민주 진영이 일층 강화되며 전반적 총 승리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이와 동시에 전후 각국에서 국제 로동운동이 일층 장성되며 새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는 평화옹호운동이 일층 치렬하여가며 식민지 반식민 예속국가들에서 민족해방운동이 격화되여가는 사실들은 국제반동진영이 도처에서 패배를 당하며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국제 반동 세력이 패배되고 약화되어 가며 국제 민주세력이 승리하고 강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조국에서도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반동진영은 패배될 것이며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궐기한 애국적 민주력량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공화국 정부 주위에 일층 굳게 결속하며 공화국 기치를 높이 들고 국토 완정 조국 통일 독립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장내를 진동하는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국통일과 민주건설에서의 우리당의 투쟁

—북조선로동당 창립 三주년에 제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허 가 이

북조선로동당이 창립된지 만三년이 경과하였다. 영예스러운 당창립 三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들은 각방면에서의 三년간의 당의 투쟁과 업적을 총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통례일 것이다. 그러나 이 三년 동안에 모든 투쟁과 건설에서 우리당이 수행한 역활과 업적이 너무나 위대하며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한 몇마디 말로써는 다 표현하기가 곤난하다.

당창립 二주년으로부터 三주년에 이르는 一년은 당의 일체 내부적 사업과 투쟁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종전의 어느해 보다도 현저한 발전을 본 해이였으며 나아가서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들의 력사에서 전혀 새로운 계단을 열어놓은 한해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一년동안의 우리당의 모든 투쟁과 이 투쟁에서의 빛나는 성과들을 정확하게 총화하는 것은 국토완정과 조국 통일 독립을 위한 우리들의 투쟁이 결정적 계단에 들어선 오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당은 지난 一년동안에 우선 대열을 조직적 정치적으로 공고화하며 당의 지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막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당 대렬에는 민주조국 건설 투쟁에서 단련되고 준비된 로동자, 농민, 로력인테리들중 가장 우수하고 선봉적인 열성분자들이 더욱 증가되어 당대렬이 질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당내에 八〇여만의 당원을 집결시켰다.

당세포와 초급당부는 당 장성과 관련되어 확대되었으며 오늘 생산직장, 농촌, 어촌, 중요 국가 기관, 학교에 이르기까지 민주조국 건설의 튼튼한 성새으로 되는 곳에는 그 어느곳을 물론하고 우리당의 세포와 당원이 없는 곳이 없게 되었으며 그들

기초로 한 수많은 초급당부들이 장성되었다。

당대렬의 이와 같은 량적 질적 발전은 근로인민의 선봉대인 우리당이 광범한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았으며 군중과 같이 호흡하며 대중의 무한한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조국건설의 각분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며 우리당 하급 조직들의 생활성과 당원들의 열성이 제고되었으며 그의 력량에 무한히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 지도기관과 당 간부 구성에 있어서도 실지투쟁과 건설에서 훈련되고 검열된 주로 해방후에 인민 속에서 나와 육성된 새로운 간부들이 많이 등용되어 혁명적 리력과 사업 경험이 풍부한 로련한 간부들과 합하여 당과 인민과의 련결을 더욱 밀접하게 하고 있다。

당 내부 사업의 강화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一九四八년 十二월부터 一九四九년 一월에 걸쳐 진행된 우리당 전체 세포、초급당부、면당부들의 지난 지도기관 선거 이후 九개월간 사업의 총결과 이 하급 당단체들의 九개월간 사업 총결을 총화한 기초 위에서 당 지도 사업 강화에 대한 제반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한 당 중앙위원회 제五차 회의 결정이다。

하급 당단체의 지도기관들은 九개월간의 자기 사업을 총화하면서 전체 당원들과 하급 당단체들 앞에서 당 지도기관 선거회의 때에 당원들에게서 위임받은 과업과 제一차 전당대회의 결정의 실행에 대하여 검열받았다。하급 당단체들과 당 지도기관들의 사업총화에서 나타난 우점들과 결점들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제五차 회의가 제시한 제반 적절한 대책들은 우리당의 전체 하급 당단체들 특히 세포들의 사업을 개선하며 일체 당지도기관들의 사업을 높은 수준에로 향상시키는 지침으로 되었다。

또한 우리당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역도들의 망국적 매국적 흉책으로 말미암아 우리조국에 민족분렬과 국토량단의 심각한 위기가 조성된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 대처하여 특히 당대렬의 순결성과 공고성을 일층 강화하며 당원들 속에서 원쑤들에 대한 경각성과 증오심과 물화의 투쟁식을 더욱 고취하고 제고시키며、긴장된 상태에서 부단히 당 내부 생활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심중한 대책들을 강구하였으며、이 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기간에 당을 조직적 정치적으로 강화하며 당의 지도력을 공고화함에 있어서 우리당이 거둔 이러한 성과들은 곧 지난 一년간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의 모든 승리들을 보장한 가장 위력한 담보로 되

었다。

당 창립 二주년으로 부터 三주년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당은 공화국 정부를 강화하며 공화국 북반부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쟁취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작년 八월 二十五일 인민의 총의에 의한 자유선거의 결과에 조선인민은 자기의 최고립법기관인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창립하였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제一차 회의는 헌법을 채택하고、조선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선포하였으며、우리의 령도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통일적 중앙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위대한 승리는 조선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사에 가장 찬란한 새 페지를 열어 놓았다。

공화국 중앙정부가 수립되자 우리당은 전당을 동원하여 공화국 정부를 높이 받들고 그를 강화하며、인민대중 속에서 그 위신을 백방으로 제고시키는 광범한 사업을 전개하였다。작년 九월에 소집된 당 중앙위원회 제三차 회의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제一차 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정강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성하며、동시에 민족의 재생과 국가의 재건을 위한 강령인 중앙정부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각급 당단체들과 당원들의 임무로 인정한다」。

「당중앙위원회는 각급 당단체들과 당부들에게 최고인민회의와 중앙정부의 위신을 백방으로 제고시키며、강화시킬 책임을 지우며、따라서 각급당부들과 단체들은 최고 립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중앙정부의 적정한 인민적 성격과 그의 정강을 인민대중속에 널리 해석 선전할 것을 위임한다」。

전체 당단체들과 당원들은 당 중앙위원회의 이 위임을 성과있게 실행하였다。

지난 三월에 실시된 공화국 북반부 도 시 군 구역인민위원회 선거사업에 있어서도 우리당은 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모범적、선봉적 역할을 다하였다。그 결과에 도 시 군 구역 인민위원회 선거사업은 가장 빛나는 승리적 성과로써 진행되었으며 공화국 북반부의 지방주권기관들은 일층 확고화하였으며、민주화되었다。

우리당의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부단한 투쟁의 모범적 역할로써 북반부 제반 민주건설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산업건설 방면에서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에 예견된 예정숫자를 一〇二・九%로 초과 완수하였으며 一九四九—一九五〇년도 인민

민경제 二개년계획 제一년의 예정숫자를 초과 완수하가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지난 一년동안에 공화국 북반부 로동계급은 一二○여개의 기업소들을 새로 신설 확충하였는바 그 한가지 실례로서 전기산업에 있어서 우리 조국 산업의 원동력인 수풍발전소의 에푸룽공사 사업을 二억一천여만원의 투자로써 금년 우기 전에 완수하였다。

철도 운수 부문에 있어서도 로동자들은 一九四八년도 운수 총 계획을 一○○·九%로 초과 실행하였으며、一九四九년도 상반기 계획을 一○五%로 초과 완수하였다。

우리당의 적극적 협조하에 북조선 로동계급의 대렬은 지난 한해 동안에 적해에 비하여 一三九%로 장성되었으며 민족기술자는 一六六%로 장성되었다。

지난 一년 동안에 산업 운수부문에 있어서 수천 수만의 모범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배출되었는 바 그 절대 다수가 우리당원이다。

우리당의 주도적 역활에 의하여 농촌경리 방면에 있어서도 토지의 주인으로 된 공화국 북반부의 농민들은 지난 한해동안에 토지개혁의 성과를 일층 공고 발전시키며、공화국 북반부의 농촌경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었다。

一九四八년도 곡물 수확고는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一四○·六%、一九四七년에 비하여 一二九%로 증가되였다。 토지의 주인으로 된 공화국 북반부 농민들은 해방후 四년동안에 농업지대가 아닌 우리조국 북반부를 식량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대로 전변시키었다。

벌써 一九四八년도에、이르러 농작물 수확고는 일제통치시대의 최고 수확년도이던 一九三九년에 비하여 一一○·四%로 초과되었다。

산업과 농촌경리방면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발전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수준을 비상히 향상시키고 있다。

교육문화방면에 있어서도 지난 一년동안에 우리들은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였으며 一九五○년으로부터 실시하게 될 전반적 초등 의무교육 준비사업은 착착 완성되어 가고 있다。

우리당은 전체 인민들을 이끌어서 인민들이 쟁취한 이 모든 권리들을 수호하며 다시는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예속되지 않기 위하여 인민들의 자손으로 구성된 인민군대와 경비대와 보안대를 일층 강화 발전시키는 전 민족적 사업을 전개하였다。이와 같이 지난 一년동안에 우리당의 모범적 주동적 역활과 전인민들의 열성적 투쟁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 민주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결과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 경제적 민주기지는 일층 견고하여 지었으며·확고 부동하게 되였다。

같은 기간에 공화국 남반부에는 어떠한 정치 경제정세가 조성되었는가?

지난해에 남조선 리승만 괴뢰정부가 수립된 후 남조선에 조성된 정치 경제정세는 일층 참혹하게 되었다。이 동안에 리승만 괴뢰정부는 소위 『한미 군사협정』、『한미 경제원조 협정』、『한미 재산 및 재정 이양에 관한 협정』등으로 조국과 인민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키는 반동 괴뢰정부의 목적과 임무를 충직히 실행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통치 하에 있는 남반부에서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박탈되었다、오늘 공화국 남반부는 테로와 학살과 폭력과 만행의 반인민적 반동통치의 지역으로 전변되였다。

지난 한해동안에 려수 순천을 위시하여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리승만 매국도배들에게 학살된 무고한 애국인민들의 수효는 十여만에 달하며 一九四八년 七월부터 十一월에 이르는 四개월간에 려수 순천에서만 학살된 무고한 인민의 수효는 一、七○○여명에 달하며、제주도에서는 一九四八년 四월부터 一九四九년 三월에 이르는 一년동안에 三만여명이 학살되고 二만여호의 민가와 二九六개소의 농촌이 소각되였다。

오늘 우리조국 남반부의 감옥、류치장들에는 二七만八천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구금당하고 있으며、一九四八년 一월부터 十월까지 검거된 애국자들의 수효만 하여도 一三六、三六○명에 달한다。

리승만도배들은 인민들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공공연히 박탈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경제방면에 있어서도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주구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은 우리조국 남반부의 민족경제를 파탄시키고 남조선의 전체 경제를 미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예속시키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그들의 주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반동 매국정책의 결과에 공화국 남반부에 조성된 이러한 정치 경제정세에 대치하여 남반부 애국적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정책을 반대하며、그들의 주구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을 타도분쇄하는 장엄한 구국투쟁에 총궐기하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남반부 애국적 인민들의 이러한 구국투쟁의 선두에는 영예스러운 남조선로동당원들이 서고 있다。

남조선로동당을 선두로 하는 애국적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은 북조선로동당과 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을 받았으며 또 받고 있다.

一九四九년 四월에 있어서 남반부의 영웅적 무장유격대의 활동범위는 八도三부七七군二八三개면에 확대되고 있었다면 수개월이 지난 근간에 있어서는 八도四부八一군三六二개면에 확대되어 장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 우리조국의 세력배치는 대립되는 두개의 진영으로 확연히 분렬되어 있다.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일체 애국적 진보적 민주력량과 전체 애국적 조선인민들은 우리조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들의 주구 리승만 매국역도들을 반대하는 장엄한 애국적 민주진영을 구성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반역하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는 일체 매국역도들은 반인민적 반동진영을 구성하였다.

애국적 민주진영과 반인민적 반동진영간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렬하여 가고 있으며 이 투쟁에서 애국적 민주진영은 점점 더 강대하여 가며, 반인민적 반동진영은 그 매국적 정체를 인민들 앞에서 폭로하면서 점점 더 미약해져 가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반대하며, 각종 형식과 수단을 다하여 우리조국 내정에 간섭하며, 우리조국 문제를 조선사람끼리 해결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조선 애국적 인민들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북반부의 민주건설을 파괴하여 우리조국의 통일과 민주독립의 기초를 괴멸시킬 목적 하에서 리승만 괴뢰정권으로 하여금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 선동시키고 있다.

우리조국에 조성된 이러한 위급한 정치 정세하에서 미군 즉시 철거, 국토완정, 조국통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 조선의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 앞에는 자기들의 전력량을 총 집결하는 단일한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우리당은 전체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운동을 적극 추동시켰다.

그리하여 북조선로동당 남조선로동당을 선두로하는 남북조선의 七十一개 정당, 사회단체들은 지난 六월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를 소집하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는 우리당 대표의 제의에 구거하여 평화적 조국통일방책에 대한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평화적 조국통일방책에 대한 제의가 발표되자 북반부인민들은 공화국의 민주기지를 일층 튼튼케 하며 공화국 인민경제 二개

년계획 초과완수를 위한 전인미적 투쟁과 결부하여 이를 지지하는 장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화국 남반부 전체 애국적 인민들은 로동자를 선두로 하여 파업, 집회, 시위등으로 나아가서 남조선 전폭을 통하여 유격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며, 유격운동을 일층 맹렬히 전개하면서 평화적 조국통일 방책에 대한 제의를 지지하는 장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당 창립 二수년으로부터 三수년에 이르는 한해동안에 당을 공고화하며,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방면에서와 부강한 조선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당이 수행한 모범적 주도적 역활과 그 업적들은 간단히 이러하다.

우리당은 지난 一년동안의 투쟁을 통하여 인민대중 속에서 더욱 그 위신을 제고시키게 되었고, 그의 전투적 력량을 일층 강화하였으며, 당 주위에 더욱 견고히 인민대중들을 결속시켰다.

오늘 전체 애국적 조선인민들이 남북조선 로동당을 우리조국과 우리민족의 장래운명을 개척할 가장 믿음성있는 위력한 정치적 력량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에게 가장 높은 신임을 보내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사질이 아니다.

오늘 우리당 앞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신성하고도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의 당면과업은 끝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고 인민을 전쟁 방법으로써 자기들의 반동정권을 설정하려는 리승만 도배들을 하루바삐 타도 박멸하고, 우리조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민족 분열정책을 파탄시키며, 공화국기치 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급속히 실현시키는 데 있다.

이 투쟁에서 우리당은 전체 애국적 인민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령도하고 국내의 전체 애국적 세력들 즉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면서 이 신성한 임무를 가까운 자때에 실천시켜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당의 전투적 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당을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일층 공고화하여야 하겠으며, 지난 기간에 당내부 사업을 강화하는 방면에서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부분적 당단체들과 당원들 속에서 나타난 결점들을 급속히 시정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과거의 모든 투쟁에 있어서 항상 당중앙위원회와 김일성동지의 령도 밑에 력사적 승리들을 쟁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우리들의 투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머지 않아 인민들의 력사적 숙망인 조국의 통일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투쟁을 더 한층 제고하자

김 열

쏘베트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해방된 조선인민들은 一九四八년 八월二十五일 총선거를 통하여 오랫동안 갈망하던 자기의 정부를 가지게 되었다。이 력사적 승리는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사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계단으로 되는 것이다。

김일성장군을 수상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절대다수 조선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조선에 있어서 유일한 법적 정부인 까닭으로 쏘베트동맹을 비롯한 모든 인민 민주주의국가들은 공화국 정부와 경제 및 외교관계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내정책에 있어서만 아니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화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평화애호인민들과 더부러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국제적으로 시인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 비호 하에 친일과 민족반역자들로써 조작된 리승만 괴뢰정부는 조선인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우리 조국을 외국에 예속시키며 조선인민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침략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리승만 괴뢰정부는 인민들로부터 고립되고 인민들의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미제국주의 군대의 지지와 보호가 없이는 하루도 자기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로 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고 정권가관들이 강화되고 그의 위신이 제고되면 될수록 원쑤들의 발악도 강화되며, 미제국주의의 침략정책도 더욱 로골화하며, 더욱 적라라한 형태로써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은 추호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고 쏘베트군대가 우리 조국강토로부터 철거한 여후 미제국주의자들

의 침략정책과 리승만 괴뢰정부의 테로 학살 정책은 과연 더욱 강화되었으며 민족분렬의 위기는 한층 더 첨예화되고 있다。

민족적 위기가 조성된 이러한 정세 하에 남북조선 七十여개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총망라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은 우리 조국 독립, 과 국토 완정을 위한 투쟁을 한층 더 높은 계단으로 발전시킨다。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은 또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인민적 토대를 더욱 견고히 하였으며 전조선 인민을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더욱 광범히 또한 굳게 결속시켰다。그러므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강령에는「一九四八년 八월 二十五일 총선거의 결과로 수립된 조선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활동을 협조한다」라고 써어 있다。

해방후 四년동안에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북조선인민위원회로부터 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오늘에 이르기 까지의 전기간을 걸쳐 자기의 일상생활과 산 경험을 통하여 인민정권의 정당한 시책들을 몸소 체험하여 왔다。조선인민들은 인민정권에 모든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부강한 민주주의적 독립국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이것은 인민정권이 인민에게 속하며, 인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공간이며 무기인 까닭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주권에 대한 문제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주권은 인민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 인민회의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제二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 인민회의에 이르기 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제三조)

「일체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사업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전에 소환할 수 있다。」(제四조)

이것은 우리의 인민정권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 인민과 어떠한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가를 말하는 것이다。그러나 인민정권의 풍부하고 모든 진보적인 내용은 단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이 지도적 역활을 노는 광범한 근로인민의 정권이다。이 정권에는 외래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일체 애국적 요소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다만 친일과 민족반역자들과 반동적 지주 및 자본가들만이 제외되고 있

다。 이와 같이 각계 각층을 망라한 주권 구성의 내용은 공화국 정부 구성에 반영되고 있다。 즉 공화국 정부는 정견이 상이한 각당 각파의 대표들로써 구성된 련립정부이다。 이 사실은 공화국 정부가 어느 한 계급의 리해나 한 당파의 리해만을 대표하지 않고 전체 인민의 공통적인 리해관계를 대표하고 옹호하는 정권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정권은 민족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대중단결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다。 다시 하면 우리정부는 민주주의적 민주통일전선에 자기의 정치적 기초를 두고있다。 그러므로 우리정부의 정권은 민족독립을 위하여 싸우며 전체인민의 력량을 자체에 체현하고 있는 투쟁의 무기인 것이다。

우리정권의 이 특색으로부터 정권강화를 위한 투쟁은 곧 민족독립과 국토완정을 위한 투쟁으로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 정세하에 있어서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문제는 가장 긴급한 과제로 된다。 레닌은 말하기를『혁명의 기본문제는 주권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혁명에 있어서 주권을 전취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 문제가 결국 혁명을 완수하는 기본문제임을 가르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공화국 정부 수립은 전조선적으로 주권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조국이 남북으로 량단되어 있으며 남반부에서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이 미제국주의 비호하에 망국적 반동정권을 잡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인민정권을 전조선적으로 수립하며 헌법적으로 보장된 북조선 민주개혁들을 일층 확고 발전시키며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강령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급속한 시일 내에 조국통일을 달성하고 앞으로 남조선도 북조선과 같이 발전하도록 투쟁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급선적 과업은 공화국 정권기관들을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 까지 철저히 강화하는 문제이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그의 핵심으로 되고 있는 로동계급의 처지를 개선하며、로동계급을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조직적으로 장성시켜야 하며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온갖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경리와 산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은 오늘 로동계급의 처지를 더욱 급속히 개선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부여하여 주고 있다。

동시에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공고히 할데 대하여 부단히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지 선전이나 해설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을 통하여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리해가 합치된다는 사실을 리해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로동자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산업 제품들을 농민들에게 값싸게 보내게 하며 농민들은 로동자들에게 식량을 더욱 싸고 풍부하게 보장하여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로동계급과 농민들 속에서 자라나는 새 일군들을 정권기관에 대담하게 동용하여 그의 간부성분을 강화하는 것은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로력인테리들의 향상과 발전에 대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들의 열성과 각오에 따라 유력한 민주역군이 되도록 하며 구 지식인들을 옳게 교양하여 우리의 건설사업에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모든 기회와 조건을 지어주어야 할 것이다。

인민정권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대책의 하나는 공화국 정부가 련립내각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정권기관 내의、우리당원들과 당단체들이 조선인민의 각계 각층의 리익을 옹호하는、방향에서 정부의 사업을 협조 보장하며 련립내각의 원칙에 배치되는 온갖 편향들을 없애고 공정한 립장에서 사업하도록 투쟁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며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당의 로선을 정확히 실천하며、정부의 정강을 받들고 우당들과 더부러 그 정강의 정확한 실현을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만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당원들과 당단체들이 정권기관 사업을 협조 보장하는 데 있어서 특히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은 八·二五총선거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민주진영의 편에 서게 된 모든 중간층들、특히 중소부르죠아지들을 우리 정권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그들을 옳게 교양함으로써 로동계급을 지도적 핵심으로 한 인민정권의 기치 밑에 미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며 어디까지나 민주조국 창건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지도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에서 매판적 독점자본가들과 반동적 지주층을 제외하고는 민족적 중소 부르죠아지들에게 까지도 발전할 자유를 주지 않았으며 그들은 항상 일본제국주의의 민족적 압박 밑에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오늘 남조선에 있어서도 볼 수 있다。 미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는 그의 정책상 방법에 있어서는 비록 다소간 차이가 있을찌언정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한 민족적 압박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있어서 민족산업을 파괴하며 민족자본을 억압하는 정책을 강행

하여 왔는바 이는 현재 남조선의 산업파탄이 무엇보다 명백한 실증으로 된다.

북반부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가 및 상인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완전한 자유 발전이 용허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화국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민족적 중소부르죠아지가 우리와 같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에 있어서 인민정권은 민족적 중소부르죠아지들을 널리 포용하고 있는 것이니 앞으로도 이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돌리어야 할 것이다.

인민정권을 강화함에 있어서 정권과 인민과의 련결을 강화하는 문제는 실로 우리 인민정권의 특성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결론이다. 우리정권이 부르죠아 정권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그것이 인민과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민정권은 인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인민의 리해와 배치되는 일체의 경향들을 용인치 않는다. 정권이 인민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며 리탈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하급기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민주주의가 실시되어야 하며 정권기관 내에서 복무하는 일군들이 민주주의적 사업작풍으로 교양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권기관 내에서의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어떤 순간을 불구하고 항상 정권기관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형태의 하나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민과 정권과의 관계를 일상적으로 조절하며 인민들의 요구를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인민정권은 항상 하부의 실정과 인민들의 동향과 정서를 민첩하게 포착하여 이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또 그들의 신소(申訴)를 가장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한편 인민과 정권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함에 있어서 인민들로 하여금 정권기관의 사업에 일상적으로 직접 참가케 하는 일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으로 된다. 이에 있어서 가장 비근한 실례는 수확고 판정위원회의 사업과 산림보호위원회의 사업이다. 특히 수확고 판정위원회 사업은 인민들이 직접 정권기관 사업에 참가하는 가장 좋은 모범적 실례로 되는 것이니 앞으로 각방면에 있어서 인민들을 이와 같이 직접 정권기관 사업에 참가시키고 정권과 인민과의 관계를 일상적으로 긴밀히 하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권기관 내에서 관료주의자들과 해독분자들을 숙청하고 정권기관자체를 순결화하는 것은 반동과의 투쟁이 더욱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쟁 목표의 하나이다.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는 이미 반동세력이 합법적으로 존재할만한 아무런 물질적 토대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서 반동세력이 전멸된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조선에 있어서 반동세력인 친일적 지주 자본계급은 일본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자기들이 의지할 정치적 토대를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았으며 인민의 앙양된 혁명적 력량앞에 압도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립적으로 정권을 잡고 인민들을 통치하여 본 경험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있어서 반동파들은 해방 직후에 있어서는 큰 세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조선인민들이 로동계급을 선두로 하여 자기의 정권인 인민위원회를 각처에서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정에도 기인되었다.

쏘베트군대가 진주하였던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는 그 군대의 형제적 원조하에 인민위원회들이 자유로이 수립되었으며 또한 완전한 인민정권기관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미군이 진주한 남반부에서는 정세가 전혀 다르게 발전되었다. 즉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군정을 실시하고 인민의 자발적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해산시키고 인민들을 탄압하고 반대로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을 옹호 조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에 있어서의 국내반동 세력은 외래제국주의 세력과 결부되어 급속한 장성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 미제국주의 군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의 비호를 받는 리승만 괴뢰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들은 반동세력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

물론 북반부에 있어서는 반동의 활동은 공공연한 형태로는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 기관에 잠입하여 태업 또는 방해행동등을 은밀이 조직하여 우리사업을 내부적으로 파괴하여 정권기관과 인민을 리탈시키려는 일을 꾀하고 있으며 테로 방화등의 최후발악적 수단을 쓰고 있다.

원쑤들의 이러한 온갖 파괴행동을 근절시키기 위하여서는 정권기관내의 우리 당원들과 당단체들이 항상 원쑤들에 대한 정치적 경각성을 높이며 과거의 승리에 도취하여 무사태평의 안일감에 흐르는 일체 부화한 현상들과 결정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것은 정권기관을 내부로부터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적 임무이다.

인민정권의 위신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법령들과 정부의 시책들이 인민들 속에 옳게 광범히 침투되며 이것이 정확하게 실시되는 일을 우리의 당단체와 당원들이 보장하는 것이 또한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것이다。이 과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들에 대한 선전교양사업을 옳게 조직하며 제정당 사회단체로 하여금 자기조직을 통하여 정부의 모든 결정과 지시들을 제때에 실시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산하 제정당 사회단체들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공화국 정부 및 각급 인민위원회들의 사업과 활동을 협조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다。특히 우리당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있어서 제정당 사회단체들로 하여금 공화국 정부의 정강의 완전실현과 정부의 제반시책들이 옳게 실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선도적 역활을 놀아야 할 것이다。

현하 국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문제가 또한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문제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인민군대의 무력을 강화함으로써 만이 적의 침입에 대한 조국보위의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북반부에서 달성한 조선인민의 세기적 승리의 성과를 공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조국통일과 국토완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조선인민들은 인민군대에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열성적으로 보내어야 할 것이며 또 인민군대에서 복무하는 조선의 아들과 딸들은 이를 무한한 영예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당 각급 단체들은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우수한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복무하도록 하는 사업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삼으며 인민군대의 가족들을 사회적으로 원호하는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정권의 강화는 그것이 대내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다시 말하면 우리 인민정권은 그 발생 및 발전과정에 있어서 항상 위대한 쏘베트동맹의 방조가 있으며 앞으로도 쏘베트동맹과의 공고한 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인민들을 국제주의적 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편협한 민족주의적 경향들을 반대하고 쏘베트인민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굳게하며 또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우호적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주의적 립장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당원들과 당단체들은 이상과 같은 사업들을

정력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북반부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주건설의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남북조선 인민들의 민주력량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투쟁을 자기의 급선적 과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와 아울러 우리들은 목전의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완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이는 우리 정권과 공화국의 물질적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인민대중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민주건설의 공고 발전은 국토완정과 조국독립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며、현하 민족적 당면과업으로 제기된 평화적 통일의 결정적 기초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 된다。

이 모든 사업의 성과는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데만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오늘 우리 조국은 민주와 반동과의 가장 첨각한 대립적 투쟁속에 처하여 있다。그러나 자기의 손에 정권을 장악한 조선인민들은 적에 대하여 조금도 양보와 타협이 없이 인민정권을 결정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토완정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나날이 확대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직접 손에 무기를 잡고 궐기한 남반부 인민들은 남조선 각지역에 인민위원회들을 복구하고 있다。그리하여 복구된 인민정권은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 질서를 수립하고 반동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투쟁은 우리 조국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반대하며、북반부에서 실시된 민주개혁의 빛나는 승리적 성과를 전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투쟁과 직접 련결되는 것이다。

튼튼한 인민정권의 수립은 우리 조국에 조성된 민족분렬의 위기를 제거하고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인민적 구국대책인 평화적 통일의 성과적 투쟁에 있어서 조선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무한한 자신심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수립하였으며、자기들의 손으로 공고 발전시키고 있는 인민정권을 고수 강화하며、모든 태세를 갖추고 긴장되고 동원된 상태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급속한 쟁취를 위하여 총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조국의 민주발전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경리일군들의 과업

김 찬

위대한 쏘베트군대의 결정적 역활에 의하여 우리조선이 일제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이때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생활에 있어서 거대한 민주개혁들이 전체 애국인민들의 절대 지지와 환영 밑에서 승리적으로 완수되었다。그 결과에 과거 일제시대의 제국주의적 주권기관들은 완전히 청산되고 새롭고 진정한 인민민주주의적 정권기관들이 창설되었으며 모든 주권은 인민들의 수중으로 넘어왔다。따라서 과거 일제시대의 제국주의적 경제제도도 청산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 원칙 위에서 자주적 인민적 경제제도가 확립되었다。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의 올바른 지도와 쏘련군대의 우의적 원조 밑에 농촌에 있어서는 토지개혁이 실시되어 농민들은 지주들의 억압 착취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반봉건적 토지관계로부터 해방되어 법적으로 토지의 주인이 되었으며 농촌경리를 활발히 발전시킬만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도시에 있어서는 과거 일제시대의 일본국가 일본인 및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이던 산업、운수、체신、은행등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민족경제발전에 있어서 기본토대를 구축하고 인민경제의 급진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조건들을 지어놓았다。그리하여 민족경제발전에 있어서 물질적 기초로 되는 경제토대를 구축하여 놓았으며 로동법령 실시와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에 의하여 근로인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능력을 다 발휘할만한 제조건을 지어 놓았다。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 제반 민주개혁들이 승리적으로 실시된 결과에 사회경제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혁되었으며 조국을 민주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물질적 토대가 확립되었다。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 실시한 제반 민주개혁들은 새로운 경제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산관계를 맺게하였으며 모든 경제를 일정한 경제적 법칙에 의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제조건들을 지어놓았다。특히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본법칙으로 되는 계획경제 제도를 실시할 만한 제조건들이 이루어졌다。그리하여 一九四七년도부터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는 모든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 관리하게 되었으며 一九四九년도부터는 二개년 인민경제 부흥 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시하게 되었다。그리하여 인민경제발전에 있어서 과거 일제시대의 잔재인 편파성과 락후성을 퇴치하고 인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조건들이 구비되었다。이러한 계획경제 제도는 다만 사회주의국가 쏘베트동맹과 진정한 인민적 사회제도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이상에 지적한 모든 민주개혁들은 조국을 민주화하는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여 놓은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서 실시한 제반 민주개혁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체 애국인민들의 열성적인 참가 밑에서 실시된 것이다。조선이 해방이후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는 낡은 사회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구조를 창설하는 데 각계 각층의 애국인민들은 자기의 창발력을 다 발휘하여 투쟁하였으며 또 그 결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다。그리하여 一九四八년 八월 二十五일 남북조선 애국인민들의 열성적 참가 밑에 조선최고인민회의를 선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련립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는 우리의 거대한 승리인 것이다。부강한 민주조국 창건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모든 애국인민들과함께 각 경제부문에서 활동하는 경리일꾼들도 매우 중요한 역활을 놀았으며 또 놀고 있다。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있어서 인민적 민주주의 경제토대가 창설된 이때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는 것은 경제를 옳게 조직하고 옳게 운영 관리함으로써 모든 력량을 다 발휘하여 민주사회제도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문제인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방향의 경제조직과 발전이 필요한가 하면

첫째로 인민적 민주주의사회의 제도에 부합되는 경제조직

둘째로 전체 인민들의 공동적 리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조직

셋째로 인민들의 창발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경제조직

네째로 확대 재생산과 국가와 전체 인민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생산조직, 나아가서는 민족 경제의 자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조직은 산업, 상업, 농촌경제, 기타 모든 부문에 있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경제조직에 있어서 제국주의 제국가들의 사회에 적합한 독점자본가의 리익을 보장하는 경제조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민주주의적 사회제도의 정책에 알맞는 경제조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함으로써만이 국가와 인민들의 요구하는 산물을 다량적으로 생산하며 인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정당하게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제도의 생산방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제조건들과 새로운 생산관계를 보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 지적한 방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경제조직 및 운영 관리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일꾼들의 역활은 큰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화국 정부는 내각 결정 제一호로써 경리일꾼들의 창발력을 다 발휘하여 민주건설에 이바기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결정 제二조에는 각 기관의 경리책임자는 해당 기관 책임자에게 종속하여 국가의 모든 법령 내각지시 및 직속 상급기관과 해당 기관 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리에 관한 보고와 자체 경리 감사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직속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하여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三조에는 각기관의 경리책임자가 경리사무에 관하여 제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에 종속하는 경리단위(분공장, 지부, 출장소등)의 경리책임자는 책임지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四조에는 각기관 책임자가 해당 산하 기관에 대하여 경리사무에 관한 지시를 줄 때에는 (경리부문의 정원 확정, 변동, 취직, 면직, 전직, 직원봉급 및 상금의 확정을 포함한다) 자기 기관의 경리책임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각 기관 책임자가 자기 기관의 경리부서에 관한 정원확정, 변동, 취직, 면직, 전직, 직원봉급 및 상금확정에 대하여는 해당 경리책임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五조에는 경리사업의 조직 및 집행에 관하여 기관책임자와 경리책임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리책임자는 기관책임자의 의견대로 집행하되 이로 인하여 경리사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즉시 해당 직속 상급기관에 서신 또는 구두로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六조에는 각 기관의 경리에 관한 보고는 기관책임자와 경리책임자가 련서하여야 한다. 금전출납의 근거가 되는 일체 문서는 따로 규정한 바에 의하여 기관 책임자와 경리책임자가 련서함으로써 또는 별도 규정으로써 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단독 서명함으로써 각각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七조에는 경리책임자가 경리에 관한 국가 법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지시를 받은 때에는 그 지시를 집행하기 전에 지시를 한 기관 또는 자기 기관 책임자에게 그 위반 사유를 지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써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구두로써 시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문서로써 이에 대한 확정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를 일단 집행하되 이와 동시에 해당 직속 상급기관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八조에는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지시한 사항이 법에 위반하므로 인하여 범죄사실을 구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리책임자는 이 지시를 집행하지 않고 즉시 해당 직속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 결정의 정확한 실행은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보장하는 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 경제토대는 공고히 될 것이다.

맑쓰가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사회의 성격이든지 물질생산방법이 결정하는 것만치 새로운 경재제도가 창설된 후 그 제도를 공고히 할만한 경제조직과 운영방법이 없이는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 다시 말하면 조선을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적 길로 발전시킬 수 없을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한 목적도, 여기에 있으며 현재까지 실현하고 있는 경제조직의 기본과업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낡은 사회경제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제제도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경제개혁이 필연적인 것이다.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만큼 경제개혁은 단지 경제제도만 개변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사상 정치제도를 개변하는 데 거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쓰딸린은 말하기를 『맑쓰의 유물론적 리론을 사회생활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는 경제발전이 사회의 사상적 정치적 발전을 결정한다』라고 하였다.

부강 민주조국 창건에 들어선 우리에게는 이 쓰딸린의 말이 가장 적절한 교훈으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실시한 제반 민주개혁들과 새로운 원칙 위에서 경제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 조국의 민주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의

의가 있는 것이다。

전체 조선 애국인민들은 이와 같은 사회제도를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해방 이후 공화국 북반부인민들은 력사적 숙망이던 이 목적을 해결하고 그를 발전 공고화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고 있으며 그 투쟁에 있어서 경제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일군들에게는 거대한 과업들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인민경제를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일군들의 역활이 거대하다는 것은 사회를 민주화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개혁이 어떠한 의의가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맑쓰가 「사회의 경제토대가 변경됨에 따라 조만간에 그 사회의 상부구조도 변경된다」라고 한 맑쓰의 말이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쓰딸린은 맑쓰의 이 원리를 해설하면서 「사회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경제발전이 사회의 관념적 정치적 발전을 결정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처음에 외적인 물질적 조건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경된다。

여기에서 중대한 실질적 정치적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세계관 및 우리의 풍습과 습관이 외적 조건으로부터 발생되고 부적당한 법률적 정치적 형태가 경제적 내용에 근거하였다면 우리는 국가의 정치제도와 인민들의 풍습과 습관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데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북반부 자역에서 실시한 경제개혁들은 새로운 경제제도를 확립하며 새로운 생산관계를 설정하여 조국을 새로운 인민적 민주주의 길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정치적 역활를 노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경제조직과 경제 운영을 집행하는 경리사업이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그 사업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일군들의 역활은 실로 거대한 것이다。

인민경제를 민주주의적 원칙 위에서 발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경제조직과 운영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며、또 그 과학적 조직과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인재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경제발전에 있어서 선진적 리론과 기술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그 리론과 기술을 습득한、일군들이 없이는 목적한 방향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것은、불가능한 것이다。 공화국 정부는 경리일군들을 더 양성하며 그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리일군들의 자격심사와 대우조건에 대한 결정서를 一九四九년 八월 二十三일에 채택하였다。

그 결정서에 의하여 각 국가경제기관 및 공리단체에서 복무하는 경리일군들은 일정한 제강에 의하여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심사는 내각 직속으로 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자격심사를 받은 경리일군들은 자격정도에 따라 1、고급경리사 2、상급경리사 3、경리사 4、상급회계원 5、회계원 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다。

자격심사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할 것이며 심사받은 자에게는 증명서를 수여할 것이다。

자격심사를 받은 자는 그 자격에 따라 어떤 경제기관에서든지、지위를 차지할 것이며 일반 규정된 봉급 외에 一〇% 내지 三〇%를 더 받게 될 것이다。

이 결정은 경리일군들에 이미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더 한층 높이는 것이며 책임성을 더 중하게 하는 것이다。 각 경리일군들은 이 결정서를 지지 찬동하는 동시에 실무학습에 더 열성을 내어 자기가 맡은 부문의 기술습득에 더 노력하여야 하며、조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제도를 발전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경제를 과학적인 경제적 법칙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 하나의 중요한 경제법칙은 계획이다。 계획은 우리 경제발전에 중요한 무기로 되는 것이며 계획 없이는 경제를 과학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다。 계획은 인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가리키는 중요한 무기로 되는 동시에 생산수단생산과 소비대상생산간에、산업과 농촌경리간에、채취공업과 가공공업간에、생산부눈과 운수부문간에、축적과 소비간에、인민들의 화폐적 소득과 상품류통간에、생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그의 물질 기술적 장비간에 균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은 인민경제를 발전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 전체 군중들의 힘을 동원하는 무기로 되는 것이다。 쓰딸린은 계획에 대하여 「계획은 수백만 인류의 산 실질적 활동이다。 우리 계획의 실현성은 새생활을 창건하는 수백만명의 로력대중이다。 우리 강령의 실현성은 대중과 우리이며、로력에 대한 우리의 자각적 의사이며、우리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로력하려는 결심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획은 사회의 정치 경제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경제발전의 기본법칙으로 되는 것이다。 계획경제는 민주주의 사회제도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며 또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민들의 요구를 정당하게 실행할 것이다。 경제를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보

다도 먼저 정확한 통계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정확한 통계가 없이는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활을 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며 또 그 계획실행을 검열할 수도 없다。계획은 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표현하는 문헌으로서 그 경제발전을 측량하는 도구이며 통계없이는 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계획과 통계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통계는 일반 경제상황을 표현하는 거울이며 경제활동을 검열하는 무기로 되는 것이다。통계는 그 관점에 의하여 여러가지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부형태는 정부대조표(正負對照表)이다。정부대조표는 좌우 량면으로 나누어 있으며 자산원천 구성과 재산비치를 표시하는 중요한 문건인 것이다。

그외에 정부대조표는 경제기관의 사업결과를 표시하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손익관계를 보여주는 문건이다。그러므로 정부대조표는 경제기관의 전반적 정형을 표현하여 주는 통계인 것이다。정부대조표의 통계 외에 일반적인 통계도 있는것이다。일반적 통계는 일정한 기간을 통한 재산、생산실적、생산능률、전체 작업에 관한 것을 표시하며 사업지도상 필요한 자료로 되는 것이다。정부대조표와 일반적 통계는 경제조직 운영 관리에 관한 상태를 기록하며 전체 경제기관들의 활동상황을 리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경제를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통계는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통계를 정확하게 하는 문제는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문제로 되는 것이며 그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경리일꾼들은 통계에 대하여 심각한 연구를 하여야 하며 통계는 생산과 소비에 대한 검열의 무기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기관들의 책임자들과 경리일꾼들은 통계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며 정확한 통계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로력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 것이다。이러한 경향들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쏘베트동맹에 있어서 레닌은 낡은 사회의 지배적 계급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사회제도 창설에 있어서 통계가 거대한 의의가 있다는 것을 루차에 걸쳐 지적하면서 말하기를 통계 없이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는 역시 통계라고 하였다。쓰딸린은 이 레닌의 원리를 해석하면서 말하기를「어떠한 전설사업、어떠한 국가적 사업、또는 어떠한 계획적 사업이든지 정확한 통계 없이는 실시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쏘베트동맹에 있어서 위대한 레닌—쓰딸린이 사회

발전에 있어서 통계에 대한 의의를 이와 같이 중대하게 평가한 것이 오늘 인민적 민주주의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도 가장 적절한 교훈이며 또 오늘의 새로운 환경과 조건 하에서 인민들로서 생산하는 생산품 소비에 대한 정확성을 옳게 보장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과학적이고 정확한 통계가 필요한 것이다。사회의 생산과 로력에 의한 소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의의는 큰것이다。각 경제분야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에 의하여서만이 그 발전상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발전의 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통계는 경제발전의 척도로 되는 것이며 그 발전을 검열하는 무기로 되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적 활동을 경리하는 중요한 분야의 하나는 통계사업이다。인민경제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분야를 물론하고 통계는 필요한 것이며 통계와 관계 없는 사업분야는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통계는 국가 경리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우리가 목적하는 민주주의 사회제도를 발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상술한 바와 같이 과학적인 통계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그러므로 경리일꾼들에게는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각경제부문에 속하는 기업소 내에서 복무하는 경리일꾼들은 그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맡은바 과업을 질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들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각 경제부문에서 복무하는 경제일꾼들은 과학적인 경제조직과 운영 관리방법을 취하여 일정한 경제발전의 법칙에 의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민주주의적 경제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현계단에 있어서 경리운영에 대한 기본방법인 독립채산제 원칙 위에서 경제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경제발전의 한개의 법칙인 독립채산제를 정확하게 실시함으로써 경리사업의 질적 실행을 보장하는 것이다。또 이러함으로써만이 생산력 확충과 생산품 생산제고 및 확대 재생산、생산품의 질적 향상、생산능률 제고、원가 저하、인민경제적 축적、모든 자산 회전 속도의 제고、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 향상을 보자할 수 있는 것이다。단지 이러한 사업방식만이 전국사업을 전진시킬 수 있으며 근로인민들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또 이러한 과학적인 기본사업방법을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적 민족경제를 발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내부적 원천을 다 리용하여 우리의 자체의 힘과 우리의 자산으로써 통일조국의 경제토대를 더 튼튼히 하며 자주성을

모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리일군들의 기본과업으로 되는 것은 사회의 경제발전의 기본조건의 하나인 생산능률 제고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생산능률 제고는 국가의 생산력과 생산품 생산 제고를 위한 기본문제인 것이다。쏘베트동맹에 있어서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생산능률 제고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조국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일본제국주의 잔재인 경제의 락후성과 편파성을 퇴치하고 부강한 국가로 변환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능률 제고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민경제 부흥발전에 관한 一九四九년—一九五〇년 二개년 인민경제 계획 실행에 있어서 생산능률을 三八二%까지 제고시킬 것을 예견하였다。이 과업 해결은 공화국 북반부 전체 애국인민들에게만 달렸을 뿐만 아니라 각경제기관의 경리일군들의 역할에 더많이 달린 것이다。

각 경제부문에서 복무하는 경제일군들은 자기 맡은바 과업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경리사업의 질적 향상을 보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하나의 법칙으로 되는 원가저하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원가저하는 계획리윤에 대한 초과리윤을 발생케 함으로써 인민경제적 축적을 제고시켜 기업소들의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업을 해결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원가저하는 경제발전의 한개의 경제적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인민경제 계획에는 생산의 질적 량적 실행에 대한 과업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저하에 대한 기본문제도 표시되는 것이다。

원가저하에 대한 계획 과업실행은 민주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기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산 애호와 원가저하 문제는 민족경제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는 것과 국가의 경제력 및 보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본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원가는 로동임금、원료、자재、연료、전력、고정자산의 소모 및 일반의 행정경비로서 구성되었으므로 그 각 요소에 관계되는 비용을 저하시킴으로써 원가저하 문제는 실행될 것이다。이 문제는 원가를 계산하고 그 비용을 직접 통제하는 경리일군들의 활동에 많이 달린 것이다。다음에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한개의 경제적 기본조건으로 되는 경제절약 문제인 것이다。경제절약은 민주주의 사회제도에 있어서 생활 제고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이다。생산에 직접 관계되는 로동력、원료、자재、연료、생산수단 온갖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절약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제도의 경제운영 방법에 있어서 특징으로 되는 것이다。이와 같은 원칙을 실시함으로써만이 락후성을 퇴치하고 경제를 부흥발전시켜 자주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 지적한 원칙적 문제들을 실시할 가능성이 각 경제부문에 다 있는 것이므로 그 실행은 경리일군들의 활동 여하에 많이 달린것이다。각 경리일군들은 국가재산을 애호하며 소비에 대하여 절약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것이다。그러나 일부 일군들은 절약에 대한 의의를 망각하고 국가의 재산을 랑비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다。

매개 경리일군들은 절약에 대한 투쟁은 건국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절약에 대한 투쟁은 계속적인 투쟁이 아니라 계속적인 투쟁이며、이 투쟁은 매개 경리일군들의 습관으로 되어야하며、항상 잊지말아야 한다。쏘베트동맹에 있어서 레닌는 매개 경리일군들에 대하여 「화폐계산을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하라。경리를 절약적으로 운영하라。금전을 사취하지 말라。태만하지 말라。로동규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라」고 호소하였다。이 레닌의 말이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한 교훈으로 될 뿐만 아니라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의 목표로 되어야 할 것이다。경제절약은 인민경제적 축적과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는 중요한 물질적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경리일군들에게는 경제절약이 신성한 의무로 되는 것이다。경제절약은 온갖 랑비를 퇴치하고 모든 생산요소의 합리적 리용과 리윤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그러므로 경제절약을 실시한다는 것은 비생산적 비용을 축소하고 행정관리비를 낮추며、생산행정에서 불합격품과 모든 손실을 퇴치하고 기업소의 경제활동의 추진력으로 되는 재정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경제절약과 계획 과업의 실행은 인민경제 발전의 추진력으로 되는 예산의 세입면을 보장하는 것이다。매개 경리일군들은 생산부과비 저하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어떠한 비용에 있어서든지 일전이라도 절약하여 국가의 공동기금에 충당하여 생산의 합리적 조직과 기술적 향상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경제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각 경제부문에서 복무하는 경리일군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과업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모든 의무와 권한을 정확하게 집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여 공화국 정부 수상 김일성장군 주위에 튼튼히 뭉치어 조국의 급속한 통일 독립과 부강 민주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사회주의 의식의 역할

쓰·찌마렌꼬

(一)

쏘베트국가에 있어서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은 쏘베트 인민의 직접적인 목적이다. 이 위대한 목적을 급속히 달성키 위한 사업에 있어서 인민들의 사상—정치적 및 문화적 수준의 지실한 제고는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공산당과 쏘베트국가는 쏘베트동맹의 모든 근로자들이 당과 국가의 정책을 리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절실한 관심을 돌렸으며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투쟁하였다. 여기에 의거하여 쏘베트 사회의 전진운동이 촉진되며 그 힘과 위력의 원천이 증대된다.

불쉐위크들은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의식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과업에 제일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위대한 十월 사회주의 혁명의 퍽 오랜 이전에 벌써 레닌과 쓰딸린은 로동운동에 사회주의 의식을 주입하기 위한 열렬한 투쟁을 하였던 것이다. 자연생장적 로동운동의 앞에 굴복하며 사회주의 의식의 역할을 멸시하던 기회주의자들을 폭로분쇄하면서 레닌과 쓰딸린은 로동운동과 과학적 사회주의 리론의 결합은 로동계급의 승리를 급속하게 하는 필요한 조건이라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그의 력사적인 저작「무엇을 할것인가?」에 혁명적 리론이 없이는 혁명적 운동도 있을수 없다. 로동운동에 있어서의「자각적 분자」의 역할에 대한 온갖 경시는 바로 로동자들에게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과학적 사회주의가 없는 로동운동은—쓰딸린은 말하였다—반드시 타락하며 트레드—유니온적 즉 개량주의적 사상에 종속될 것이다. 맑쓰주의당이 보지(保持)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의식이 없는 로동운동은 오랜 동안의 암흑에서의 방황과 오랜동안의 고통과 수난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는 불쉐위크당과 그의 수령이며 조직자인 레닌과 쓰딸린이 로동계급을 그들의 계급적 리익에 대한 의식과 그들의 당면 과업과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 리해(理解)시킴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교양하였던 까닭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증시하였다. 「만약에 프로레타리아트가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거대한 의식, 거대한 훈련, 거대한 충실성을 자기에게 형성시키지 않았더라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말조차 못하였을 것이다」(레닌 전집 제二十五권 四四九페지)라고 레닌이 말하였다.

불쉐위크당은 주권을 잡으면서 맨 처음으로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 교양과 재교양에 대한 과업을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써 내세웠다. 이러한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리해 자체가 요구하였다. 사회주의 사회는 모든 이전의 사회—경제적 사회기구와 달라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며 구성될 수 없으며 결국 공산당의 지도 하에 수천만 사람들의 의식적 참가로서 계획적으로 사회생활을 재건설한다. 이것은 물론 당이 의식적인 사회주의 건설자들로 완전히 준비된 간부들을 기다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상가들 즉 소부르죠아적 공론가(空論家)들만이 「말쑥하고 좋고 훌륭하게 교육받은 인간들」(레닌)을 먼저 배양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새로운 사회건설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부패하고 타락한 자본주의에 의하여 교육받은 썩고 락후한 사람들과 그러나 투쟁속에서 단련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건설하기 시작하여야 한다고 레닌은 가르치었다. 다만 낡은 폭압적 착취적 세계를 반대하는 실제적 혁명적 투쟁에서 만이 대중의 사회주의적 재교양이 가능하다. 제三차 공청대회에서 레닌은 공산주의 청년 교양은 온갖 유쾌한 연설이나 도덕에 대한 준칙(準則)하에서 진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공산주의 도덕의 기초에는 공산주의의 강화와 성취를 위한 투쟁이 놓여있다.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교양, 공산주의 교육, 공산주의 학습의 기초로도 된다」(레닌전집 三十권 四一三페지)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과 승리를 위한 투쟁과 쏘베트제도를 수호하며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근로자들의 의식에 가장 심각한 변화를 일으켰으며 수많은 열성적 간부와 자각적 사회주의 건설자들을 단련하여냈다. 쏘베트동맹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와 사회주의의 건설의 력사적 경험은 혁명에 있어서 실제적 운동만이 오직 대중의 공산주의적 의식의 산생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한 맑쓰와 엥겔쓰의 천재적 사상을 빛나게 확증하였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의식의 개변 과정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또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기초에는 당의 거대한 조직자적 정치—교육자적 사업이 있다。 당은 낡은 착취자들 사회로부터 유전된 습성과 전통과 편견을 근절하는 거대한 투쟁을 수행하였으며 또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서 모든 낡은 로쇠한 것파의 랙혹한 투쟁에서 당은 로동자들과 농민들을 새로운 견해와 관념、새로운 관습과 혁명적 전통으로 교양한다。 명백한 목적、불요 불굴의 기질、자기의 힘에 대한 확신、난관을 겁내지 않는 숙련과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성—이러한 특별하고 탁월한 성질을 볼쉐위크당은 쏘베트 동맹의 근로자들에게 교양하였다。

一九二〇년에 외국 간섭자들의 련합세력과 국내 반혁명을 반대하는 전쟁의 승리를 총결하면서 레닌은 로동계급의 선진부대의 고상한 의식、위대한 규률과 미증유의 헌신성은 당시에 연약하고 미려하던 쏘베트동맹이 세계의 강국들을 승리한 가장 깊은 기초로 되었다 고 말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단련된 대중의 사회주의적 의식은 전쟁후의 경제적 파괴를 극복하는 쏘베트인민들을 도와주었으며 짧은 력사적 기간에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재전을 위한 자엄한 과업을 해결하였다。

대중에、대한 당의 거대한、교양사업은 또한 과시스트 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쏘베트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된다。「조국전쟁에서의 쏘베트동맹의 승리는—아·아·스다노브는 말하였다—쏘베트청년들에게 용감성과 자기힘에 대한 확신성을 부식(附植)시키면서 당이 근로대중에게 실시한 그 교양 사업의 결과임을 어려가지 점으로 증시하였다」

심각한 사회—경제적 변혁과 대중에 대한 당의 거대한 정치—교양 사업의 결과로 쏘베트 인민의 정신적 풍모는 근본적으로 변모하였다。쏘베트사람의 압도적 다수 대중은 벌써 공산주의 건설의 열성적 자각적 참가자로 되어있다。이것은 무엇보다도 로동에대한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영광스러울 또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성한 의무로 되는 일로 보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쏘베트 사람들은 전인민적 국가적 리익을 무엇보다도 최고의 것으로 보고 있다。여가에 쏘베트 사람들의 쏘베트 애국자로서의 사상적 장성이 표시된다。

당과 쏘베트국가의 정책에서 근로대중은 자기들의 일상적 리익의 표현을 보고 있다。그러므로 당과 정부의 매개의 계획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혈연적 문제로서 접수된다。인민경제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전후 쓰딸린적、계획이 모든 쏘베트 인민의 전투적 강령으로 된 것은 다 아는 바이다。새 계획을 완수하며 초과완수하기 위한 대중적 사회주의 경쟁은 전국에 전개되고 있다。五개년계획을 四개년에 완수하자는 레닌그라드 사람들의 호소는 광대한 쏘베트 동맹의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거대한 호응을 받았다。창조적 로동의 감격은 수천만 근로자들을 둘러쌌다。대중의 창조적 에네르기는 로동생산성 제고와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자재절약을 위한、생산품의 원가 저하등을 위한 여러가지 투쟁 형태에서 표현되었다。많은 남녀 로동자들이 년간 계획과 五개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개인 맹세를 맺었다。로동자들과 기사—기술 일군들은 모쓰크바 사람들의 호소에 신속히 호응하여 자기들의 능력을 검열하였으며 조국에 수十억의 계획초과 축적을 주었다。도처에서 수익성을 위하며、생산을 더확대하며、생산품의 계획 초과 생산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근로자들의 창조적 경쟁운동에 공청원들과 쏘베트 청년들이 열렬히 참가하였다。 공청 단체들은 절약을 위하며 랑비를 반대하며 생산의 예비를 완전히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로 나서고 있다。년간 계획과 五개년계획의 표준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젊은 쓰따하노비츠들의 수는 날마다 늘어간다。사회주의 가업소에서 수천명의 젊은 생산혁신자들이 자라나고 있다。측 자재와 원료、전력을 크게 절약하려고 진력하는 특기자들(숙련을가진)、합리화 일군들、쓰따하노비츠들이 다。

산업 생산을 전쟁전 수준에 도달시켰을 뿐 아니라 릉가시킨 것은 영웅적 로동의 위업의 직접적 결과이다。 一九四八년도의 九개월간 쏘베트동맹의 산업 총생산고는 一九四〇년 전쟁전 평균수준의 一四%를 초과하였으며 十一월에는 二六%를 초과하였다。사회주의 조국의 위력을 공고히 하며 공산주의에로의 그의 운동을 촉진하는 것은 로동자들과 기사—기술 일군들을 모든 새로운 탁월한 사업에 고무하는 그 추동력과 같은 것이다。

로동의 용감성에 대한 아주 똑똑한 실례를 꼴호즈 농민들이 표시하였다。「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농촌경리 향상대책에 대한」전동맹 공산당 중앙위원회 二월 확대회의의 결정은 사회주의적 농업의 모든 로력자들에 의하여 거대한 정치적 생산적 장성으로써 호응되었다。이 결정에 대한 대답은 높은 쓰딸린적 수확고를 위한 위력한 사회주의적 경쟁이다。남녀 꼴호즈원들 농촌 경리의 로

동자들은 쓰딸린에게 보내는 많은 편지에서 꼴호즈의 집단 경리를 강화하며 가장 짧은 기간에 모든 근로자들의 복리를 급격히 향상시키며 국가의 거대한 예비를 창조하기에 필요한 그만한 수량의 량곡을 국가에 주는 농촌경리 사업에 대한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할 맹세를 하였다. 그리하여 이 약속은 영광스럽게 수행되었다. 벌써 一九四七년에 국가는 거의 전쟁전 시기보다 더많은 수량의 곡물을 받았다. 一九四八년에 농촌 경리의 성과는 더욱 현저하게 큰 것이었다. 다만 一九四八년 파종면적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一천三백만 헥따르를 더 증가시켰다. 립곡(粒穀)수확고는 볼가류역(流域)지방의 대부분의 한발(旱魃)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그 총수확은 전재전인 一九四〇년 수준에 따라갔으며 헥따르당(當)곡물 수확량은 전쟁전 수준을 초과하였다.

각처에서의 거의 모든 꼴호즈와 쏩호즈들이 곡물 공급 준비에 대한 국가적 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고 국가에 곡물을 초과 납부하기 위한 거대한 경쟁이 전개되었다. 일찌기 쏘베트 농촌은 이러한 거대한 로동의 장성을 보인일이 없다. 여기에서 꼴호즈 농민들의 깊은 애국주의와 그들의 장성한 사회주의 의식의 표현을 보지않을 수 없다. 로동계급 및 농민과 함께 탁월한 애국주의의 모범을 쏘베트 인테리겐차가 보여준다. 근년에 쏘베트 동맹의 생활에 있어서 쏘베트 과학, 문학, 예술 령역의 많은 탁월한 업적들은 특기할일이다. 쏘베트 지식인들은 공산주의를 위한 적극적 투쟁의 대렬에서 영예스러운 자리를 차지한다.

(二)

착취계급과 사람에의한 사람의 착취로부터 해방된 쏘베트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사회주의 의식은 공산주의 건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기본적 조건으로 제기된다. 일찌기 몰로또브는 一九三九년 전동맹 공산당(볼쉐위크) 제一八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더한층 장성과 충족한 발전을 위한 그만큼한 전제조건과 가능성을 창조하였다. 우리에게 시방 주요한것은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또 특히 쏘베트 인테리겐차 간부의 발전을 위한 사상교양에 대한 우리 볼쉐위크적 사업에 있어서 공산주의적—의식의 관계에 립각한것이다.」

쏘베트 건설기에 있어서 당은 대중의 사회주의적 재교양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쏘베트 국가의 근로자들중에는 아직 부르죠아적 여습, 개인소유 심리, 사회주의 사회와 무관계한 관습과 견해를 가진 락후한 사람

들이 적지않게 남아 있다. 사회주의는 아직 완전한 공산주의가 아니다. 맑쓰는 가르치었다. 자본주의로부터 금방 산생한 사회주의 사회는 경제적 도덕적 정신적 관계에서 낡은 사회의 「자점(紫點)」을 아직 보존하고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아직 도시와 농촌간의 대립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으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모순이 보존되어 있으며 사회에서 계급적 차별등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다. 달리 말하면 사회주의에서는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히 근로자들의 의식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의 여습이 아직 존재한다.

쓰딸린은 사람들의 의식은 그의 발전에 있어서 그 경제적 조건보다 뒤떨어진다고 가르치었다. 이것은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조건이 근본적으로 변모된 이후에도 모든 낡은 관념, 여습, 인습이 아직 가장 많은 락후된 근로층속에 보존되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관념과 여습들을 근절하는 과정은 적지않은 시간과 많은 교양사업을 요구한다.

쏘베트 사람들의 의식에는 아직 자본주의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포위는 이 잔재를 북돋아 주고 유지함에 온갖 애를 쓰고 있는 까닭이다. 그들—이 잔재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성취하는 과업과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촉진하는 경제적 행정에서 중대한 장애가 된다. 그렇기때문에 볼쉐위크당은 공산주의 교양, 근로자들의 의식에서 자본주의 잔재를 극복하는 과업을 모든 쏘베트국내정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우리는 모든 쏘베트 사람들이 공산주의에로의 행정에서 로동에 대하여, 사회적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규률을 준수함에 대하여, 자각적으로 관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현대의 선진적 인간은 공산주의의 열성적 의식적 건설자이다. 그중에서 벌써 압도적 근로대중은 의식적으로 나아가고있다. 그러나 소부르죠아적 여습은 특히 농민들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동자들과 사무원들 속에 매우 살아 있다. 아직 자기를 위하여 국가에서 더많이 뜯어내려고 하면서 국가에 대하여서는 더적은 로동을 제공하는 일이 적지않게 있다. 농민들가운데 국가의 리익이나 자기 꼴호즈의 리익에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꼴호즈에서 로동을 싫어하면서도 자기의 개인적 리기적 리익을 국가와 꼴호즈의 리익보다 더높이 세우고있다. 이러한 개인적 리익의 사회적 리익에 대한 대립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성원의 공동적 집단적 로동에 기초한 사회주의 사회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것이다.

사적 소유와 어느한사람이 다른사람의 로동에

의한 개인적 리윤의 원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합치가 없으며 또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는 호상 략탈의 기초에 서있다고 레닌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회에서 교양되면서 사람은 어린때부터 개인주의적 소유자적 심리를 가지게 된다.

사회주의의 조건 하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상태이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지주와 자본가들을 위하여 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사회와 자기의 국가를 위하여 일한다. 모든 우리의 성과와 행복에 각자의 행복이 의존하여 있다.

사회주의는 로동에 의하여 건설되며 사회주의와 로동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고 쓰딸린이 가르치었다. 그러므로 쏘베트 국가의 기본법—쓰딸린 헌법—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각자는 능력에 의하여 각자에게는 로동에 의하여」라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에는 건달꾼, 기식자(寄食者), 협잡꾼—레닌의 표현에 의하면 쏘베트 사회의 몸에 헐미이며 염병인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로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첫째로 가는 의무이며 로동 능력있는 매개 공민들의 영예이다. 이 의무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며 한사람이 다른사람을 위하여 로동하는 가능성을 폐절하는 사회주의의 참말 본성으로부터 귀결되는것이다.

공산주의 건설의 관심은 다만 쏘베트 사람들의 대다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로할 것을 요구한다. 일찌기 一九三三년 드네쁘로뻬트롭스크주(州) 꼴호즈원들과의 회견석상에서,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모든 꼴호즈원들이 —다만 대다수뿐 아니라— 정직하게 일한다면 꼴호즈들은 생산품으로써 가득 찰 것이요, 그들은 온갖 행복에 가득 찰 것이며, 그리고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될것이다」

공산주의적 교양의 과업은 매개 로동자들이 자기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게 정직하게 대할 필요성을 자각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공장에서, 작업소에서, 꼴호즈에서, 쏩호즈와 사회적 기관에서 고상한 로동규률을 위한 투쟁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태만분자들 및 파괴분자들에 대한 방임적 관계는 개별적 인간들로 하여금 드물지 않게 사회주의 로동규률의 가장 초보적인 규정들을 문란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된다. 여기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꼴호즈원들이 쓰딸린에게 보내는 편지에 올바로 썼다. 즉 「우리는 꼴호즈원의 일부에 락후한 기풍과, 건달꾼과, 로동규률을 문란케 하는 자들과의 당면투쟁을 아직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자주 묵과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솔직히 고백하여야 하겠습니다. 결과에 몇사람의 꼴호즈원들의 좋지 못한 작업은 결국 선진분자와 모든 꼴호즈원들의 좋은 작업을 파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묵과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최소의 로동시간을 가지고 작업 정량을 내기 위하여 훌륭하게 로동하며 또 그것을 초과 수행할수 있으며 또 하여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로동을 하라고 요구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으며 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로력자들은 라태하고 게으른 사실에 대하여 대단히 분노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실들은 경제계획의 수행을 파탄시키며 사업에 문란과 무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생산에 대한 태만분자 교란분자를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은 모든 당단체, 쏘베트, 공청 및 직업동맹단체들의 당면과업이다. 청년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로동규률을 교양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공청단체들의 역할은 특히 위대하다. 공청단체들은 청년로동자들 및 꼴호즈원들에게 고상한 규률의 의의를 해석하며 결근을 허용하는자,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의 모든 방법을 다하여 일하지 않는자, 로동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는자, 사회주의사업에 대하여 해독을 주며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독을 주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데 대하여 해석할 것을 호소한다. 공청단체들과 공청원들은 기생자(寄生者)들과 사회주의적 재산에 대한 략취자들과의 투쟁에 대하여 첨예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모든 공민들에게 자기의 재능껏 로동할 것과 인민의 행복을 지키며 증가할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결정적 과업에 대한 원천이 있다.

「우리에게는 우선 재능껏 로동할 것을 배우며 사회적 행복을 지킬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충분하게 만들어내며 로동의 성과를 지키는 것을 훈련받는 때에는 모든 것은 필요에 대하여 충족하게 된것이다」라고 므·이·깔리닌이 말하였다.

대중을 문화적으로 더한층 거대하게 향상시키는 것은 근로자들의 의식에서 자본주의적 잔재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된다. 쏘베트 전세기에 인민들의 문화적 발전은 장족의 진보를 보였다. 쏘베트 동맹의 문화적 발전은 표준과 속도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력사가 아는 모든 것을 릉가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건설의 전망의 관점에서 볼때에는 아직 주민대중의 문화수준은 충분할만치 고도로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 문맹과 생산과 생활에서 비문화적인 잔재가

있으며 해이성과 불충실한것에 대하여 허용하는 관계들이 남아 있다。아직 우리는 관료주의 부당 자들, 녀자에 대하여 무례한 관계들을 볼수있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유전받은 비문화적 잔재의 다른 표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공산주의 건설의 과업은 일반 근로자들의 문화 수준과 또 특히 쏘베트 인테리겐챠 간부들의 문화수준을 제고시킬 새롭고 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한다。우리는 로동계급의 문화—기술적 수준을 제고하여야하며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기술자—기사 일꾼들의 수준에 까지 이르게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결정적 전제조건을 창조할것이다。이 모든 자질들은 근로자들을 백방으로 학습시키며 거대한 문화적 변혁사업을 요구한다。우리에게는 아직 약간의 학문이 적은 자들과 문맹자들이 있다。그리고 문맹자들은 국가적 및 경제적 건설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기 곤난한것이다。

문화의 더한층 향상을 위한 사업에 있어서 수천만의 쏘베트 공민의 젊은 세대를 교양하며 훈련하는 쏘베트 학교들에 특별히 영예스러운 역활이 걸머지워있다。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걸머졌다。즉 청년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어서 결정적 역활을 하여야 할것이다。그러나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알아야하며 배워야하며 선진 과학을 파악하며 선진 기술 및 문화를 파악하여야 하다。「모쓰크바로부터 멀리」라는 브·아자예브의 첫재적 작품에 나오는 소설의 주인공 악력세이·크브소브는 「아마도 三十년 동안은 쏘베트 청년들로 하여금 천학(淺學)으로 있을 권리를 주지않는다。쏘베트청년은 자기가 선택한 사업에서 주인이 되어야하다。우리에게는 수천명의 지도자들, 기사들, 건축가들, 화학자들, 교사들, 의사들, 참된 명수(名手)들이 장성되였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천학과 일바적 문맹자들이 있다。그러나 사람들은 동등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쏘베트의 학교들은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훈련과 교양을 위한 중요한 무기이다。그러므로 각급 학교들 사업에 대하여 공청 단체들은 반드시 주의를 집중하여야 할것이다。교양 사업의 불가결의 구성부분은 간부들과 대중을 볼쉐위크적으로 교양하는 방법으로서의 비판과 자기비판이다。 비판과 자기비판은 쏘베트사회 발전의 추진력의 하나이며 낡은 로쇠(老衰)한것을 극복하며, 새로운 진보적인것을 공고히하는데있어서 도움이 된다。자기비판이 없이는 당과 계급과 대중에대한 올바른 교양이/ 없으며 또한 있을수 없다 고 쓰딸린은 가르친다。

철저한 비판과 자기비판은 대중의 창발심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되며 그들의 정신을 고무하며 그들의 사상적 정치적 수준을 제고한다。

「비판이 없는 곳에는 진부(陳腐)와 정체(停滯)가 뿌리박으며 거기에는 전진 운동이 없다」 (스다노브)

비판은 쏘베트 사람들이 성과에 안심하지말며 자기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향하여 앞으로 돌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쓰딸린은 가르치기를 간부들은 매일 자기 사업을 총화할것이며, 자기를 검사하는것을 겁내지 말것이며, 자기사업을 분석할것이며, 자기의 결점과 오유를 용감하게 비판할것이며, 자기사업에서 더좋은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하는것을 생각하여볼것이며, 끊임없이 자기의 완성을 위하여 사업할것이다 라고 하였다。청년들을 비판과 자기비판으로 교양하며 고귀한 볼쉐위크적 성질 즉 앞으로 가는 막을수 없는 열망, 새로운 감정으로 배양하는 이러한것은 모든 젊은 공산주의 건설자들을 사회주의 의식으로 만들어내며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三)

공산주의를 위한 열성적 의식적 투사가 된다는 것은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모든 힘으로써 조국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쏘베트 애국자가 되는것을 의미한다。쏘베트 애국자에게는 조국과 공산주의는 분리할수없는 한 몸적으로 통일된다。딸리는 될수없다。쏘베트 동맹은 공산주의의 리상의 산 권화(權化)이다。쏘베트 동맹에서의 사회주의 사회건설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수억만 일반 사람들이 념원(念願)하였으며 또 계속하여 념원하고있는 그것을 실지에서·쏘베트 인민이 처음으로 실현한것이다。쏘베트 동맹에있어서는 벌써 퍽 오래전에 모든 사회적 민족적 압박의 양태가 청산되었다。쏘베트 나라에는 매개의 근로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능력에 적응한 발전과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있는 실지적 조건이 창조되었다。

쏘베트 동맹은 근로자들의 진정한 조국이다。쏘베트동맹의 로력자들 위에는 실업의 위협한 운명과 래일에 대한 불안이 놓여있지 않으며 그들에게는 인종적 또는 민족적 차별이 위협하지 않는다。매개의 쏘베트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가장 적당한 사회적 활동무대에서 발전과 풍성의 가능성이 허여되었다。그러므로 쏘베트 사람들은 자기의 조국을 자식다운 깊은 애정으로 사랑하며 그것은 쏘베트 애국주의에서 명백히 인증된다。

쏘베트 애국주의의 힘은 인종적 또는 민족적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든 쏘베트 동맹의 인민들의 형제적 친선과 사회주의 조국에대한 그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신념을 가린 기초위에 그것이 립각한것이다。

쏘베트 애국주의는 공산주의를·위한 투쟁에 있어서 쏘베트 인민의 위대한 생명력을주는 힘이며 제국주의 반동파 그 이데올로기에대한 투쟁에 있어서 위력한 정신적 무기이다。 볼쉐위크당은 쏘베트 애국주의를 발전시키며 배양하며 모든 쏘베트 청년들을 이러한 애국주의의 정신으로 교양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포위의 환경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설사 제二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있어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력량이 많이 장성되였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의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의 위협은 아직 모두 제거된것이 아니다。「……새전쟁 계획을 품고있는 국제 반동의 음모에 대하여 한초라도 잊어서는 안된다。」(쓰딸린)

제국주의의 진영, 무엇보다도 그의 주도적 력량인 북미합중국은 자본주의국가들을 반쏘 블럭으로 두두려 모으려고 시도하며 전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진보적 세력을 파괴하며 구라파와 다른 나라들에서 반동파시즘 제도를 소생시키는데 광태를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국주의의 반동은 제국주의 렵장이 견고하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힘이 쇠퇴하였다는 평범한 사상적 깜파니야를 전파하고 있다。 또다시 인종적 참교대와「선발된」「렬등한」민족론을 류포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의 진영은 자기들의 주구인 철학자, 작가, 정치가들을 풀어 놓았다。 그들은 야수적 민족주의와 배외주의를 한결같이 전도하며 인민들의, 민족적 자주권의 원칙을 비방하며 국경을 청산하며 더 말할것없이 미국의 비호하에「전세계 정부」「구라파합중국」의 창건을 요구한다。

제국주의의 사상적 봉사자(奉仕者)들 가운데있어서「쇠멸된」민족파 민족성에 대한 관념을 선포하는 코스모뽈리티즘 혹은 민족허무주의라고 부르는 리론이 류행된다。 무엇보다도 꼬스모뽈리트의 새 표현은 쏘베트 동맹에대한, 쏘베트인민의 문화에 있어서의 민족적 형식과 사회주의적 내용에 대한 공격이다。

쏘베트 애국주의는 쏘베트 동맹의 근로자들의 생활상 리익과 민족적 전통에 합치되며 인민의 노예화를 위한 제국주의적 계획을 은폐하기위한 부패한 반동적 사상과 대립된다。 제국주의의 선동자들은 또다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十자군」에 관하여 호소하며 마치 공산주의가「서방 문화」를 위협하는 것처럼 소리치고 있다。 전체 인류의 진보적 발전에 쏘베트 동맹의 영향이 힘있게 장성되는것은 반동에게 심대한 불안을 준다。 아·아·스다노브는「위대한 조국전쟁에서 사회주의의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것은……제국주의자들의 목구멍에 뼈가 걸린것으로 된다。 맑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중심은 이제는 미국과 영국으로 옮겨졌다。 모든 몽매와 반동의 힘은 이제는 맑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복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부르죠아지들의 세계에는 국내에서의 쏘베트의 성과와 마찬가지로 국제무대에서도 쏘베트동맹의 성과가 마음에 안든다。 부르죠아지들은 쏘베트동맹을 미워하며 무서워한다。 여기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쏘베트 동맹을 비방하며 쏘베트동맹을 이단시(異端視)하려고 시도한다。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의 건설, 쏘베트 과학, 문학, 예술의 거대한 성과를 훼손하려고 시도하며 쏘베트 인민들의 자기력량을 믿지못하도록 욕설한다。 사회주의의 적들은 쏘베트 인민들의 승리적 전진을 방해하며 더럽히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않으며 어떠한 비렬한것도 멈추지않는다。

이 모든 사실들은 쏘베트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경각성, 주의심과 적을 분별함에 정통하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리인들의 교활한 기도와 버릇을 판단할줄 알것을 요구한다。

볼쉐위크당은 부단히 쏘베트 청년들에게 쏘베트 사람들의 민족적 긍지와 사회주의사회의 운명에 대한 고상한 책임성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배려한다。

우리의 적들이 쏘베트 사람들 속에 밀수(密輸)한 사상을 끌고다니며 부르죠아지의 관념과 견해를 끌고다니는 모든 또는 온갖 시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반드시 전개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우리에게 부르죠아 사상과 문화에 대하여 아첨하며 굴종하는데서 벗어나지못한 부분적 사람들이 아직 있는까닭에 더욱 필요하다。

부르죠아적 서방에 대한 아첨은 어떤「고상한 종족」과「고상한 문화」의 대표자라고 행세하던 외국인들이 범람하면 혁명전 낡은 로씨야로부터 남겨놓은 치욕적 잔재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당시에 낡은 인테리들의 약간의 그루빠들속에서는 구라파의 부르죠아지 국가들에 대한 자기들의 렬등(劣等)과 정신적 예속의 노예적 의식이 보급되었다。 외국 협잡군들과 탐정들은 국가의 민족적 독립에 관하여서의 짜리 전제정치의 범죄적 방심을 리용하면서 로씨야의 각종 기관에 들어차 있었으며 귀족사회에 굴종과 자기민족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비속된 감정을 배양하였다。 외국사람들에 대한 아첨은 인민들과 지극히 리탈된

귀속 및 부르죠아 인테리층들에 고유한것이다。
외국탐정들에게 복무한 뜨로츠키도당들、지노뷔예브 도당들、부하린도당들과 기타 인민의 원쑤들은 서방(西方) 자본주의에 대한 아첨과 굴종의 노예적 감정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흉포한 증오감으로써 특출하였다。 그들은 쏘베트 인민을 중상하였으며 쏘베트 사람들 속에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을 심어놓으려고 시도하였으며 외국 자본가들의 란탈에 인민을 내어 맡기려고 기도하였다。 쏘베트 인민은 모든 이 더러운것들을 국토에서 소탕하여 버리었다。 볼쉐위크당은 쏘베트 사람을 자기조국에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자랑의 정신으로 교양하였다。 쏘베트 애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 조국의 리익보다 더 높은 리익은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서구라파에 대한 유해한 아첨의 구습은 쏘베트인테리의 가장 락후한 약간의 분자들 속에 아직도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이것은 정치에 무관심하며 비애국주의적 사상과 기분에 항상 열중하여있는 쏘베트 동맹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문학、연극、음악의 표현에 나타난다。 당 중앙위원회는 이데올로기활동의 문제에과한 어떤 결정서들에 있는 전기와같은 현상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비난하였다。 부패한 부르죠아적 사상과 문화에 대한 「아첨의 유습을 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쏘베트의 애국자가 될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다른 인민을 따라넘어가는 전력사적 시기에 처한 쏘베트 사람에게는 착취계급들의 사상、문화 및 습관에 대한 굴종이 없다。

작가 일리야·예렌부르그는 평화 옹호문화활동가들의 전세계대회에서 현재 「부르죠아 문화에 대하여 말할수없다。 그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부르죠아지의 야만주의(바바리즘)는 공개적이다。 이 야만주의는 잔인과 간통자적 희극、자동차와 립체영화 실험실과 정신분석학적 소설들을 가질수있다。 이것이 모두 야만주의인 것이다」라고 올바르게 말하였다。

쏘베트 애국주의자들은 반드시 민족적 장점에 대한 의식을 가질것이며 쏘베트 사회에 관계없는 어떠한 다른 사상의 표현에 대하여서도 비타협적이어야한다。 쏘베트 동맹에 대한 계급 투쟁의 모든 예봉(銳鋒)은 이제는 국제적 무대에 옮겨져 있다는것을 항상 기억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와의 두제도 간의 경쟁이 일어난다。 여기에서 부르죠아지들의 정책의 낡아빠진 사소한일에 대하여 우리당으로 하여금 자기의 무기를 시험하도록 하는것이다」(말렌꼬브)

위대한 공산주의 사업을 위하여 렵각한 철저한

결의와 준비와 사상에 정통하는 것은 쏘베트 사람들、특히 쏘베트 청년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쏘베트 청년을 사사적으로 단련하는 중요한 방법은 맑쓰—레닌주의를 깊이 연구하는데 있다。 맑쓰—레닌주의과학은 사회발전 법칙과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건설의 법칙에 대한 인식으로써 무장시킨다。 이 과학은 현재를 올바로 파악하며 미래를 예견하는데 도움을 준다。

맑쓰주의—레닌주의를 연구하는것은 쏘베트동맹의 간부들 청년들이 자유 자재로 국제 생활과 국내 사건들을 인식하며 자기사업의 전망을 가지며 자기 사업의 정당성을 믿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왜그러냐하면 운동의 목적을 모르면 전직할수 없는 까닭이다。

一九三八년 고급학교 일군들의 회의에서 진술한 력사적 연설에서 브·므·모로또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우리들의 사업범위는 쏘베트 주권이 실시할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위대하다。 생활의 재건설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것은 우리의 조건하에서는 다만 일상적 사업에만 국한할수 없으며 현재의 필요에만 국한할수 없으며 우리들의 발전의 전반적 로선에 의식적으로 련결하며、우리들이 참가한 력사적 사건들에 의식적으로 련결시켜야 한다」

간부들의 정치적 수준과 맑쓰—레닌적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그들의 사업이 더 성과적이며 그들의 사업의 결과가 더 효과적이라고 쓰딸린은 가르치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군들의 정치적 수준과 맑쓰—레닌적 의식이 낮으면 낮은 것만큼 그만큼 사업에서 실패와 파탄이 더확정적으로 되며 일군들자체가 인색한(목전의 적은 문제만 취급하는 ……역자) 자로 타락하며 퇴폐하게 될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우리 간부들을 정치적으로 준비하고 그들을 맑쓰주의자—레닌주의자로 완전히 성숙시키고 국가적 지도의 문제에 중대한 오유가 없이 결정할 능력을 가질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十분의九는 해결한다는 것으로 볼수있다 고 쓰딸린은 지적하였다。 맑쓰주의—레닌주의는 만약 매개 쏘베트 사람들이 쏘베트 국가와 사회—정치적 생활의 적극적 참가자가 될것을 희망한다면 매개 쏘베트 사람에게 필요한 과학 부문이며 학식이다。 국가 생활의 국가적、경제적、문화적 분야에 줄겨 복무하고 있는 매개 쏘베트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자기들의 사상—정치적 수준을 향상할 필요성을 확신한다。

이제 모쓰크바시 끼예브쓰키 구역 인민 판사·계、

제·이와노브는 얼마전에「신세계」잡지에 발표된「인민재판기」에서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레닌과 쓰딸린을 끊임없이 읽으며 통독한다…… 이것이 없이는 솔직히 말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일할만한 철저한 확신이 있을수 없다—나에게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나 지적(知的)로동은 즐거운것이 아니다。례를 들면 나는 법률과 국가에 대한 재판과 혁명 법칙에 대한 중요한 레닌과 쓰딸린의 지시를 모르는 법률가로서 출발하였던것이다! 독자들은 내가 옳지않은 것을 모를것이다。나는 나의 직업에 직접 관계있는 문제에 대한 레닌과 쓰딸린이 쓴것만 읽으며 연구하여서는 안된다…… 자기의 지식을 이러한 방법에 국한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독이다。전문가들이 제아무리 국가건설 분야에대하여、경제 문화 분야에 대하여 자기의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당의 정책을 잘알며 경제 문제를 분별하며 민족문제에 대한 당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사상으로 청년들을 교양하며 청년들 속에서 항상 맑쓰주의—레닌주의를 선전하는것은 공청의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맑쓰—레닌과학을 완전히 소유하며 실제 사업에서 이것을 지침으로 지도하는 것을 배우는것은 —볼쉐위크의 늙은 세대를 교대할 자격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다。(「볼로도이·볼쉐위크」一九四九년一호에서)

쏘베트화페의 역할과 기능

브·이·꼰니꼬브

쏘베트동맹에서 류통수단(流通手段)의 회전률을 촉진시키며、생산품의 원가를 저하시키며、기업소의 수익률(收益率)을 향상시키며、계획 이상의 저축을 하기 위하여 광범히 전개된 사회주의적 경쟁은 화페의 계산적 역할과 또한 생산 및 사회적 생산품 분배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대단히 제고시키고 있다。

화페의 성질과 사명은 사회적 생산방식과 사회의 계급적 구성과 그 발전의 경제적 법칙에 의하여 결정된다。위대한 十월혁명이 승리한 결과에 쏘베트동맹에 확립된 사회주의적 경제체계 즉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토대로 한 이 경제체계가 쏘베트화페의 성질과 사명을 결정하고 있다。쏘베트화페가 마치 자본주의적 화페와 하등의 원칙적 차이를 가지지 않으며 또한 쏘베트화페체계가 마치「자본주의적 경제원칙」으로서 일관되여 있는 듯이 말한 인민의 원쑤——뜨로쯔끼주의자인 쏘폴니꼬브——의 복고주의적(復古主義的)이며 반혁명적인 신념을 전동맹 공산당(볼쉐위크) 제十四차대회에서 폭로하면서 쓰딸린동지는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조건 하에서는 화페체계의 기능과 사명이 사회주의에 유리하게、그리고 자본주의에 불리하게 원칙상 근본적으로 변화된다고 지적하였다。

쏘련에 있어서 화페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표현한다。이 화페는 적대적 계급들이 없는 사회에서 그리고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 있으며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지도되는 사회주의적 경제체계의 제조건 하에서 자기 기능을 다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경제발전법칙은 자본주의사회의 경제발전법칙과 원칙적으로 구별된다。쏘베트동맹에서 경제법칙들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필연성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실현은 자본주의의 조건 하에서와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저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와 레닌—쓰딸린당의 자각적인 의지에 의하여 지도되는 쏘베트인민의 조직적인 행동의 방법으로서 실현되는 것이며—

쓰딸린동지는 공산주의사회의 두 계단에 관한 맑쓰—레닌주의적 학설을 발전시키며 또한 사회주의건설의 경험을 천재적으로 총화하면서 쏘베트동맹에서의 혁신된 형태의 가치법칙의 작용을 발견하였다。가치법칙이 쏘베트동맹에서는 계획적인 생산과 사회적 생산품 분배를 조직하기 위하여 쏘베트국가에 의하여 혁신된 형태로서 자각적으로 리용되고 있다。 혁신된 형태의 가치법칙의 작용은 화폐가 자본 즉 착취의 도구로 전환되는 것을 배제(排除)하는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에만 특유한 것이다。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사회주의경제에 있어서는 평균리윤법칙이 작용할 수 없다。쏘베트국가는 인민경제의 계획적인 발전에 대한 제 요구와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제 과업과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데 대한 제 과업에 의하여 지도되면서、개별적 기업소들과 전체 산업분야의 사업을 지도한다。

쏘베트국가는 국가적 계획화를 위하여 즉 생산 및 사회적 생산품 분배에 있어서 인민경제의 각종 분야 사이에 로동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또한 쏘베트상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치법칙을 리용한다。쏘베트국가는 생산지출 및 류통의 계산 및 계획화를 위하여 가치법칙을 리용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화폐는 로동의 표준과 수요의 표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리용된다。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는 국가기업소에 종사하는 로동자의 로동과 꼴호즈경제에 종사하는 농민의 로동과의 사이에 차이가——즉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가 존재하는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다시 말하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와 숙련로동과 미숙련로동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며 인민경제의 각종 분야에 있어서 로동의 기술적 무장화의 정도와 생산기계화의 정도가 동일치 않다。사회주의 사회는 사회적 생산물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매개 공민의 로동이 가지는 숙련정도 집약성 및 난이(難易)를 참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회주의경제에 있어서 사회적 로동의 다종 다양성은 로동의 계산을 직접 로동시간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을 불가능케 하는 것이며 계산과 통제에 있어서 화폐의 형태를 리용할 필요성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에 있어서는——공산주의사회의 첫계단에 있어서는——『각자로부터는 그의 능력에 의하여, 각자에게는 그의 로동에 의하여』라는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공산주의 사회의 최고계단이 도래할 때까지는 생활필수품은 로동에 의하여 분배되는 것이며 그리고 로동 및 수요의 표준에 대한 계산과 통제는 화폐의 원조 하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맑쓰와 엥겔쓰의 저서들에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화폐 금융 및 은행을 리용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것이다。그러나 맑쓰와 엥겔쓰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상품화폐형태가 필요함을 선견하였으며 또한 그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가 청산되며 계획경제가 조직된다면 상업과 화폐가 불필요하여진다는 것을 인정하였다。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의 화폐의 역할에 관한 학설의 토대는 브·이·레닌에 의하여 창조되였다。그는 화폐에 의한 계산 생산에 있어서의 통제 및 화폐류통의 역할을 백방으로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과 쏘베트화폐의 류통 및 쏘베트루블을 강화시킬 데 대한 필요성을 수차 지적하였다。·『이미 사회주의혁명의 이전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자들은 화폐를 즉시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썼으며 또한 우리는 자기경험에 의하여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화폐를 청산하기 위하여는 어느정도 대단히 곤난하며 대단히 중요한 극히 많은 기술적이며 조직적인 전취(戰取)가 필요하다。화폐를 청산하기 위하여는 수억만의 사람들을 위하여 생산품 분배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장구한 시일을 요구하는 사업이다』라고 브·이·레닌은 제一차 전로씨야 교외교육대회(校外敎育大會)에서 말하였다。

쓰딸린동지는 레닌의 학설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적을 천재적으로 총화하면서 공산주의의 첫계단을 완성할 때까지는 상업과 화폐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을 론증하였다。

제十七차당대회의 사업보고에서 쓰딸린동지는 쏘베트상업을 경시하거나 그것을 제二차적인 사업으로 인정한 그러한 일군들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즉『다음에는 다른 종류의 편견들을 극복하게 되였던 것이다。이것은 마치 쏘베트상업을 이미 지나간 계단이라든가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물품교환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한 화폐는 단순한 회계상의 표권(票券)으로 변하여졌으므로 그는 급속히 폐지될 것이라고…………말하는 우리의 일부 일군들 사이에 떠도는 좌경적 공담(左傾的空談)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맑쓰주의와는 천양지간(天壤之間)의 차이가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공산주의의 첫계단 즉 사회주의적 발전계단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도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리해하지 못함이 분명하다』(레닌주의의 제문제 제三권 조선로동당출판사판 一九三—一九四페지)

쏘베트의 화폐는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며 계획적인 경제관리의 기본적 방법인 독립채산을 강화시키며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

시키며 : 쏘베트상업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된다는 것을 쏘딸린동지는 가르치였다。

사회주의의 경제적 법칙과 자본주의의 경제적 법칙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쏘련의 화폐가 그의 본질과 기능에 있어서 상품자본주의적 경제의 화폐와 원칙적으로 다름을 규정한다。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화폐는 일반적 등가물(等價物)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로동 및 생산수단의 자연발생적인 배치(配置)와 자연발생적인 생산 및 상품의 교류를 표현하며 자본에 의한 로동의 착취관계를 표현한다。『교역(交易)과 상품생산발전의 최고 산물로 되어 있는 화폐는 개인로동의 사회적 성격을 애매케 하며 은폐하는 것이며 또한 시장에 의하여 통일된 각 생산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애매케 하며 은폐하는 것이다』(레닌전집 二一권 四四페지 제四판)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는 화폐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인 생산 및 상품교류가 실현되며 상품가격의 계획적인·수립이 실현되는 것이다。쏘베트화폐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사회제도와 사회주의적 경제체계가 가지는 경제적 범주(範疇)를 표시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 화폐는 자본주의의 재흥자들 즉 뜨로쯔끼적 반역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칭적 회계규준(公稱的 會計規準)이라든가 계산의 기술적 도구인 것이 아니다。쏘베트의 화폐는 사회주의경제의 가장 중요한 공간(槓杆)의 하나이다。쏘베트의 화폐는 견고한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쏘베트화폐의 물질적 토대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와 또한 경제공황 및 화폐공황(貨幣恐慌)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계획적인 생산에 근거하는 것이다。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화폐는 상품생산에 투하된 사회적 필요로동의 결정물(結晶物)인 가치의 표현인 것이다。쏘베트화폐의 물질적 토대가 가지는 우월성은 이 화폐가 상품생산에 투하된 사회적 로동을 직접 표현하며 또한 사회적 상품생산의 비용을 계획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데 있다。그러나 자본주의의 조건 하에서는 화폐가 생산자의 배후에서 그리고 상품가격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동에 의하여 이 계산을 실현하는 것이다。쏘베트화폐의 안정(安定)에 대한 기본적 보장은 상품에 의한 보장인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오직 쏘련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보장은 자본주의국가들의 어떠한 금예비(金豫備)보다도 더 결정적인 화폐안정의 보장으로 된다고 쏘딸린동지는 가르치는 것이다。

× × ×

쏘베트화폐의 본질과 사명은 이 화폐가 생산 및 사회적 생산품의 분배와·원가 및 생산지출과 가격 또한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의 실행에 대한 계획적인 계산과 통제라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공간의 하나이라는 데 있다。쏘베트화폐의 사회주의적 본질과 사명은 그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의하여 실지화된다。

가치의 척도의 기능을 가지는 화폐를 쏘베트국가는 다음과 같은 것에 리용하고 있다。즉 계획적인 원가와 사회적 생산지출을 측량하며 계산하는 데、또한 계획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데 리용하고 있는 것이다。쏘베트국가는 상품생산을 위한 산 로동 및 물질화된 로동의 사용량、다시말하면 로동임금과 또한 원료 연료 및 기타의 재료에 대한 비용을 계획적인·방법으로서 결정하는 것이다。

쏘련에 있어서 사회적 생산품의 순환은 상품—화폐의 형식으로써 수행된다。사회주의적 기업의 물질적 자금의 순환은 생산계단 상품계단 및 화폐계단의 三계단을 경유한다。생산계단에 있어서 로동의 대상은 이미 소비할 수 있는 로동의 산품으로 변한다。다음 계단 즉 상품계단에 있어서는 이미 완성된 로동의 산품이 류통부면에 들어가게 되며 화폐와 교환된다。다시 말하면 화폐계단에로의 전환을 끝마치게 된다。어떠한 생산품의 일단위(一單位)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로동의 생산성과 생산조직이 각이(各異)하니만큼 각이한 수량의 로동과 물질적 비용을 투하하게 된다。「생산과제(課題)는 원료、연료、미완성품 및 기타의 재고량이 각이한 조건 하에서 기업소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며 상업조직에 있어서의 회전은 상품의 회전률이 각이한 조건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화폐에 의한 계산형태는 실지적 로동사용량을 계획에 의하여 설정된 사용량에 부합되게끔 결정하며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준다。

가치의 척도의 기능을 가진 화폐를 통하여 원료 재료 및 연료등의 계획적인 소비표준량 준수에 대한 계산과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가치의 척도라는 기능을 가진 화폐는 생산품의 원가 계획수행에 대한 계산과 통제를 위하여 리용된다。생산품원가의 계통적인 저하는 기업소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기본적 원천으로 되어 있다。생산품원가도 들어가는 것은 다음과 같다。즉 필요로동의 임금지불(사회보험료를 포함한)、생산수단의 소모란(설비의 소각、원료、재료、연료、전력 및 기타)、기업소의 조직 및 관리비와 관련된 지출인 것이다。경제절약의 철저한 실시、설비의 가장 합리적인 리용、생산에 있어서의 손실과 불량품의 퇴치、원료 재료 및 연료의 경제적인 소비、생산의 우수한 조직、로동생산성의 제고는 생산품의 원가

를 저하시키는 원천으로 되는 것이다。一九四九년에 있어서 공업생산품의 원가는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반드시 六%이상 저하되어야 한다。사회주의적 경제체계의 우월성은 이 과업을 단지 완수할 뿐만 아니라 초과완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위한 사회주의적 축적에 필요한 지출과 류통부면에서 발생되는 지출과 철도 및 기타 형태의 수송기관에 대한 지출과 또한 전사회주의적 생산의 관리와 관련된 지출은 생산품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치의 척도라는 기능을 가진 화폐는 생산의 사회적 지출을 계산하며 통제하는 도구로 되며 또한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계획적인 로동의 사용량에 부합되게끔 생동적 로동 및 물질적 로동을 사용케 할데 대한 계산과 통제의 도구로 되는 것이다。생산품원가 및 사회적 생산비의 저하는 쏘베트경제 발전의 법칙이다。

가치의 척도라는 기능을 가진 화폐는(기타의 기능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독립채산(獨立採算)의 도구로서, 또한 매개의 기업소의 생산계획과 인민경제계획 전체의 수행을 통제하는 도구로서 쏘베트국가에 의하여 리용되고 있다。이러한 기능을 가진 쏘베트화폐는 또한 꼴호즈의 생산조직, 꼴호즈원들의 로동보수, 생산비를 감소시킬데 대한 자극, 꼴호즈생산품의 현금화(現金化)에 있어서 거대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쏘련에서는 화폐의 도움을 받아 또한 국정가격의 기초 위에서 상품이 교역된다。상품의 가격은 그의 가치에 대한 화폐적 표현(貨幣的 表現)이다。상품의 가치는 로동임금의 형태를 취하는 필요로동과 과거에 소비된 로동 및 상품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에 구현된 로동과 또한 리윤 및 교역세, 동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잉여상품을 창조하는 잉여로동으로서 구성된다。쏘련에서 전체 사회적 생산품의 가치는 그 생산에 대한 사회적 지출로서 결정된다。그렇기 때문에 전체 상품의 가격 총액은 전체 사회적 생산품의 가치에 대한 화폐적 표현인 것이다。

쏘베트국가는 생산의 사회적 지출로부터 출발하여 또한 그들의 앞에 나서고 있는 제임무에 비추어 각 상품의 가격을 그들의 가치보다 높게 또는 낮게 설정할 수 있다。가격 정책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기본적인 경제적 공간의 하나이다。가격을 통하여 특히 교역세를 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각 산업부문 사이에 잉여상품의 분배가 실현된다。즉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쏘베트국가의 경제력 및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적 후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적 및 일상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민수입의 분배 및 재분배가 실현된다。

국가상업 및 협동조합상업을 통하여 현금화되는 상품의 가격은 우리국가에 의하여 계획적인 방법으로서 수립된다。꼴호즈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조직적인 시장(국가상업 및 협동조합상업)이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며 비조직적인 시장(꼴호즈시장)은 종속적인 역활을 한다。두가지의 시장과 두가지의 가격이 실지로 존재함으로써 그들사이에 투쟁을 발생시키며 또한 꼴호즈시장의 가격에 대한 국가상업 및 협동조합상업의 경제적 작용이 강화되기를 요구한다。

류통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지는 쏘베트화폐는 사회적 생산품의 교류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사회주의국가의 강력한 경제적 공간으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 상품교역은 쏘베트상업 다시 말하면, 자본가와 투기업자들이 없는 상업의 형태로서 실시된다。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은 옳게 조직된 상품류통과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쏘련에 있어서 상품의 현금화 과정은 화폐의 형태로서 진행되며 그리고 화폐는 상품류통수단으로서 나타난다。쏘베트국가는 확고히 설정된 국가가격과 또는 국가가격의 조절적(調節的)인 작용하에 있는 꼴호즈시장가격의 토대 위에서 상품의 계획적인 류통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폐를 리용한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류통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진 화폐가 상품간의 중개물(仲介物)이라는 역활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리고 상품이 화폐로, 변하며 화폐가 상품으로 변하는 상품의 류통과정이 자연발생적으로 또한 맹목적으로 실현된다。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하에서 화폐는 매매행동(賣買行動)이 과단될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그의 이러한 기능에 있어서 공황의 가능성과 불가피성을 표시한다。자본주의 하에서 상품의 자연발생적인 생산과 류통은 화폐의 자연발생적인 류통의 조건으로 된다。

류통수단이라는 기능에 있어서 쏘베트화폐는 원칙적으로 이와 다른 사명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사회주의적인 상품교역형태는 사회적 생산품의 계획적인 분배의 도움이 된다。쏘련에서 상품의 류통은 상품이 화폐로 변하며 화폐가 상품으로 변하는 것을 위하여 또는 리윤추궁(利潤追窮)을 위하여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쏘베트의 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은 계획에 의하여 이미 예정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쏘련의 국가상업에 있어서는 상품자본주의적 경제의 특성으로 되어 있는 자연발생적인 가격변동과 또는 투기적인 가격인상의 가능성이 제거된다。

류통계단에 들어가면서 상품은 또다시 상품으로

되며 생산수단으로 되며 소비수단으로 되기 위하여 화폐로 변한다. 류통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지는 화폐는 쏘베트통맹에 있어서 사회적 생산품의 계획적인 순환의 도움이 된다. 류통수단의 회전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쏘베트동맹에서 전개된 투쟁은 류통부면을 포함한 모든 계단에 있어서 사회적 생산품의 회전이 단축되기를 요구한다. 사회주의적 기업소들의 류통수단의 순환은 생산된 생산품의 현금화(단지 기업소로부터 방출(放出)하는 것으로서 종결되지 않는다)로써 종결된다. 옳게 조직된 상품류통은 생산의 용적을 증장시키며 생산속도를 촉진시키며 류통비를 축소시키며 사회주의적 축적을 장성시키는 자극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 상품의 현금화는 공정가격에 의하여 그들의 가치에 대하여 화폐를 치불할 것을 예상한다. 이것은 사회화된 경제의 제 지업소간의 상품류통에 대하여나 또는 개인적 수요를 예정한 상품류통에 대하여나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경제기관 사이에 있어서는 상품에 대한 청산이 현금지불이 없이 상품의 수량, 품별, 질 및 가격이 계획에 의하여 예정된 공급조건들에 부합되는가를 구매자와 은행에서 검열하는 것으로써 수행된다. 경제기관 사이에 있어서 계획적인 계약규률이 리행되는가 하는데 대한 통제는 화폐에 의한 계산의 방법으로서 실현된다.

근로자인 수요자들은 상품에 대하여 현금을 지불함으로써 상품류통망(商品流通網)의 원활화에 대한 루블의 작용을 표시한다. 소매적인 상품류통에 있어서 국가 가격에 의한 상품의 현금화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의 실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로동자 사무원 및 꼴호즈농민들은 상품획득과 사회적 봉사에 대하여 화폐로서 받은 로동임금과 화폐로 되는 수입을 소비함으로써 류통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진 화폐를 리용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화폐로 하여금 그들이 사회에 대하여 가여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생산품의 할당량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류통의 기능을 가진 화폐는 생산 및 류통과 쏘베트상업발전에 대하여 작용을 주는 도구로서 쏘베트국가에 의하여 리용되고 있다. 상업과 화폐의 소멸을 부르짖은 「좌경적」 치인(痴人)들의 소부르죠아적 공담을 폭로하면서 쓰딸린동지는 제十七차당대회에서 화폐가 쏘베트상업발전에 대하여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였다. 즉 「화폐는 부르죠아적 경제의 도구인 것을 쏘베트정권이 그것을 자기의 수중에 잡아쥐고서 쏘베트적 상업을 전반적으로 전개시키며 그리 함으로써 직접적인 물품교환을 위한

조건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회주의의 리익에 순응시키었다」(『레닌주의의 제문제』 제三권 로동당출판사판 一九九페지)

계획적인 사회주의경제의 제 조건은 금융의 계획수립과 조정의(가능성을 준다. 인민의 화폐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조절하며 회계 계획을 수립한 토대 위에서 쏘베트국가는 상품과 화폐의 교합(交合)을 계획하며 국립은행의 회계에 의한 균형있는 현금수납과 방출을 실현하며 현금 축적을 실현한다. 쏘베트국가는 상품류통 및 재정 지출과 기타 현금의 수입지출관계의 정확성을 검열하기 위하여 회계 계획을 사용한다.

이와같이 류통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진 화폐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실현하며 쏘베트상업을 전개하며 가격정책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구로 되어 있다.

지불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지는 쏘베트화폐는 임금을 지불하며 금융 및 재정관계를 실현하며 또한 인민경제에 있어서의 각종 지불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리용되고 있다.

대차(貸借)관계에 대한 역활에 있어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직접적인 은행대부, 국가대부, 은행 및 저축기관들의 예금정책, 상품 및 봉사에 대한 환처지불의 부면에서 효력을 가진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세금부담을 리행하며,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며, 사회적 봉사에 대하여 지불하며, 또한 인민경제 문화 및 통상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부면에 있어서 효력을 가진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쏘련의 재정 및 금융제도와 직접적인 련결을 가지는 것이며 이 기능은 예산과 금융을 통하여 인민수입의 분배 및 재분배를 실현하며 또한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물질적 및 재정적 자원의 분배 및 재분배를 실현한다.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의 과정에 있어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대수선에 대한 자금융통과 자본투하 및 사회주의적 경제의 류통수단 증가에 대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리용되고 있다.

쏘베트의 은행들은 생산 및 상품류통에 대한 대부와 자금 융통을 실현하며 또한 자본투하를 위한 대부 및 자금 융통을 실현하면서 경제계산 및 절약제도를 강화하며 생산, 건설, 상업 및 재정계획의 수행과정을 루블에 의하여 통제하며 사회주의적 축적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폐를 리용한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리용된다. 경제기관들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국립은행에 대한 자기들의 구좌(口座)로부터 현금을 받는다. 쏘베트국가는 생산계획의 수행 정형

에 부합되게끔 임금을 지불하는가 하는데 대한 통제를 국립은행에 부과한다。그리함으로써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로동의 조직을 개선하며 그의 생산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리용된다。

지불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진 화폐는 세금부담을 지불하며 의연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리용된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국채(國債)와 저금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인민경제상의 의의와 정치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지불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진 화폐는 환치제청산을 도입하는 도구로 되어있다。 쏘련의 사회화된 경제에 있어서는 은행의 구좌내에 화폐자금을 보관해 두며 또한 은행을 통하여 청산하는 것이 화폐청산의 기본적 원칙으로 되어 있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즉『금융사업의 합리적인 조직과 화폐예비금에 대한 올바른 조절은 인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의 방침은 두 방향으로 즉 단기 대차의 모든 사업을 국립은행에 집중시키는 방향과 또한 사회화된 부면에 있어서 환치제 청산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환치제 청산을 리용함으로써 류통면에 있어서 다대한 량의 현금을 해방시켜 주며, 청산을 촉진시키며, 류통비를 축소시키게 된다。이점에 있어서 국립은행은 지불 및 회계규률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불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진 화폐를 리용한다。

지불수단이라는 기능 및 기타의 기능을 가진 화폐가 쏘베트국가발전의 첫 계단에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제한하며, 제거하며, 숙청하기 위하여 쏘베트국가에 의하여 리용되었다。쏘베트은행들은 대부해 주는 방법으로서 생산부면과 시장에서 개인자본과 투쟁하는 국가기관 및 협동조합기관의 지반을 강화시키었으며 그리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요소들의 승리를 보장하였다。쏘베트금융제도는 각종 형태의 판매 공급 및 생산의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또한 집단적 생산을 조직하기 위하여 농촌의 빈농가 및 중농가에 대하여 금융상 원조를 주면서 소농가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목적에 화폐의 지불기능을 리용하였다。

쏘베트국가는 꼴호즈들의, 조직적인 경제강화를 위하여 금융제도를 통하여 지불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진 화폐를 리용하고 있다。꼴호즈생산의 장성은 꼴호즈들의 계통적인 화폐수입증가와 부합된다。이와 련쇄하여 로동임금을 화폐로서 지불하는 의의가 향상되며 또한 꼴호즈경리를 일층 발전시키며 꼴호즈원들의 생활을 풍부케 하는 자업에 있어서 화폐의 역할이 장성된다。

쏘베트화폐는 지불수단이라는 기능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화폐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자본주의하에서는 지불수단이라는 기능에 있어서 융통자금과 화폐가 의제자본(擬制資本)의 형성과 류통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며 그 결과에 신용화폐(信用貨幣)가 실제자본의 운동과 유리된 독립적인 운동을 수행하게 된다。그러나 쏘베트화폐는 직접적인 은행융통의 분야에 있어서 생산과정과 상품류통에서 불질적인 자금의 실제적인 운동을 표시하는 것이다。

자본수의 하에서는 지불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진 금융과 화폐가 자본수의적 생산의 모순과 무정부성을 첨예화시키며 경제적 위기를 심각히 하며 착취를 강화시키며 실업자를 증가시키며 근로대중을 빈궁화한다。쏘련에서는 지불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진 금융과 화폐가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적인 발전의 도구로서 리용되며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된다。

쏘련의 금융제도는 국가적 기관인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 현금 없이 또는 현금을 가지고 되는 화폐류통의 조직이 실현된다。생산에 대한 자금융통 및 상품류통의 토대 위에서 또한 경제기관 사이의 화폐상 청산과 인민경제 및 예산에 대한 회계적 역할의 토대 위에서 류통되고 있는 화폐량은 경제적 순환의 계획적인 요구에 부합되게끔 조절된다。

사회주의적 축적 및 근로자들의 저축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쏘베트국가의 수중에서 되는 기업소 및 기관들의 화폐축적과 근로자들의 저축으로서 실현된다。

화폐축적은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과 그 기본적 및 류통적인 경제기금의 증가에로 향하여지는 물질적 자금의 축적을 표시한다。 사회주의적 기업소들의 화폐축적은 로동생산률의 제고, 원가저하 및 내부적 자원동원(內部的 資源動員)의 결과이다。장기 및 단기 구좌로서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사회주의 기업소와 기관들의 화폐자금은 상품과 봉사에 대한 간단(間斷)없는 지불을 보장하기 위한 지불수단 예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기업소들의 수익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화폐저축은 그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장성을 표시한다。이 저축들은 공채와 저축은행을 통하여 쏘베트국가의 관할 하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하여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에 대한 자금융통과 문화지출 및 국방지출을 위하여 리용되는 것이다。공채를 구입함으로써 국가에 표시하는 근로자들의 원조는 채권소지자들이 리득금과 리자를 통하여 받게 되는 물질적 리득과 결부된다。

쏘련에서의 근로자들의 저축의 성격은 자본주의국가들에서의 근로자들의 저축의 성격과 판이하다。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업과 질병들을 두려워 하면서 「불행시」에 대처(對處)하기 위하여 극히 필요한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돈을 저축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쏘련의 근로자들은 실업을 아지 못하는 것이다。쏘베트국가는 전체 공민들에게 로동、무료치료、유급휴가 및 로년(老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 준다。그렇기 때문에 쏘련에서의 근로자들의 저축은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수요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제국파의 경제적 및 통상적 관계에 있어서 쏘련은 금을 세계화폐로서 리용한다。쏘베트동맹은 외국무역을 국가에서 독점하며 또한 본위화폐정책 수행에 대하여 쏘련국립은행이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 토대 위에서 금을 세계화폐로서 리용하는 것이다。그리하여 자본주의국가들과 달라 쏘련에서는 국제적 청산에 대한 균형적인 조정과 또한 본위화폐의 수입 지출에 대한 계획적인 결합의 토대 위에서 금이 세계화폐로서 리용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에 있어서 쏘베트본위화폐의 안정을 보장하는 토대는 자본주의국가들의 본위화폐의 안정을 보장하는 토대와 원칙적으로 판이하다。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 화폐류통의 기본은 금이다。자본주의국가들에서 지폐의 가치는 우선 금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자본주의국가들에서 화폐의 구매력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는 시장가격의 통락에 의하여 결정된다。쏘베트화폐의 구매력과 그의 류통되는 수량은 생산 및 국정가격에 의한 상품류통에 대한 계획적인 조정의 토대 위에서 사회주의국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쏘베트화폐의 안정은 상품에 의한 보장이라는 견고한 물질적 토대 위에 근거하고 있다。쏘베트국가는 거대한 그리고 더욱더 증가되는 상품량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는 국가상업 및 협동조합 상업의 조직에 의하여 안정된 가격의 토대 위에서 이 상품들을 류통면에 내놓는 것이다。쏘베트동맹에서 상업과 화폐류통에 대한 조정은 사회주의적 경제제도의 무한한 지배와 또한 계획생산 및 상품류통의 끊임없는 장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쏘딸린동지는 「一九三三년에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및 중앙통제위원회의 一월총회의 보고에서 쏘베트 본위화폐의 안정을 보장하여 주는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즉 「만일 국가의 상품류통에 있어서 다만 종속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비조직적 시장을 고려에

부지 않고 결정적 의의를 가진 조직적인 시장을 고려에 두다면 쏘베트의 본위화폐의 안정은 무엇으로서 보장되는가? 물론、다만 금의 저장만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다。쏘베트 본위화폐의 안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정가격에 의하여 상품류통면에 출현되는 대량의 상품이 국가의 손에 있다는 것으로써 보장되어 있다。다만 쏘련에만 있는 이와같은 보장은 어떠한 금의 보장보다도 본위화폐의 안정을 일층더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임을 경제학자 중 누구가 감히 부인할 수 있겠는가!」(「레닌추의의 제문제」 제三권 로동당출판사판 五七폐지)

규정된 국가가격에 의하여 상품류통면에 상품이 더많이 나오게 되면 될수록 쏘베트루블은 더욱더 안정된다。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본위화폐의 안정에 대한 이와 같은 보장이 있을 수 없마。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근로자들이 부단히 령락되며 대중의 구매력이 생산의 장성에 비하여 더욱더 저락되며 따라서 생산을 공황속에 끌어넣는 것이다。자본주의국가들에서 경제공황은 화폐공황과 본위화폐의 파탄을 동반하는 것이며 그들은 이로부터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쏘련에는、경제공황이 없으며 또한 있을 수 없다。사회주의생산의 부단한 장성은 「로동계급의 물질적 형편의 개선을 초래하며 국내시장의 「용량(容量)、을 점점 장성시키며 공업생산품에 대한 로동자 농민의 수요를 점점 증가시키는 것이다」(이·쏘딸린 「레닌주의의 제문제」 三七九폐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쏘베트경제에서만 있을 수 있으며 자본주의에는 있을 수 없는、상품에 의한 본위화폐의 보장은 가장 견고하며 실질적인 보장인 것이다。

쏘딸린동지의 지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즉 어떠한 상품수량이든지 죄다 본위화폐의 안정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국정가격에 의하여 상품류통면에 나타나는 상품수량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상품류통망에 있어서의 상품체류(商品滯留)는 단지 쏘베트상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쏘베트루블의 안정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상품류통망이 규정된 국가 가격을 준수하는 것은 수요자에 대한 계속적인 상품이동과 마찬가지로 쏘베트상업을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키며 루블을 공고히 하는 필요조건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사명을 가진 상품의 절대다수는 규정된 국가 가격에 의한 국가상업과 협동조합상업을 통하여 현금화된다。이와 동시에 직료품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의 일부분은 꼴호즈시장을 통하여 충족된다。이와 관련하여 쏘베트

본위화폐의 안정은 어느 정도 끌호즈시장의 시가에 의존하며 끌호즈시장의 가격에 대한 국가 가격의 조정적 작용의 정도에 의존한다。끌호즈시장의 가격에 대한 조정은 국가상업 및 협동조합상업에 있어서의 상품류통의 장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끌호즈시장에서의 가격저하는 끌호즈들의 시장적 상업이 어떻게 조직되며 시장에서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데 또한 의존한다。

쓰딸린동지의 지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즉 금의 저축도 또한 역시 쏘베트본위화폐의 안정을 많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금의 저축은 쏘베트루블의 안정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우리 쏘베트본위화폐는 자본주의적 본위화폐에 의하여 조금도 좌우되지 않는다。즉 쏘베트본위화폐는 외국취인소들에서 다른 나라 본위화폐들과 교환되지 않으며 그와 꼭마찬가지로 외국본위화폐도 쏘련내에서 자유로 류통되지 않는다。외국의 본위화폐와 쏘베트루블이 교환되는 것은 오직 국립은행을 통하여 또한 쏘베트국가에 의하여 규정된 방침에 의하여서만이 실시된다。

금의 저축은 사회주의건설의 속도를 제고시키며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강화시키며 쏘련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리용되는 가장 중요한 후비력의 하나이다。쏘베트국가의 수중에서 금의 저축은 자본주의국가들과 상업하기 위한 세계화폐의 후비기금으로 되어 있다。

레닌은 금의 예비를 축적하며 또한 외국상업의 기구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리익을 위하여 금을 가장 효과있게 리용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쓰딸린동지는 국가의 공업화와 또한 쏘베트본위화폐의 안정을 확고히 하는데 있어서 본위화폐의 후비금이 가지는 의의를 주차 강조하였다。본위화폐의 후비금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원천은 금의 채굴이며 쏘련의 상업상 수지(商業上 收支)의 흑자(黑字)인 것이다。

맑쓰—레닌주의는 세계화폐인 금을 단지 전반적 지불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으로서 리용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맑쓰는 다음과 같이 썼다。즉 「세계화폐가 한국가의 류통분야로부터 다른 국가의 류통분야로 왕래하게 되는 특별한 이동 이외에 그들은 전반적인 이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의 출발점으로 되는 것은 금 생산의 원천이며 그리로부터 금 및 은의 조류가 세계시장의 각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여기에서 금과 은은 세계적 류통의 상품으로서 나타나고 있다…」(「정치경제학 비판에 대하여」 국가정치출판부 一九三九년 一〇三폐지)、

쏘련은 가장 큰 채금국(採金國)의 하나이다。쏘련에서 금은 수지균형(收支均衡)을 조정하기 위하여 리용될 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으로서 다시 말하면 대외무역에 있어서와 공통적인 구매수단으로서 리용되고 있다。이와 같이 금의 저축은 계획적인 가격에 의하여 상품류통면에 방출되는 상품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외무역에 있어서 금을 리용함으로써 쏘베트루블의 안정에 효과를 주고 있다。

× × ×

쏘베트화폐의 본질과 기능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쏘베트의 부분적인 경제학자들이 과오와 의곡을 범하고 있다는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一九四七년말에 즈·아뜨라쓰교수의 지도하에서 집필진(執筆陣)이 편찬한 「쏘련의 화폐류통과 금융」이라는 책이 국가재정출판부에서 발간되었다。이 책의 十九폐지에서는 「쏘베트화폐와 자본주의적 화폐의 근본적인 모순은 그들 사이에 어떠한 계승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자본주의적 화폐와 쏘베트화폐 사이에 어떠한 계승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과거에 아뜨라쓰교수는 소위 쏘련화폐의 「변형」과 「소멸」에 관한 리론을 옹호하였다。아뜨라쓰동지는 一九三〇년에 출판된 「화폐와 금융」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즉 「…우리의 경제제도는 자본주의적인 것도 아니며 사회주의적인 것도 아니다。또 우리의 화폐는 결정할 화폐도 아니며 사회주의적 지불명령서도 아니다」(「화폐와 금융」二〇二폐지)、아뜨라쓰교수는 「누구가 누구를?」이라는 문제가 이미 사회주의에 유리하게끔 기본적으로 되었으며 또한 종국적으로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게끔 해결된 그 시기에 있어서 쏘베트경제와 화폐에 대한 이와 같은 의곡된 평가를 내리었던 것이다。그리고 一九四七년에 출판된 저서에서 아뜨라쓰는 쏘베트화폐가 쏘베트국가발전의 제二계단에 있어서만이 사회주의의 리익에 부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주지하는 바와 같이 쏘베트화폐는 쏘베트국가발전의 제一계단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의 리익에 부합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말한 책의 一七六폐지에서 아뜨라쓰교수는 一九二二년—一九二四년의 화폐개혁에 대하여 그것이 「루블의 평가절하(平價切下)」라는 옳지 못한 평가를 내리었다。자본주의국가들에서 실시되는 화폐개혁의 방법인 평가절하는 본위화폐의 금보유량(金保有量)을 축소시키며、그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며、로동임금의 실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러나 一九二二년—一九二四년에 쏘련에서는 화폐개혁이 로동자 및 사무원의 실질적 임금수준의 인상과 농민들의 근로수입의 인상

을 보장하여 주는 고정된 본위화폐를 설정하는 토대 위에서 실시된 것이다。자본주의국가들의 화폐개혁 방법을 쏘련의 화폐개혁에 기계적으로 전용(轉用)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오유이다。

아뜨라쓰교수는 지불수단으로서의 쏘베트화폐의 기능이 가지는 의의를 옳지 못하게 궤변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는「쏘련의 화폐류통과 금융」이라는 저서의 三八폐지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즉「지불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진 화폐는 상품류통 과정을 매개(媒介)하는 것이 아니다。그는 류통수단과 달라 독자적인 운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아뜨라쓰동지는 이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자본주의경제 하에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가 가지는 작용을 쏘베트경제의 제조건에 기계적으로 전용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조건 하에서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실지에 있어서 상품류통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며 독자적인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왜냐하면 자본주의조건 하에서는 화폐가 실재적 자본(實在的 資本)의 운동과 유리된 의제자본(擬制資本)의 운동을 표시하기 때문이다。사회주의적 경제제도의 조건 하에서는 지불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진 화폐가 생산 및 상품류통에 대한 자금융통의 역할을 하게 되며 물질적 가치의 실제적 운동을 표시하는 것이다。지불수단이라는 기능을 가진 쏘베트화폐가 상품류통의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매개(媒介)를 하고있다는 것을 리해하기 위하여는 국가상업기관 및 협동조합상업기관의 상품재고가 八○%까지나 국립은행의 금융으로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충분할 것이다。

상기한 저서 중에서 즈·아뜨라쓰동지와 엔·그르뜨끄동지가 서술한「쏘련의 대외무역에 대한 국제적 청산과 자금융통」이라는 장(章)에는 쏘베트루블의 본위화폐평가(本位貨幣平價)에 대한 규정상 커다란 오유가 있다는 것을 또한 역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책의 四○三폐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미국의 딸라는 금과 가장 견고하게 련결된 본위화폐이다。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딸라는 현재에 있어서 쏘베트루블의 본위화폐평가 안정에 대한 가장 편리한 토대••(방점은 브·이꼰니끄브의 것)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현저하며 심각한 불경기의 과정이 있으며、상품가격이 극도로 등귀하여지며、딸라의 구매력이 저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뜨라쓰교수는 딸라가「금과 가장 견고하게 련결된」본위화폐이라고 확인하는 것이다。또 미국의 딸라가 마치 쏘베트루블의 본위화폐평가 안정에 대한「토대」로 되어 있는 듯이 말하는 아뜨라쓰동지의 신념도 역시 커다란 오유이다。쏘베트루블의 본위화폐평가의 토대로 되어 있는 것은 세계자본주의적 화폐시장으로부터의 쏘련의 경제상、및 본위화폐상의 독립인 것이다。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는 자본주의적 본위화폐의 국제위체(國際爲替)시세와 달라 쏘베트국가는 쏘베트루블에 대한 외국본위화폐의 견고한 시세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아뜨라쓰교수는 딸라가 쏘베트루블의 본위화폐평가에 대한 토대이라고 확신함으로써 쏘베트루블의 본위화폐평가의 실제적 토대를 의곡하며 미국딸라의 안정을 과대평가하며 그들 앞에 굴복하고 있다。

엔·그로뜨끄동지는 쏘베트화폐의 본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독자들을 미로에 빠지게 하며 방향을 알지 못하게 하는 론문을 썼으며 그것이 一九四八년에「쏘베트 재정」이라는 잡지의 제一호에 게재되었다。왜하면 상기한 잡지의 十九폐지에서 그로뜨끄동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즉「쏘련에서는 一九二五년부터 화폐류통의 건전한 원칙이—즉 예산의 무결손성과 또한 지폐발행과 주로 상품류통과의 관계가 실현되었다」는 것이다。그로뜨끄동지의 이러한 신념은 옳지 못한 것이다。화폐류통의 건전한 원칙은 一九二五년 이전에도 쏘베트국가의 경제정책의 토대로 되어 있었다。一九二四년 一월 제十三차 당콤페렌치야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는 것이다。즉「작년도에 있어서、우리의 경제정책의 가본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특히 중요한 성과는 견고한 본위화폐—체르보네쯔—를 도입하며 그로하여금 국가의 기본적 본위화폐로 되게 하는 것이었다。(국내에서 류통되고 있는 화폐의 총액이 三억五천만이었는데 그중에서 체르보네쯔가 이미 二억七천만、다시 말하면 약 五분의四를 차지하고 있었다)」。또 상기한 잡지의 十七폐지에서 오직「쏘베트국가발전의 제二계단에 있어서만이 승리한 사회주의국가의 화폐가 사회주의적 경제의 유기적인 요소로서의 그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로뜨끄동지의 신념도 역시 전혀 옳지 않다。그로뜨끄동지의 말과 같다면 쏘베트국가발전의 첫계단에 있어서는—국가를 공업화하며 레닌—쏘딸린적 협동조합계획을 실현하는 시기에 있어서는—즉 자본주의적 요소와의 투쟁에 있어서는—쏘베트화폐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유기적인 요소로 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잡지의 十九폐지에서 그로뜨끄동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즉「쏘련에서는 금과 외국본위화폐가 국내의 경제류통면으로부터 구축되었다。왜냐하며는 이러한 것들은 금이 화폐로서 요구되지 않는 쏘베트경제에는 적합치 않기 때문이다。」이러한 공

식은 쏘련에서의 금의 역할이 극히 의곡된 형식인 것이다。쏘베트동맹에서 금과 본위화폐의 저축이 사회주의건설의 속도를 촉진시키는데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쏘베트동맹의 금이 외국무역에 있어서의 세계적 화폐로서 리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 × ×

쏘베트화폐의 우월성은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명백히 나타났다。쏘베트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화폐제도는 군사경제를 조직하며 또한 적에 대한 승리를 위한 물질적 및 재정적 자금을 동원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공간으로 되었었다。쏘베트화폐제도는 전후 쓰딸린적 五개년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一九四六년과 一九四七년에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큰 성과를 얻었으며 공업생산의 전쟁전 수준과 립곡작물의 전쟁전 수확량이 달성되었으며 또한 국가상업과 협동조합상업이 발전된 결과에 당과 쏘베트정부는 一九四七년말에 화폐개혁을 실시하며 배급제도를 철폐할 수 있게끔 되었다。화폐개혁은 화폐류통분야에 있어서의 제二차세계대전의 영향을 청산하였으며 쏘베트루블의 실가를 회복시키었으며 또한 배급표가 없이 유일한 국가가격에 의하여 실시되는 발전된 쏘베트상업에로의 이행을 용이케 하였다。

화폐개혁은 근로자들의 물질적 복리를 향상시키며, 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며, 쏘베트국가의 위력을 일층 강화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국가적 대책이었다。국가상업에 있어서 상품의 가격이 대단히 인하되었고 또한 이에 따라 협동조합상업에 있어서 가격이 인하된 결과에 루블의 구매력은 二배나 제고되었다。이러한 토대가 있으며 또한 화폐로 되는 로동임금이 장성한 결과에 一九四八년에 있어서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실질적 임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二배이상이나 장성되었다。꼴호즈농민들의 실질적인 화폐수입도 대단히 증가되었다。

一九四九년 二월 二十八일부 쏘련내각 및 쏘련공산당(볼쉐위크)중앙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실시된 새로운 가격인하는 루블의 구매력을 또한번 대단히 향상시키었으며 외국본위화폐의 시세에 비하여 루블의 시세를 개선하였으며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실질적 로동임금과 꼴호즈농민들의 실질적인 화폐수입을 더욱더 향상시키었다。

一九四七년의 성과적인 화폐개혁 실시는 쏘베트사회제도 및 국가제도의 위대한 우월성과 사회주의적 경제 및 쏘베트화폐제도의 우월성을 또한번 명백히 시위하였다。레닌—쓰딸린당의 영명한 지도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쏘베트인민의 영웅적 로

동은 화폐개혁 실시의 가능성을 보장하여 주었다。

화폐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쏘베트루블의 구매력의 더 한층의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가장 엄격한 절약제도를 준수하며 한까페끄라도 절약하며 로동의 생산률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생산품의 원가를 저하시키며, 생산과 류통의 비용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다。

쏘련에서는 근로자들의 복리가 계통적으로, 장성되며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부단히 인하되며 쏘베트루블의 구매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제한 없는 인푸레숀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품가격 및 써비스 가격이 계통적으로 인상되며 실질적 로동임금이 저하되며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다。자본주의국가들에서 진행되는 인푸레숀은 그들의 화폐제도의 혼란을 더욱 심하게 한다。자본주의세계의 집권자들은 인푸레숀을 리용하여 새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군사비의 증가를 실현하고 있다。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대부르죠아지에게 유리하게끔 인민수입을 재분배하기 위하여 인푸레숀이 리용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인푸레숀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계급과 농민의 물질적 형편을 악화시키며 그 반면에 독점자본가들의 리윤의 막대한 장성을 가져오는 것이다。례하면 一九四七년에 미국의 독점자본가들의 리윤은 一九三九년에 비하여 四배반이나 증가되었다。一九四八년에 이 리윤은 일층 장성되었다。영국독점자본의 리윤도 대규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쏘련에서는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수준이 부단히 장성되고 있다。루블의 구매력을 향상시키며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려고 하는 철저한 정책 속에는 인민의 복리향상을 생각하는 볼쉐위크당과 특히 쓰딸린동지의 고려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우리의 인민은 이러한 쓰딸린적 고려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경쟁의 전개와 제조소, 공장, 꼴호즈 및 쏩호즈에서의 헌신적 로동으로써 이에 대답하고 있다。쏘련의 근로자들은 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며 초과완수하기 위하여, 또한 사회주의적 축적의 장성을 위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쏘베트사회의 전진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쏘베트본위화폐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본위화폐이다。왜냐하면 그는 쏘베트사회제도 및 국가제도의 위대한 우월성과 사회주의경제의 공황없는 발전과 계획생산 및 상품류통의 부단한 장성과 근로대중의 복리의 계통적인 향상의 토대 위에 립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볼쉐위크」지 一九四九년 제八호)

「전동맹공산당(볼쉐위크) 력사」 연구자료 (二十四)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쏘베트동맹의 위력과 력량의 원천

박 정 호

一、위대한 조국전쟁의 시초

一九四一년 六월 二十二일 이른 아침 히틀러 독일군대는 빨찌크해로부터 흑해에 이르는 전면에 걸쳐 배신적으로 불의에 쏘베트동맹 국경을 침범하였다.

히틀러는 쏘베트동맹에 대한 침공을 장기간 준비하고 있었다. 이미 구라파 제국가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전세계를 제패하려는 야욕을 실현하는 도정(道程)에서 위대한 사회주의국가 쏘베트동맹의 엄연한 존재는 히틀러 도배들에게 중대한 장애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 참모부는 독일과 쏘베트동맹과의 불침범 조약을 위반하여 一九四〇년 여름에 벌써 쏘베트동맹을 침공하기——될 수 있는 대로 돌연히——위하여 비밀리에 작전 계획을 작성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만반의 준비를 갖춘 히틀러 군대는 불의 공격의 령도권을 리용하여 전투의 첫十일에 리트바 라트비야의 다부분, 백로씨야의 서부, 서부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점령하고 물만스크, 울사, 모길레브, 쓰모렌스크, 꺼예브, 오데싸, 쎄와쓰도뽈리를 불의에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쏘베트동맹에는 심각한 위기가 닥쳐 왔다. 그리하여 쏘베트동맹에는 평화적 건설기가 끝나고 독일 파시스트 강도들을 반대하는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독일군에 대하여서는 유리한 조건하에, 쏘베트군대에 대하여서는 불리한 조건하에 시작되었으며, 전쟁 시초에 쏘베트군대는 퇴각하게 되어 많은 도시와 지역을 일시적으로 독일군대에 내놓게 되었다.

전쟁 초기에 쏘베트군대가 일시적으로 퇴각하게 된 것은 첫째로 독일이 쏘베트동맹을 침공하기 전에 벌써 二개년간이나 서구라파에서 침략전쟁을 하여온 사실과 관련되는 것이다. 독일군대는 이미 완전히 동원상태에 있었으며 쏘베트동맹 국경에 접근하여 있었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평화를 사랑하는 쏘베트군대는 완전히 평화적 건설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때에야 비로소 동원하여 국경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둘째로 독일에 있어서는 벌써 전체 산업이 군수품 생산으로 개편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점령한 서구라파의 산업을 전부 자기 관활하에 점유하고 독일 파시스트군대를 위하여 병기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히틀러군대는 전쟁초기에 있어서 쏘베트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차와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독일은 또한 루마니야, 판란드, 이태리, 벅이의와 동맹하여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팟쇼적 서반아, 뽈가리야, 일본이 독일을 원조하였음에 반하여 쏘베트군대는 단독적으로 이 파시스트 국가군의 동맹군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실이다.

넷째로 독일군은 쏘베트동맹을 불의에 공격하여 전쟁 초기에 독일은 전투행위의 령도권을 자기 수중에 잡을 수 있었다.

다섯째로 히틀러군대는 또한 서구라파에서의 전쟁二개년간에 현대적 신 기술을 적용하면서 대규모 작전의 경험을 쌓고 있었으나 쏘베트군대는 아직 이러한 경험을 얻지 못하였다.

여섯째로 독일 파시스트군대는 구라파 제국가의 군대에 대하여 련승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일시적 돌연적 인소(因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쏘베트인민들은 독일군에게 여러 차방을 강점당하고 쏘베트군대가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때에도 실망은 커녕 도리어 볼쉐위크당과 정부 및 쓰딸린동지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되어 전선에로

나아갔다。

전쟁이 시작되어 十一일이 지난 一九四一년 七월 三일 쓰딸린대원수는 쏘련인민과 붉은 륙해군 명사들을 향하여 경고하였던 것이다。이 력사적 연설에서 쓰딸린대원수는 진행되어 가는 사변에 심오한 분석을 주었으며 또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에서의 군대와 인민의 임무를 확정하였다。

쓰딸린대원수는 자기의 연설에서 먼저 『력사는 막는당의 군대가 없으며 또 기왕에도 없었던 것을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나폴레온 및 윌헬름 군대가 분쇄되었던 바와 같이 히틀러 팟쇼군대도 분쇄될 수 있으며 또는 래두(來頭)에 분쇄」되리라고 예언하면서 불패의 독일 파시스트 군대에 관한 신화를 폭로하였다。계속하여 쓰딸린 대원수는 히틀러 독일과 쏘베트정부가 불침범조약을 체결하였던 것에 대하여「불침범 조약이란 량국간의 평화조약이다。이런 조약을 독일이 一九三九년에 우리에게 제의하였던 것이다。쏘베트정부가 이 제의를 거부할 수 있었던가? 나는 어떤 평화애호국가든지 설령 린국에, 가령 히틀러 및 리펜트로프와 같은 원흉과 인육기호자(人肉嗜好者)가 령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린국에 평화협약을 거절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이는 물론 평화협약이 평화애호국의 전일(全一) 독립 및 영예를 직접 혹은 간접 훼손하지 않는 이상, 일정한 필수 조건에서 당연한 것이다。모두 아는 바와 같이 독·쏘 불침범조약은 이러한 조약이다」(이·쓰딸린「쏘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十四페지──이하 동서를 인용할 때 다만 페지만 기록하겠음──필자)라고 쏘베트동맹의 평화 애호 정책에 대하여 분석해며하였다。

쏘베트동맹은 독일 팟쇼군대의 배신적 불의의 공격으로 전쟁 시초에 많은 손실을 당하였으나 그와 반면에 이 독·쏘 불가침조약에 의하여 얻은 점은 많은 것이다。그것은 첫째로 쏘베트동맹은 一년 반 동안 평화를 보장하였으며 또는 팟쇼독일의 침공에 대치할 자기의 력량을 보장할 수 있은 것이다。둘째로 독일이 조약을 위반하고 쏘베트동맹을 불의에 침공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독일이 받게 된 그것이다。즉 전 세계인민들로 부터, 지어 독일의 선진적 인물들까지도 독일의 배신적 행동을 비난하였으며 쏘베트동맹에 동정을 표명하게 되었다。

쓰딸린대원수는 쏘베트동맹에 중대한 위기가 림박하였음을 말하면서 태연성(泰然性), 무관심 및 투쟁에서의 공포심이 없어야 하며, 상심자(喪心者), 락망자 및 도피자(逃避者)가 없어야 할 것을 경고하였다。

쓰딸린 대원수는 모든 일을 작전상 리해와 적국 전멸 조직임무에 종속시키면서 하루바삐 모든 사업을 개조하여야 할 것이다……쏘련인민들은 반드시 원쑤를 반대하여 자기의 권리, 자기의 강토를 옹호함에 궐기하여야 된다고 호소하면서 창발력, 리해력을 발휘하여 한뼘의 국토라도 고수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싸우라고 호소하였다。

총후의 근로자들에게 쓰딸린 대원수는 각 방면으로 쏘베트군대를 원조하도록 조직하고 그 대렬에 유력한 증원병을 보장하며 더욱 많은 무기와 군수품을 생산할 것을 호소하였다。

쏘베트군대가 부득이하여 퇴각하는 경우에는 한대의 객차, 한키로그람의 빵, 한리틀의 연료, 기타 무엇이나 값있는 것을 조금도 적에게 기쳐주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쓰딸린 대원수는 독일군의 배후에 빨치잔전을 전개하며 점령된 구역에는 적군과 그의 주구들에게 참지못할 조건을 지어주며 도처에서 추격 진멸하며 그들의 모든 방책을 파탄시키라고 호소하였다。

쓰딸린 대원수는 「이 전쟁은 비단 두 군대간의 전쟁만이 아니다。그는 동시에 독일 팟쇼 군대를 대항하는 전 쏘련인민의 위대한 전쟁이다。팟쇼압박자들을 대치한 이 전 인민적 조국애호전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떠돌고 있는 위험만을 소멸할 것이 아니요, 독일파시즘 기반하에서 신음하는 구라파 전체 인민들을 원조하는 것이다。이 해방전에서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十九페지)라고 갈파하였다。

쓰딸린대원수는「우리의 힘은 무궁무진하다。거만을 부리는 대적이 미구에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수천명의 로동자, 꼴호즈원, 인테리겐챠가 붉은 군대와 함께 우리를 침공하는 대적과의 전쟁에 궐기하고 있다。수백만명의 우리 민중이 일어날 터이다」라고 쏘베트동맹의 승리를 확신있게 예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말씀은 쏘베트군대와 전체 인민의 가슴 가운데 쏘베트동맹의 승리에 대한 신념을, 주입하였다。쏘베트 인민은 쓰딸린 대원수가 가르친 길을 나아가면서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자기의 국가를 노예화로부터 구하였으며, 독일 압박에서 구라파 인민들을 해방시켰다。

二、적과의 전투에 있어서 쏘베트 인민의 력량의 발전

—인민의 일체 력량을 적의 박멸에 돌리라!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라고 한 쓰딸린의 구호에 호응하여 쏘베트동맹의 전체 인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튼튼하게 볼쉐위크당과 쏘베트정부의 주위에 단결 규합되어 조국 방위에 궐기하였다。

첫째로 독일군대와 제一선에서 싸우는 모든 병과(兵科)의 쏘베트 전사들은 류례없는 견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독일군대의 강습(强襲)을 막고 유력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三十일간이나 계속된 쓰모렌스크 방위 격투에서 쏘베트군대는 희생적인 동시에 적에 대하여 파멸적인・방위전의 모범을 보이었다。

오데싸의 방위전에서 쏘베트군대는 불과 四개사단의 보병사단과 얼마 안되는 해군부대, 인민무장대를 가지고 六十九일간의 방위전에서 二十五만명 이상의 적 장병을 살상하고 원수의 수중에서 오데싸를 지켜냈다。

「지구상에서 레닌그라드를 말소」하려고 발광하던 파시스트들의 맹렬한 공격을 격퇴하고 레닌그라드 방위자들은 용감하게 레닌그라드를 영원불멸의 영예로써 수비하였다。

둘째로 후방의 쏘배트인민들은 전선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헌신적 정신으로 싸웠다。

전선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급속하고 결정적으로 전 인민경제를 개조하였고 볼쉐위크당의 조직체, 국가조직체, 사회조직체가 전시 규범(規範)으로 공작하였다。 전선과 후방이 통일적 전투태세로 변하였다。

단기간에 전체 공업이 국방 생산물을 생산함에 넘어갔다。 독일 침략군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서부의 여러 구역에서 수천개의 공장 기계가 후방에로 철거되었고 그곳에서 신속히 공작을 계속하였다。

우랄과 서백리아 구역에서 국방상 의의가 있는 새 공장들의 건축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유력한 신설 공장지대는 서부와 남부 지구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전선에서 일어나는 요구를 전부 성공적으로 만족시키게 되였다。 이 동부 지역의 공업의 번영은 또한 국내의・서부와 남부로부터 공장을 이전하는 데 관한 과업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였다。

전 쏘베트국가는 쓰딸린 대원수의 호소에 대하여 로동생산능력의 급속한 장성으로 대답하였다。 대소 공장에서, 집단농장에서, 도처에서, 이전보다 二배 三배의 생산능률로써 로동하였다。

셋째로 독일인이 강탈한 소베트 령토 내의 쏘베트인민들은 빨치잔투쟁을 전개하였다。 로씨야 인민은 빨치잔투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쏘베트 빨치잔부대들은 견고성과 총명성을 가지고 철도를 파괴하고 적을 박멸하였다。 이동하는 파시스트 예비군에게 철퇴를 내리고 적의 명령의

집중을 파탄시켰다。 빨치잔들은 독일 략탈자들을 탄환과 포탄과 지뢰로써 살상하였다。 빨치잔 운동은 근본적으로 독일의 배후를 교란하여 독일군중에서 자기의 상태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볼쉐위크당과 쏘베트인민의 위대한 수령 쓰딸린 동지의 령도밑에 전선에서, 후방에서, 적의 후방에서의 이와같은 견결한 투쟁은 히틀러도배의 계산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막았다。

파시스트 략탈자들은 소위 「전격전」에 의하여 二개월 반 동안에 쏘베트동맹을 「타멸」할 것이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이 「전격전」은 우월한 쏘베트 사회제도와 쏘베트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탄되었다。

히틀러 도배의 오산(誤算)의 원인은

첫째로 그들은 쏘베트동맹을 반대하는 모든 국가의 동맹을 만들며 영국과 미국을 이 동맹에 인입하여 쏘베트동맹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쏘베트군대는 一대一의 전투에 있어서 자기에게 견디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산이었다。 세계인민들은 벌써 서구라파를 정복한 파시스트 독일이 자기를 지배하고 노예화하려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까닭에 오랜동안 침략계획을 폭로하였고 또 완강하게 세계를 위하여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쏘베트동맹에 대한 독일의 침공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의 분개를 일으켰다。 인민들은 반 파쑈전쟁에 쏘베트동맹을 원조하여 궐기하였다。

영국정부는 독군이 쏘베트에 침공하는 날 벌써 쏘베트동맹을 원조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수일후 미국정부도 쏘베트정부에 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성명하였다。 一九四一년 十二월에 미국은 독일과의 전쟁에 나섰다。 이리하여 쏘베트동맹을 고립시키려던 히틀러의 기도는 실패하였다。

둘째로 그들은 쏘베트기구가 견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최초의 쏘배트군대의 실패후 로농동맹은 무너질 것이며 쏘베트 각 민족간에 쟁투가 시작되고 폭동이 일어남에 사분오렬(四分五裂)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오산이었다。 전쟁은 쏘베트로동자와 농민의 련결을 약화시키기는 고사하고 더욱 그것을 강화하였다。 사회주의조국 위에 걸린 위기에 직면하여, 쏘베트 군대의 일시적 실패에 직면하여, 로동자와 농민은 자기의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더욱 튼튼히 뭉치였다。

쏘베트동맹 각 민족간의 분렬에 대한 히틀러도배의 기대도 근거없는 것이며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쏘베트인민의 단결과 친선은 짜리의 타도,

외국, 무장간섭자의 격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굳어진 것이다. 쏘베트동맹 각 민족들은 사회주의 쏘베트제도 하에서 자기 공화국의 번영을 획득하였으며 행복한 문화생활의 도정에 들어섰다.

이러한 까닭에, 위기에 직면하여서 쏘베트동맹의 모든 인민은 더욱 튼튼히 뭉치었다. 전쏘베트인민의 자제들은 어깨를 나란히하여 전선에서 싸웠다. 모든 각 공화국으로 부터 전선에 대한 무기, 의복, 식량의 증원대가 나왔다. 히틀러의 쏘베트기구의 불견고성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셋째로 그들은 쏘베트군대의 력량을 과소 평가하였으며 자기군대의 력량을 과대 평가하였다.

물론 쏘베트륙해군은 아직 전쟁의 경험이 적으며 아직 완전한 기간적 군대가 되지 못하였다. 그 반면에 독일군대는 벌써 두햇동안의 전쟁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쏘베트군대는 우선 정신상태가 독일군대의 정신상태보다 고상하였다. 쏘베트군대는 외국 강점자로부터 자기 조국을 옹호하며 나아가서 팟쇼 기반 하의 약소민족을 해방시키는 자기 사업의 정당성을 믿고 있는 반면에 독일침략군대는 그 추악한 략탈 행위의 정당성을 한분동안도 믿을 가능성이 없었다. 다음으로 독일군대는 자기후방과 멸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쏘베트 빨치산들의 투쟁에 의하여 공급이 와해되게 됨에 따라 후방을 겁내게 된 반면에 쏘베트군대는 후방의 부단적, 인민적, 물적 방조의 안전한 공급을 받으며 또한 자기 후방을 튼튼히 믿었다.

그러므로 쏘베트군대는 히틀러의 상상보다 강하며 독일군대는 독일 강점배들의 과장적 광고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약하였다.

쏘베트군대는 한치의 땅이라도 굳게 지키며 반격으로 전환하고 독일군대에게 거대한 손실을 주면서 전투를 계속하였다.

쏘베트군대의 완강한 저항의 결과에 전쟁의 처음 四개월간에 독일은 四五○만 이상의 사상자와 포로를 내었다.

三、전투에 있어서 쏘베트 군대의 승리

ㄱ、모쓰크바 근방에서의 독일군대의 파멸

전쟁 초기의 몇달 동안에 쏘베트군대를 격파하지 못한 히틀러는 쏘베트동맹에 대한 새 공격을 위하여 독일과 그의 동맹국은 자기의 전력을 경주하기를 결정하였다. 이 공격은 一九四一년 十월 二일에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중요한 기본과업은 모쓰크바

를 방위하는 쏘베트군대를 포위하는 것과 쏘베트동맹의 수도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모쓰크바에 대하여 히틀러는 근 三十五개 사단의 병력을 배치하였다.

위기의 정세에 처하여 있을 때 볼쉐위크당의 호소에 궐기한 모쓰크바 시민들은 아주 급속한 시간 내에 수도를 견고한 방위태세로 장비하였다. 十월 十九일 국방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모쓰크바는 계엄상태에 있다는 것이 발표되었다. 모쓰크바의 근로자들은 방위 의용군에 소집되었으며 적의 선동자, 스파이, 기타 주구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에 동원되었다. 모쓰크바 방위군의 저항은 대단히 강하였다. 그러나 히틀러 도배들은 모쓰크바를 점령할 것을 확신하고 十一월 七일에는 붉은 광장에서 독일군대의 관병식이 거행되리라고 세계에 광포하였다.

이날 모쓰크바에는 과연 관병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히틀러군대의 관병식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혁명 二十四주년을 기념하는 쏘베트군대의 전투적 관병식이었다. 쏘딸린 대원수는 이날 보고에서 지나간 四개월간의 전쟁 총결을 지으면서 독일 파시스트 군대의 전멸은 피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동찰하였다. 히틀러 략탈도배의 피치 못할 멸망의 동인으로 쏘딸린대원수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一) 제국주의적 독일이 구라파 후방이 튼튼치 못한 것이며 구라파에서의 「새 질서」가 튼튼치 못한 것이다.

(二) 히틀러 강점배의 독일 후방이 튼튼치 못한 그것이다.

(三) 독일 팟쇼 제국주의자들을 대처한 쏘련, 영국 및 미국의 련합이다. (三六—四○페지를 참조할것)

十월공세에서 실패한 독일군은 동기 전으로 성과를 얻기 위하여 모쓰크바를 점령하는 한가지 과업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十一월 十六일 부터 시작한 신 공세에 대하여 독일군은 二주일 간 준비하고 五十一개사단 (그 중에는 十三개의 전차부대, 五개의 기계화부대까지 포함되어 있다)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一九四一년 十一월경에 사태는 기본적으로 변동되었다. 첫째로 파시스트들은 자기의 중요 기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연장된 독일의 수송로는 점점 손상되어 갔다. 이것은 쏘베트 빨치잔부대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 사태의 두번째 변동은 쏘베트군대가 반공(反攻)으로 전행하기를 용허하였으며 또 모쓰크바 부근에서 적을 격파하기 시작함을 용허하였다.

一九四一년 十二월 二十五일부 쏘베트 정보국은 그 보도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적은 여하한 손실도 돌보지 않고 계속하여 앞으로 나오고 있다. 적은 모쓰크바를 점령하기 위하여 최후의 힘을 다하고 있다. ……몇 백만의 쏘베트인민과 그의 쏘베트군대는 완전히 적을 파괴함으로써만 전쟁을 종결할 것이다. 이 파괴는 반드시 모쓰크바 부근에서 시작될 것이다.」

전투에서 자라나고 단련된 쏘베트군대는 적의 발광적 습격을 막으며 유력한 반격으로써 적을 곤궁에 빠지게 하였다.

十二월 六일 쓰딸린 대원수의 명령에 의하여 모쓰크바 구역에 집중된 쏘베트군단의 진격이 개시되었다. 독일군은 이 진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이 전투에서 독일군은 막대한 손실을 당하였다. (一九四一년 十一월 十五일 까지의 四○일간에 파시스트들은 전사자만 약 三○만의 병사와 장교를 상실하였다. 쏘베트군대는 수十개의 사단을 무장함에 충분한 량의 무기와 군수품을 획득하였다)

모쓰크바 부근에서의 독일군대의 격멸은 전쟁 제一년에 있어서 결정적인 군사적 사변이며 또 제二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군의 처음되는 대 패전이었다. 이 전패는 전세계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으며 또한 세계의 선진적 인사들은 쏘베트군대에 칭찬을 보내었다. 히틀러 도배의 전패는 그들이 날조한 전설—독일군대는 백전백승의 군대라는 전설이—영원히 분쇄되었다.

쏘베트군대는 적이 전쟁초기에 소유한 일시적 군사상 우월점을 전쟁의 八개월간에 박탈하였으며 이를 쓰딸린 대원수는 다음과 같이 총화하였다.

「현금에는 독일인들이 배신적 또는 돌연적 공격의 결과로 전쟁의 첫 몇개월간에 소유하였던 그 군사상 우세가 어느듯 없어졌다. 독일 팟쇼군대의 후미이었던 돌연성과 불의성의 인소가 완통 소모되었다. 이리하여 독일 팟쇼 침공의 돌연성으로써 조성된 전쟁 조건에서의 그 불평등이 없어졌다. 이제 와서는 전쟁의 운명이 돌연성 인소와 같은 그런 우연한 인소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항상 작용하는 동인(動因), 즉 총후의 견고, 군대의 도덕상 기개, 사단의 수효와 바탕, 군대의 무장, 군대지휘관 성원의 조직자적 수완으로 결정될 것이다」(五○페지)

결정적 동인으로서 항상 작용하는 전쟁동인의 의의에 대한 쓰딸린 동지의 명제는 전쟁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과학의 앞으로의 창조적 발전이었다.

쓰딸린 대원수는 지휘관과 군인의 군사기술을 체

득함에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一九四二년 五월 一일부 명령서 제一三○호에 쓰딸린 대원수는 쏘베트군대가 적을 격파하고 그를 쏘베트 나라에서 추방함에 모든것을 소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오직 원쑤를 대치하여 우리 조국이 제공하는 일등 기술을 전적으로 사용할 기능 하나만이 부족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붉은 군대의 임무——그의 전사, 그의 기관총수, 그의 포병, 그의 박격포수, 그의 전차병, 그의 비행사와 기병의 임무는 군사과학을 배우고 꾸준히 배우며 무기를 정통하며 무예의 선수가 되어 원쑤를 백발백중함에 있다. 다만 이렇게 만이 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六十五페지) 그리하여 그 뒤에 전 전쟁기간을 통하여 쓰딸린 대원수의 지시에 의하여 쏘베트군대는 꾸준히 군사학을 체득하고 적을 격파하는 기교를 배웠다.

ㄴ、一九四二년 하기의 방위전

一九四二년 쏘베트동맹은 여전히 독일 및 그의 동맹국과 一대 一의 전쟁을 계속하였다. 그것은 구라파에 제二전선이 전개되지 않은 까닭이다.

이때 미국 「아쏘시에이테드·프레쓰」 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이·쓰딸린은 제二전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주었다. 「쏘베트동맹이 독일 팟쇼 군대의 주력을 자기에게 끌어붙임으로 동맹국에 방조되는 거기에 비교할진대 동맹국이, 쏘베트동맹에 베푸는 방조가 아직은 효력이 적다. 이 방조를 확대하고 개선케 함에는 오직 동맹국들이 그들의 약속을 완전히 제때에 실행하는 그 하나만 요구된다」(六八—六九페지를 참조할것)

그러나 처칠을 수상으로 하는 영국정부는 급속한 시일내에 서부에 작전을 전개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二전선의 전개를 급해 하지 않았다. 처칠은 많은 영국 자본가들과 같이 히틀러 독일이 전세계를——(물론 영국도 포함하여서) 정복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영국정부는 독일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쏘베트동맹에 대하여 원조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영국 부르죠아지는 독일에 대한 쏘베트동맹의 급속한 승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자본가들은 제二전선의 개시가 독일의 파멸을 촉진하며 또 쏘베트동맹이 급속한 승리 후에 견고하여지며, 강력하여짐을 무서워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쏘베트동맹이 전쟁 말기에 이르러 약화되며 곤궁하여지는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제二전선의 전개를 지연시킨 것이다.

一九四二년 여름에 구라파에 제二전선이 없는 것을 기화(奇貨)로 하여 독일인들은 전체 그의

후비군을 쏘·독전선에 이동시킴으로써 서남 방면에 다수의 군인을 집중하였다。

一九四二년 五월 초에 독일군은 케르첸 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쏘베트군대에 대하여 공격하였다。 숫자적으로 우세한 힘의 압력에 의하여 쏘베트군대는 케르첸 반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七월 초부터 독일군대는 쏘·독전선의 서남방(크림방면)에 자기군대를 집중하였다。 이 기간 히틀러는 쏘베트군대에 대치하여 一七九개사단 이외에 다시 六十一개 예속국 사단을 투입하였다。 쏘베트군대를 반대하여 二四〇개사단—一九一四—一九一八년의 전쟁에 로씨야를 반대하여 작전한 병력의 거의 二배의 병력이 작전하였다。

一九四一년 추기의 공격 목적도 그러하였으나 파시스트들의 새로운 공격 목적은 모쓰크바를 점령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공격의 주요 목적인 모쓰크바를 동부로 포위하기 위하여 볼가、우랄 배후를 중단하여 모쓰크바를 공격하자는 데 있었다。 남쪽 유전지대(바꾸 그로즈니)에 대한 독일군의 이동은 유전지대의 점령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대한 쏘베트군대의 중요한 예비군을 제외하여 모쓰크바 전선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군의 계획은 파탄되었다。 독일군은 쓰딸린그라드 부근에 멈추어 있게 되었다。

ㄷ、위대한 조국전쟁의 과정에 있어서의 근본적 전환

一九四三년은 조국전쟁의 전환적 년도였다。 력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쓰딸린그라드를 위한 전투가 개시되었다。 쏘베트군대는、쓰딸린의 이름을 가진 유명한 도시를 영웅적으로 방어하였다。

쓰딸린그라드에 대하여 히틀러는 처음에는 十七사단、八—九월에 이르러서는 三十六사단(독일사단 二十一、기타는 이태리 및 루마니야 사단이였다)을 배치하였다。 파시스트들은 여기에 二、〇〇〇대 이상의 비행기 一、五〇〇문 이상의 대포를 집중하였다。 쓰딸린그라드에 대한 적의 공격은 격심하였으나 쏘베트군대의 저항은 날로 강대하여졌으며 쓰딸린그라드의 수비에 정규군과 함께 시민이 총궐기하였으며 전선으로 인민군이 나왔다。 쓰딸린그라드를 수비하면서도 도시의 사업은 계속되었으며 간단없는 九월의 공습 하에서도 뜨락또르공장 로동자들은 역시 二〇〇대의 전차、一五〇대의 전용(戰用) 뜨락또르 및 많은 예비 부분품을 생산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이 전투의 결과가 一九四二년 전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쓰딸린그라드의 영웅적 수비는 적을 아주 괴롭게 하였으며 적의 최후의 파멸이 가까웠음을 예기시

켰다。「머지않아 붉은 군대의 새로운 진격의 힘을 알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러하여 우리 시가에는 축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쓰딸린 대원수는 말씀하였다。

두달 동안의 진격전의 결과에 쏘베트군대는 넓은 전선에서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면서 쓰딸린그라드 부근에서 히틀러군을 박멸하였으며 다른 한편 레닌그라드의 봉쇄를 돌파하였다。이 위대한 전투에서 용맹한 쏘베트군인、장교 및 정치일군들은 영원히 빛날 영예로써 쏘베트군대의 전투력을 발휘하였으며 또는 독일팟쇼군대를 승리함에 대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는 또한 쏘베트군대와 의용병의 영웅적 기개만 아니라 총후에서의 쏘베트 애국주의자들의 헌신적 로동、최고사령관이며 당과 정부의 지도자인 쓰딸린 대원수의 영명한 천재적 지도만이 히틀러도당의 침범을 타승케 하였다。

쓰딸린그라드작전은 쓰딸린대원수의 계획과 지도하에、진행된 전술의 최고 표본이였다。 전사(戰史)에 있어서나 전술상에 있어서도 쓰딸린그라드 부근에 있어서와 같이 이렇게 대량의 적을 포위섬멸한 것은 처음이였다(전투에서 三十만대군을 포위한 결과 적군 전부를 격파하였으며 거의 三분지一을 포로하게 되었다)。

쓰딸린그라드에서 승리한후 전쟁 행정의 선도권은 완전히 쏘베트군대 편에 귀속되었다。 쓰딸린그라드에서의 격투는 위대한 조국전쟁의 전과정에 있어서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독일파시스트군의 파멸을 예고하였다。 쓰딸린그라드 부근에서 쏘베트국가의 령토를 독일강점자로부터 해방하기 시작하였으며 쏘베트나라에서 적을 대중적으로 구축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파시스트에 의하여 노예화된 전 구라파 인민이 해방될 서광이 비치게 되었다。

쓰딸린 대원수의 평가에 의하여 「쓰딸린그라드는 독일팟쇼군대의 몰락의 지초이였다。 공인하는 바와 같이 쓰딸린그라드 격전 후에 독일군대는 다시는 추어 설 수가 없이 되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은 쏘·독전선에서의 력량의 호상관계가 변경된 데로부터 설명되는 것이다。

위대한 조국전쟁의 행정에서 쏘베트군대는 장성하였으며 전투에서 경험을 얻었으며 강화되었다。 쏘베트군대는 정예군대로 되었다。 이것은 수백만 쏘베트군인이 국가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무기를 능숙하게 조종하는 기술을 습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만명의 지휘관은 개인적 용감성과 전투에 있어서 군대를 지휘하는 기술을 결부시키는 방법을 습득하였다。 그들은 군대를 지휘하는 데 명수가 되었

다。 쏘베트군대는 현대 전쟁 과학이 요구하는 적의 약한 방면과 강한 방면을 타산하여 정확하게 적을 타승하는 전술을 습득한 데 기인되는 것이다(一○三—一○七페지를 참조할것)

쏘베트군대의 군사적 성과는 또한 총후에서 불쉬위크의 지도하에 성취된 쏘베트인민의 노력의 성과에서 얻어진 것이다。 전선에로 점점 더 많은 무기를 공급할 수 있게 전시경제가 조직되었으며 전선에 대한 전 인민적 방조사업이 또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쏘·독전선에서의 사태의 변화는 전략상 커다란 국제적 의의를 가졌다。 독일의 주력을 동쪽으로 유인하였기 때문에 영·미 련합국은 북 아프리카에서 상륙작전을 성공하였으며 리비야、또리뽈리타니야、튜니스 지방에서 독이(獨伊)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다。

독일군은 패배와 커다란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一九四三년 여름에 새 공격을 개시하였다。 쓰딸린 대원수는 제때에 적군의 계획을 깨쳐놓았으니 적군은 두 방면으로—오룔—꾸르스크 구역에서와 벨고로드 작전을 통하여 모쓰크바에 향한 공격을 단행하려는 데 있었다。

전투의 첫날조차 그들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못하였다。 저명한 꾸르스크전투의 결과에 쏘베트군대는 선발된 팟쇼사단을 패망케하고 적군의 전선을 돌파하고 공격에로 전진하였다。

꾸르스크에서의 독일군의 격멸은 추후 전쟁 행정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만약 쓰딸린그라드 근방의 전투가 독일팟쇼군대의 몰락을 예고하였다면 꾸르스크 근방의 전투는 독일 팟쇼군대를 재변(災變)에 직면케 하였던 것이다」(쓰딸린)

一九四三년은 과연 전환의 해였다。 그것은 첫째로 쏘베트군대가 전쟁기간을 통하여 처음 독일군에 대하여 하기공격을 실행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둘째로 파시스트군대가 경험있는 로련한 간부를 여러 전투 행정에서 상실한 까닭이다。(四개월간 하기공격을 통하여 전사자와 포로만 하여도 독일군은 근九○만명을 잃었다)

셋째로 쏘베트군대의 성공적 공격은 근본적으로 파시스트 독일의 경제 군사 정치상태를 약화시켰음으로 그의 전도에 지극히 심각한 위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넷째로 쏘베트동맹의 위력과 쏘베트군대의 전쟁기술과 또 그 지도자는 장성하였다。 쏘베트군대는 풍부한 경험을 얻었으며 또 독일군대보다도 자기 수완을 닦으며 군사기계를 리용하는 데 능숙하고 우월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쏘련의 전시경제가 더 공고히 되었으며 강화된 까닭

에 一九四三년은 전환의 해였다。(一二八—一三四페지 참조할것)

라、 쏘베트군대의 결정적 승리

위대한 조국전쟁의 네번째 해인 一九四四년은 쏘베트군대의 결정적 승리의 해였다。 一九四三년 十一월 七일부 쓰딸린 대원수의 명령서에—강도들을 구축하며 쏘베트 땅에서 독일 야만인들을 청산할 것이라고、 부과한 과업은 리행되었다。 一九四四년 말까지에 十차(一七八—一八二페지 참조할것)에 걸쳐 적을 공격한 결과 쏘베트국토는 강도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一九四四년 六월에 쏘베트국가의 동맹군은 불란서 해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대규모의 상륙작전에 성공하였다。 一九四二년에 벌써 제二전선을 전개하리라는 약속에 위반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연기되고 있던 제二전선은 이제야 결국 실현되었다。 그러나 제二전선을 전개하였을 때에는 쏘베트군대가 독일을 대규모로 전승하였으며 독일로 돌입할 준비가 된 후이었다。 많은 전투를 통하여 쏘베트군대는 백전백승의 기세로 전선을 돌파하였다。 전쟁을 승리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쏘베트인민의 공훈이 위대하였다。 쓰딸린 대원수는 조국전쟁에서의 쏘베트인민의 위대한 공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만약 쏘베트군대가 조국에 대한 자체의 의무를 성과있게 리행할 수 있었으며、 쏘베트령토의 경외에서 독일인들을 구축하였다면 이는 전국이、 우리나라의 전 인민이 후방으로부터 쏘베트군대를 충직하게 부조함에 있는 것이었다。 모든 쏘베트사람들 즉 로동자들、 농민들、 지식인들의 헌신적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러 국가기관 및 당기관의 지도적 활동도「모두 전선을 위하여」라는 기치 하에서 지나간 해에 진행되었다」(一八五—一九○페지 참조할것)

자기 령토내에서 독일군을 완전히 소탕한 쏘베트군대는 一九四五년 一월—二월에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四十일만에 쏘베트군대의 급진적이며 능숙한 활동으로 독일군대를 멀리 서쪽으로 구축하였고 파란을 전적으로 해방시켰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적지 않은 지역을 해방시켰으며 대부분의 동부 푸로씨야와 독일령 실레지야를 점령하였다。 쏘베트군대의 해방적 투쟁에 의하여 구라파에서 독일의 마지막 동맹국인 홍아리가 전쟁에서 탈출하였다。

쏘베트군대의 동기간의 공격전의 성공은 독일군대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방금 겸박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과연 백림에서의 가렬한 전투는 끝나고「백림에

개선기를 세운 것이다」라는 쓰딸린 대원수의 명령을 쏘베트군대는 충직하게 실천하여 五월二일 백림은 점령되었다。五월八일 독일사령부는 무조건항복에 조인하였다。이로써 과시스트독일과의 전쟁은 끝났으며 히틀러군대와 히틀러국가는 멸망하였다。

× × ×

과시스트독일의 패배와 함께 서쪽에 있어서의 세계침략의 근거지는 청산되었으나 원동에 있어서는 아직도 히틀러독일의 중요한 동맹자―제국주의 일본에 의하여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일본은 원동에서 수차에 걸쳐 쏘베트동맹을 침범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또는 이것을 실천화하였으나, 그때 그때 위대한 쏘베트 무력앞에 반격을 받았다。쏘베트정부는 一九四五년 八월 九일 일본과 전쟁상태에 들어간 것을 포고하였다。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자기들의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쏘베트군대는 단시간에 결정적 타격을 일본군에 주었다。첫날부터 일본에서 제일 강하다고 자랑하던 관동군은 완전히 과멸의 유명을 당하였다。그리하여 일본과의 전쟁은 쏘베트동맹의 결정적 역할로써 극동의 상태는 근본적으로 일변하고 일본군대는 무조건 항복하였으니 전세계에는 평화가 도래하였으며 조선인민들도 장구한 동안의 노예적 생활 하에서 해방되었다。

일본을 승리한 날에 쓰딸린 대원수는 기쁜 소식을 라디오를 통하여 쏘련인민에게 전하였다。「우리 쏘베트 인민은 승리를 위하여 힘과 로동을 아끼지 않았다。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다。그러나 인제는 우리 각자가, 우리가 승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본국이 서방에서는 독일이 침범할 위협을 면하였으며 동방에서는 일본이 습격할 위협을 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전세계 인민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평화가 왔다」

四、조국전쟁에서 쏘베트동맹의 승리의 위력과 력량의 원천

쏘베트동맹은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승리하였다。이 승리는 쏘베트 사회제도와 쏘베트 국가제도의 승리이며, 쏘베트무력의 승리이며, 볼쉐위크당의 현명한 정책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또한 쓰딸린 대원수는 적을 격멸하는 데 있어서 쏘베트인민을 고무하였으며 쏘베트인민을 승리에로 령도하였다。위대한 조국전쟁에서 쏘베트국가가 승리한 힘의 원천은 다음과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쏘베트사회제도는 위대한 승리의 힘을 쏘베트국가에, 또 쏘베트인민에게 주었다。「우리 승리는 우선 우리 쏘베트 사회제도가 승리한 것을 표시하며, 이 쏘베트 사회제도가 전쟁의 불속에서 성과있게 시험에 등급한 것을 표시하며, 완전 무결한 자기 생능성(生能性)을 증명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쓰딸린―모쓰크바 쓰딸린선거구 선거자들의 선거전회의에서 진술한 보고―모쓰크바판 一二폐지)라고 쓰딸린은 말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은 로씨야에서 착취제도를 소탕하고 세계에서 새로운 가장 선진적 쏘베트제도를 창설하였다。다만 쏘베트국가에서만 자거의 인민정권을 세운 근로대중은 확실히 영원한 자유를 획득하였고 행복스러운 생활을 하여왔다。

짜리로씨야는 경제적으로 락후한 나라였다。군대는 필요한 무장을 갖지 못하였다。이 상태가 제一차 세계대전에서 로씨야가 패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쏘베트정권은 쏘베트국가를 강국으로 만들었으며 국가의 공업화와 집단화를 달성시켰다。쏘베트정권은 농촌경리발전을 위하여서도 큰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쏘베트정권은 군대와 인민의 부단한 식량공급을 보장하며, 농업원료로써 공업을 보장하며 강력한 집단농촌경리를 공업화의 기초위에 세웠다。

독일과시스트들은 쏘베트국가의 一、九一〇도시、七만이상의 촌락과 농촌、약 四백만 로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三一、三五〇공장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파괴 혹은 소각하였다。二、五〇〇만 쏘베트 인민들은 자기의 주택을 잃었다。

또한 독일군은 一九四二년 여름까지 집단농장의 파종면적을 거의 四〇%를 점령하였다。략탈자들은 十三만 七천대의 뜨락또르와 四만 九천대의 콤바인, 五백만개 이상의 농업기계를 파괴하거나 혹은 독일로 가져갔다。이러한 손실은 다른 자본주의국가의 농촌경리라면 군대와 인민을 식량없이 또 공장을 원료없이 방임하였을 것이다。그러나 선진적인 쏘베트 사회제도만이 이 난관을 극복하였으며 전선에로 무기를 공급하였다。

쏘베트사회제도의 모든 힘은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명백히 나타났다。전쟁초기에 남부와 많은 공업지대――돈바스탄전(炭田)지방、크리보로쥬、우크라이나 대소공장을 상실하고도 쏘베트공업은 독일과시스트 략탈자들이 몽상한 것과 같이는 조금도 속도를 낮추지 않았다。

생기있는 쏘베트적 애국심으로써 활기를 가진 쏘베트근로농민은 식량생산을 초과달성하였다。로동계급은 적을 타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전선에 보내라는 과업을 자기앞에 세우고 이를 영광스럽게 완수하였다。

쏘베트사회의 로동자 농민과 보조를 맞추어 지

식인들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피로를 모르는 창조적 로력으로써 적에 대한 승리를 촉진하였다.

전쟁에서 쏘베트 사회제도가 어떤 다른 나라의 사회제도보다도 썩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였다. 쏘딸린 대원수는 「지금 쏘베트사회제도는 비 쏘베트사회제도보다 더 생활능력이 있으며 또 쏘베트사회제도는 어떤 비 쏘베트사회제도보다 더 훌륭한 사회 조직 형태이라는 것을 떠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였다.

둘째로 쏘베트국가기구가 적에 대한 승리를 쏘베트 인민에게 주었다. 전쟁은 쏘베트국가의 일체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의 승리였다. 전쟁의 경험은 「쏘베트국가의 경제토대가 적국들의 경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생능성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쏘딸린)

적국의 경제가 전쟁 행정에서 몰락하던 그때에 쏘베트국가는 원만한 수량으로 전선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또 후비를 저장할 수 있었다. 전쟁말기 三년간에 쏘베트동맹의 전차공업이 해마다 평균 전차 자동포 및 장갑차 三만대 이상을 건조하였고 항공 공업은 비행기 四만대까지를 건조하였고 대포제조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구경(口經)의 대포 근 十二만문, 경기관총과 중기관총 四十五만문, 장총 三백만병, 자동총 약 二백만병, 박격포공업은 박격포 十만문까 제조하였다. 질적으로 보아서 쏘베트 무기는 독일 무기에 뒤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초월하였다.

쏘베트동맹이 전쟁에서 승리한 힘의 제일 가는 원천중의 하나의 원천은 전쏘베트인민의 친선인 것이다. 쏘베트국가에서 위대하고 확고한 각개 민족의 친선은 레닌-쏘딸린적 민족정책의 튼튼한 기초 위에서 성립되었고 인류력사 상에서 일찌기 보지 못한 민족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해결의 모범인 것이다.

쏘딸린대원수는 「우리의 승리는 쏘베트 국가제도가 승리하였음을 표시하며, 다민족한 우리 쏘베트국가가 전쟁의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자기 생능성이 있음을 표시하였다」(쏘딸린, 선거전 연설 一三페지)라고 하였다. 력사는 다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 대한 경험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무력으로 창설되었고 한번 타격을 받으면 곧 붕괴하였다. 다만 쏘베트에서만 세계에서 처음 전인민의 우호적 평등적으로 나민족 국가를 형성하였다. 쏘베트인민의 견고한 쏘딸린적 우정이 적에 대한 승리를 가져 오는데 깊은 의의가 있었다. 로씨야인민을 필두로 그와 합께 우크라이나인, 백로씨야인, 그루지야인등 모든

련방의 인민들이 영웅적으로 전투하였다. 그중 다수는 이전에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고 전투경험노 없었다. 이것은 짜리정부가 그들의 손에 무기를 주는 것을 무서워 한 까닭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인민의 아들 딸들이 전쟁에서 놀라운 용감성을 발휘하였으며 그 중에서 많은 쏘련영웅 및 전선 지휘장관들이 나왔다. 형제 같이 굳게 뭉친 인민의 머리에는 위대한 로씨야인민이 서 있었다. (一三〇—一三一페지를 참조할것)

이와같이 단결된 인민들의 력량이 전쟁을 승리하는데 힘의 원천으로 된 데 대하여 쏘딸린 대원수는, 十월혁명 二十七주년 기념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여러 인민들의 친목은 전쟁의 모든 난관과 시험을 극복하였으며 또 팟쇼적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전체 쏘베트사람들의 공동적 투쟁중에서 더욱 더 단련되었다.

쏘베트동맹의 위력의 원천이 이에 있다」

셋째로 되는 승리의 원천은 쏘베트무력의 강대성에 있는 것이다. 十월혁명은 인민의 강력한 사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조국방위전에서 군대는 한 없는 용감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十월사회주의 혁명은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고 그것을 로동자와 농민의 착취 무기로부터 그의 해방의 무기로 만들었으며 로동자와 농민의 정권을 보호하며 쏘베트국가 인민의 독립을 보호하는 군대로 만들었다. 「十월혁명의 산아인 사회주의제도는 우리인민에게와 우리군대에 위대한 불가항력의 힘을 주었다」(쏘딸린)

쏘베트군대의 위력은 우수한 무기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인식하고 있는데 있으며 레닌-쏘딸린주의에 충실한 데 있다. 쏘베트군대는 항상 자기의 전쟁목적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투에서 무한한 용감성을 발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쏘딸린 대원수는 전쟁에서 승리한 세번째 원인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 승리는 쏘베트무력의 승리, 우리 쏘베트군대가 승리하였음을 표시하며, 우리 승리는 쏘베트군대가 전쟁의 모든 곤난을 극복하고 적들의 군대를 전멸시키었으며, 전쟁에서 승리자로 나왔음을 표시합니다」(쏘딸린 선거전 연설 一五페지)

쏘베트군대를 승리에로 향하게 함에 있어서는 쏘베트 국가에서의 총후와 전선의 통일이 이를 방조하였다. 쏘베트군대는 총후의 지지가 없이는 전투할 수 없었으며 승리할 수 없었다. 총후는 군대에 군수품과 식량을 공급하였다.

또한 독일 파시스트군의 총후에서의 쏘베트 빨치잔의 희생적 투쟁은 쏘베트군대에 막대한 원조를

주었다。빨치산부대는 전선에서 독일의 힘을 약화시키며 쏘베트군대의 투쟁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작전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쏘베트군대의 승리는 쏘베트전술의 공훈으로 완수되었다。깊은 과학적 토대 위에 세운 쏘딸린적 전술이 승리하였다。다시 말하면 쏘베트군대 최고사령부의、과학적 전술과 이 계획을 실천하는 부대의 융통성있는 전술이 력사적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후방에서의 쏘베트인민들의 로력적 공훈과 전선에서의 쏘베트전사들의 영원무궁한 전투적 공훈은 보다 열렬하고 원기있는 쏘베트애국심에 그 원천이 있는 것이다。쏘베트인민들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은 조국에 대한 심절한 충성과 신임、쏘베트인민의 전민족 로력자들의 형제적 친목에 그 토대가 있으므로 항상 조국의 영예와 독립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이다。

히틀러 독일과의 전쟁에서 쏘베트동맹은 단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쏘베트군대는 역시 적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었다。쏘베트정부의 올바른 대외정책은 쏘베트인민에게 모든 선진적인 인민의 지지를 보장하였다。독일 침략자들에 대한 유고슬라비야、체코슬로바키야、파란、불란서와 다른 구라파 인민의 영웅적 투쟁은 쏘베트인민의 투쟁에 융합하였다。전쟁중 쏘·미·영을 수반으로한 반 히틀러동맹을 조직 강화하였다。

넷째로 독일 략탈자와의 전쟁에서 쏘베트인민의 조직 중심으로서、지도하며 힘을 옳게 주는 레닌—쏘딸린당이 있기 때문에 쏘베트동맹은 승리를 얻었다。

볼쉐위크당의 훌륭한 힘은 전선으로 향하였다。공산주의자들은 쏘베트군대의 제일선에서 싸웠다。당의 모든 힘은 전선을 원조하는 강력한 전시경제 창설에 또는 인민의 로력의 통일에 돌렸다。

쏘딸린대원수는 말하기를「조국전쟁 시기에 당은 팟쇼적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인민적 투쟁의 고취자이며 조직자로서 우리의 앞에 나타났다。당의 조직사업은 모든 우리의 힘과 수단을 적을 박멸하는 사업에 종속시키고 쏘베트사람들의 모든 로동을 한데 뭉치며 또 공통한 목적에 인도하였다。전쟁 기간에 당은 인민과 더욱 더 친근하여졌으며 광범한 근로대중과 더욱 더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우리국가 위력의 원천은 이에 있다」(一三六페지)

다섯째로 볼쉐위크당과 쏘베트국가의 우수한 일군들이 파시즘을 반대하는 쏘베트군대와 전인민의 투쟁에 있어서 조직자로 되었다。즉 몰로또브、깔리닌、워로쉬로브、가가노비취、스다노브、안드레예브、

국제보도

알바니야에 대한 찌또의 식민지 통치자적 계획의 파탄

알바니야 로동당 총비서 엔베르·호쟈

알바니야 인민공화국에서는 처음으로 一九四九—一九五〇년도 인민경제 발전 二개년국가계획이 비준되었다。국내에서는 사회주의기초의 건설과 강화 사업이 의의깊고 가일층 높은 속도로서 전개되고있다。二개년계획은 기본적으로 인민경제의 주요한 四대분야인 공업、광업과 석유업、농업、수송업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자본투하를 예견하고 있다。이 四분야에 대한 자본 투하는 八六·七八%를 차지하다。계획에 의하면 一三·二二%의 자본투하는 지방건설、보건、인민교육 및 기타를 포함한 인민경제의 기타 분야에 활당되고있다。

쏘베트동맹과 형제적인 인민공화국들이 제시하는 원조는 알바니야인민공화국 경제계획의 성과적인 완수의 필수적인 조건으로된다。쏘베트동맹은 알바니야 인민공화국의 청소한 공업을 위한 설비품、례하면 수력발전소를 위한 기계와 고압전선、석유종합공장、동광、크로—므광산들을 위한 기계、철관 및 발동기、뜨락또르、콤바인、공업수송 및 건설을 위한 발동기와 기계、티라나의 방직종합공장과 두개의 목재가공제작소 및 많은 기타공장들을 위한 설비품을 크레짓트로서 공급할 것이다。또 一九五一—一九五二년간에는 년 생산량 十五만톤의 석유정련장치와 화력 발전소를 위한 설비품、六〇키로왓트의 위력을 가진 중파방송국을 위한 설비품들이 공급될것이다。이 외에도 쏘베트동맹은 많은 공업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연구사업을 실시하며 설비품 장치에 있어서 기술적 원조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형제적 인민공화국들은 공업과 수송수단의 자료들을 크레짓트로서 알바니야에 공급할 것이다。즉 파란은 두척의 선박、디제르발동기、야금코—크스、사탕、직물들을、체코슬로바키야는 나수의 화물자동차、소방설비품、각종 기구와 도구、기계、학교 설비품、농기구、초자제품、린제품(燐製品) 및 기타를、헝가리야는 전신전화설비품、알미뉴—므식기、제화용 피혁、생활필수품들을、루—마니야는 휘발유、세멘트、철판、지물(紙物)、어선(漁船)、못、조맥、옥수수、연맥들을、불가리야는 철선、베니야판、소、말、돼지들을 각각 크레짓트로서 판매할 것이다。이 댓가로 알바니야는 그리 많지 않은 량의 공업품과 농산품들을 내게 될 것이다。

알바니야인민의 위대한 벗인 쏘베트동맹의 막대하고도 청렴한 원조가 없

[illegible]꼬얀, 불가닌동 기타 지도자들이다。

쏘베트국가의 령도자이며 위대한 전술가 또 최고사령관인 쓰딸린대원수가 쏘베트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쏘베트동맹은 승리하였다。 쓰딸린대원수의 지도 밑에 쏘베트군대는 모쓰크바 근방에서 독일군을 멸망시켰으며 쓰딸린그라드 격전을 조직하였으며 적을 파멸시켰다。 쓰딸린대원수의 창조적 계획을 실현하면서 쏘베트군대는 자기의 령토를 독일 침략자들로부터 수호하였으며 그들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의 령토 내에서 파멸시켰다。 쏘베트빨치산, 로동자, 농민, 지식인, 모든 쏘베트인민들은 쓰딸린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국을 위하여 투쟁한 결과에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하였다。

위대한 쓰딸린대원수의 영원불멸의 공훈을 높이 평가하면서 몰로또브는 十월혁명 二十八주년 기념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어려운 전쟁 시기에 현명하고 시련된 쏘베트동맹의 수뇌인 위대한 쓰딸린이 쏘베트군대와 쏘베트인민을 향도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인 것이다。 우리군대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쓰딸린대원수의 이름과 함께 우리 나라의 력사에와 세계사에 기입될 것이다」

였더라면, 또 형제적 인민공화국과의 호상원조와 친선이 없었더라면 알바니야는 자기의 정치 및 경제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락후될 뿐만 아니라 파시스트 강점자들과의 투쟁에서 피와 희생으로써 전취한 자유도 위험에 빠졌을 것이다。 문제는 찌또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적 도당이 알바니야를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썼다는 데 있는 것이다。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들의 원조는 제국주의적 앞잡이들의 음모를 격퇴할 가능성을 알바니야에게 주었던 것이다。 인민경제발전 二개년계획의 채택은 오직 알바니야를 반대하는 찌또도당의 적대적인 행동이 폭로되고 무력(無力)하게 된 후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알바니야 인민공화국은 반역자 찌또를 수반으로 하는 유고슬라비야정부 측으로부터 자기 내정의 횡포한 간섭을, 반대하는 첨예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몇년 간이나 벌써 찌또도배는 알바니야를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리용하였다。 찌또는 뭇솔리니가 一九三九년에 알바니야에 대한듯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었다。 대세르비야에 관한 세르비야 부르죠아와 세르비야왕조의 망상을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벨그라도의 민족주의자들은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행동하였다。 찌또의 생각에 의하면 알바니야는 강점자들과의 공동적 투쟁시기에 알바니야인민과 유고슬라비야인민들간에 맺어진 우호관계를 리용하여 유고슬라비야와 합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찌또도당은 독립적이고 주권있는 국가로서의 알바니야를 없애버려려고 집요한 노력을 하였다。

찌또의 전략은 실로 악자와 같은 것이였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공산주의라는 탈을 쓰고 쏘베트동맹과 사회주의 진영의 친우라는 가면밑에 숨어 있었던 까닭이다。

찌또도당은 알바니야를 예속화 시키려는 자기의 시도를 알바니야에게 노예적인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시작하였다。 알바니야는 벨그라드의 지도 밑에서 유고슬라비야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경제적인 압박의 힘으로써 찌또그루빠는 관세장벽의 철폐를 알바니야에게 강요하였으며 그의 모든 광산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찌또의 앞잡이인 자보·엘라디쯔는 최근에 알바니야에 체류하는 동안에 베넬룩쓰 제국가들 사이에서 실재하고있는 그러한 호상관계를 유고슬라비야와 알바니야사이에 설정하자고 까지 제의하였던 것이다。 이전에 알바니야에서는 찌또의 일파인 모제·리야제가 짤다리스와의 비밀교섭시기에 알바니야 분활에 관한 제의에 최종적인 거절을 하였음으로써 알바니야의 주권을 옹호하였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찌또도당은 그 목적을 벌써 달성하려고 지향하고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그리고 찌또나 모제·리야제가 알바니야분활에 관한 짤다리스의 제의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알바니야는 벌써 자기 수중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 까닭이였던 것이다。 그 후에 찌또도당은 자기 군대를 알바니야에 침입시키고 국제적 사건을 선동하고 알바니야보호라는 구실밑에 점령하고 파치·쵸제를 수반으로하는 자기의 앞잡이를 정권에 옹립(擁立)함으로써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제국가를 반대하는 발칸에 있는 군사기지로써 반동의 강력한 지주(支柱)인 에게이해(海)에 이르는 대유고슬라비야창건의 꿈을 실현하려고

시토하였던 것이다。미제국주의는 동남구라파에서의 뭇솔리니의 역할을 참망하는 신판(新版) 파시스트독재자 찌또에게서 적당한 괴뢰를 발견하였던 것이다。찌또는 알바니야정부가 그와의 협조를 기절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도발적인 목적 밑에서 시코드라호(湖)의 배수사업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찌또도당이 추구한 이 도발행동의 기본목적은 몬테네그로를 위한 투쟁에 있는 것이다。평화와 민주주의와 쏘베트인민들과의 형제적 관계와 알바니야인민들과의 진밀한 친선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한 영웅적 몬테네그로인민들은 몬테네그로와 유고슬라비야인민들의 모든 숙망을 말살하는 찌또도당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몬테네그로인민은 이 압박을 견딜 수 없게되었으며 그에게 자유를 가져온 쏘베트인민을 찌또도당이 비방하는 것을 참지 못하게 되였다。몬테네그로인민은 찌또를 증오하고 있으며 그와 투쟁하고 있다。찌또도당은 약소한 이 영웅적인 인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있다。그는 배타적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해독적 수기를 티용함으로써 마치 알바니야사람들이 호수 배수사업을 방해한다고 몬테네그로사람들을 선동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찌또도당은 압박자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본적인 과업으로부터 몬테네그로인민들의 주의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시코드라호 배수계획을 시작한것이며

둘째로는 시코드라호를 몬테네그로청년들의 강제로동수용소로 만들기 위하여 리용하고 있는 것이다。몬테네그로인민은 이 비렬한 음모를 반대하여 궐기하였으며 찌또도배들의 책략에 굴하지 않고 있다。

찌또도배는 유고슬라비야령의 코소바、메또히、마케도니야 제지방의 알바니야사람들을 반대하는 비겁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다。코소바의 알바니야사람들은 자유를 향유치 못하고 있다。몇개 있는 알바니야학교들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정직하고도 로동애호적 알바니야사람들은 정권기관에서 제기당하고 있다。농업개혁은 형식적으로 실시되였으며 현재 농민들에게서도 토지、가축、농산물들이 몰수되고 있다。민족주의적 찌또도당는 코소바의 알바니야사람들을 소멸시킬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이 도당은 코소바의 남성주민들을 바나타와 슬로웨니야의 수용소에로 이주시키려고 알바니야사람들에게 전부의 징모동원을 계획하는 중이다。코소바의 알바니야사람들을 반대하는 이 범죄는 인류를 반대하는 재로운 범죄인 것이다。벨그라드의 악당들은 가니·베그·크리예쥬같은 코소바의 형리와 영국 경찰정보부의 주구를 옹호하여 왔고 또 현재도 옹호하고 있으며 신 알바니야를 반대하는데 리용하기 위하여 또 그와 동시에 코소바의 알바니야사람들을 탄압하고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ㄴ·엘레지、단·갈레시 및 기타와 같은 알바니야의 비적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찌또의 민족주의적 악당들은 코소바에서 세르비야인、알바니야인 및 마케도니야인들 사이의 반목을 선동하고 있다。코소바의 알바니야주민들을 옹호하는 용감한 마케도니야사람들을 찌또도당들은 투옥하며 두서운 고문을 한다。

찌또도당은 알바니야와 유고슬라비야사이의 형제적 관계의 복구를 각방으로 방해한다。그러나 이 친선은 필요하며 또 유익한 것이다。다만 유고슬라비야인민과 쏘련 및 인민민주주의제국가의 인민들사이의 진정한 친선으로써 만이 찌또와 그의 악당들에게 이끌리어 있는 유고슬라비야인민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출해낼수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써만 유고슬라비야인민과 코소바、메또히 및 마케도니야의 알바니야 소수민족들이 자유와 자기들의 합법적인 권리들을 전취할 수 있는 것이다。

찌또도당는 알바니야를 반대하는 광포한 비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짤나티스의 전탁을 답습하는 그는 북부국경에서 두장자건들을 선동하고 알바니야 항공권을 위반하고 알바니야공민의 유고슬라비야통과를 방해하며 허구적이며 두근거한 구실 밑에 입국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약소 지만 영웅적인 알바니야는 이러한 위협과 공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알바니야인민과 알바니야인민공화국은 날로 강화되며 투쟁에서 단련되고 있다。그들은 사회주의 진영대렬에 확고하게 결정적으로 서 였다。

알바니야국가의 경제정책은 그 성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였다。정부에 의하여 새로이 발포된 경제지령은 도시와 농촌의 근로대중들에 의하여 올바르게 리해되었으며 접수되였다。찌또도당의 부르죠아민족주의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알바니야공화국은 국내에 있는 찌또의 앞잡이를 격멸하고 국가의 정치 및 경제발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과업해결에 알바니야인민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다。알바니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것을 리용할것이 절대 필요하다。이런 의미에서 二개년계획에서 공업과 광업을 위하여 가장 많은 자본투하가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근시안의 몇 자람들은 찬란한 장래국가를 내다보지 못한다。그들은 인정하기를 제一급적 의의를 가지는 공업창설에 관한 유익한 시책을 채택하는 대신에 정부는 생활필수품의 수입에 종사하는 것이、다지 말하면 수입만으로써 사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라고 한다。주민들의 저렴한 수요가격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국내부원의 리용을 위하여 자기의 공업을 건설하지 않고 수입에 의거하여서만 산다는것一실로 이것은 몰락과 파산을 의미하는것이다。인민들은 국내에 대량으로 매장된 석유、크로므、동(銅)、닛켈、철판로의 재취를 증가할것을 희망한다。二개년계획은 이 부원을 재취하고 그것을 인민에게 봉사시킬것을 자기 목적으로 하고 있다。쏘베트동맹의 청렴한 원조로서 약소국가와 약소인민의 민족공업의 발전을 촉성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길에서 전진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자주성과 민족적 주권의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와 정반대되는 길은 마샬안화된, 제국가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길이다。약소한 인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제국주의적 장전의 본을 따는 찌또도배들은 마샬안화의 길을 밟고 있다。알바니야의 광범한 근로대중들은 이 二개년계획이 그들의 희망을 표현하는까닭에 이 계획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당과 정부의 지도 밑에서 민주주의전선 주위에 단결한 알바니야인민은 국가의 생활적 필요인 이 계획 완수를 위하여 자기의 총력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찌또도당의 반쏘적 비방

(一九四九년 一월부터 五월까지의 유고슬라비야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보르바』지에 관하여)

드·세브라긴

찌또도당이 수개 공산당으로부터 길연하고 민족주의의 길로 나선, 후로부터 유고슬라비야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보르바』지에는 급격한 전변이 생겼으니 이는 찌또도당의 민족주의적 결에 순응한 전변인 것이다. 즉 변절자 찌또도배는 『보르바』지를 자기의 민족주의적이며 뜨로쯔끼적인 전성통으로 전변시켰으며 또 대외정책 제문제에 있어서는 반쏘적이며 친(親)제국주의적 선전의 전성통으로 전변시켰다. 이미 오래전부터 『보르바』지는 유고슬라비야 공산당내 정형에 관한 수개국 공산당 보도국의 결의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승인한 공산당들을 반대하여 로골적으로 나섰으며, 미국을 선두로한 제국주의진영을 반대하는 출현을 중지하였으며, 또 쏘련을 선두로하는 사회주의진영을 반대하는 허위와 비방을 자기 지면에서 전개하고 있다.

악마와 같은 『보르바』지 편집부는 쏘베트 동맹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공세에 관하여 상기시키며 월―스트리트를 새전쟁방화자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다. 『보르바』지에는 금년 一월 一일부 즉 一五〇호부터 시작하여 四개월동안에 영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론설들이 한편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미영 지배층의 반동정책을 한번도 폭로하지 않았다.

국제평화진영이 북대서양조약을 반대하는 투쟁에 자기의 전력량을 동원하였던 때인 금년 첫 三개월동안에 『보르바』지는 완전한 침묵을 지켰으며 이 조약의 고무자들과 그 조약의 본질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 하지 않았다. 전세계의 모든 신문들이 주해(註解)를 붙여 널리 취급하였던 금년 一월 二十九일부 북대서양조약에 관한 쏘베트동맹외무성 성명을 『보르바』지는 비상히 축소하여 게재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세계 사회여론을 흥분시키고 있는 스미트에게 준 쓰딸린동지의 회전에 대하여 『보르바』지 편집인들은 간단한 주해도 하지 않았다. 북대서양조약에 대한 『보르바』의 오랜 침묵이 사회주의 진영측으로부터 정당한 비난을 야기한 후에라야 비로소 『보르바』지에는 단 하나의 유일한 론문이 나타났다. 이 론문이 게재된 것은 三월 三十일부 신문에였는데 三월三十일은 북대서양조약의 원문이 발표된 때로부터 근 二주일이 경과하였던 때였었다. 그러나 이 론문에서도 북대서양조약은 단지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제국가들 반대하는 불손한 공격을 위한 제

제라고만 표시되였었다. 찌또도당과 그의 신문에게는 강도적 『마샬안』도, 월―스트리트의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서구라파제국가의 식민지적 예속도, 전반적인 자본주의적 착취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르바』의 정치적 사기자들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침묵으로써 반작용하고 있는것이다.

× × ×

지금 세계 각국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평화옹호운동을 지지하는 것을 『보르바』지상에서 찾으려는 것은 무익한 일일 것이다. 미영 전쟁방화자들에게 대할 때 외면적으로는 『호의적 중립』의 립장을 취하는 찌또도당과 그의 기관지 『보르바』지는 이 『중립』으로서 미국을 선두로한 제국주의진영에 대한 자기의 진실한 태도를 은폐하고 있으며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 대한 악랄한 공세로써 제국주의 진영의 개의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야의 근로자들은 다른 국가의 모든 인민들이 그런 것과 같이 평화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찌또도당은 평화를 옹호하는 투사들의 강력한 국제적 코라스에 유고슬라비야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섞이는 것을 억제하였다. 유고슬라비야에서 근로자들의 대회, 곰페렌챠, 군중대회, 집회등이 없을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보르바』지상에는 각종의 대회, 군중집회, 회합들에 관한 보도들이 무수히 게재되고 있다.

이 무수한 대회, 군중집회, 회합의 어느 곳에서도 찌또도당은 영미 지배층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반대하여 나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보르바』지에 발표되었던 무수한 결의와 연설의 어느 하나에도, 또한 제국주의자들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말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을 유고슬라비야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五·一절 표어까지도 전쟁방화자들인 영미 제국주의자들에 관하여 지적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영미 제국주의자들이 바로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제국가를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서 까지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찌또도당은 두서너번 제국주의자들에 관하여서와 전쟁의 위험성에 관하여 두루뭉실한 론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었다. 그런데 이것은 찌또와 그의 도당을 『반제국주의자들』로 인민들에게 보이며 그럼으로써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서였던 것이다.

영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복무하는 뜨로쯔끼적 반쏘적 찌또도당은 전세계 인민들이 북대서양조약을 반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며 파리평화옹호대회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을 그때에 유고슬라비야근로자들의 대중적 사회단체들의 장성을 억눌렀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하여 루마니야 인테리겐챠대회와 볼가리야신문들이 주의를 환기시킨 후 四월에야 비로소 벨그라드에는 소위 『준비위원회』가 갑자기 출현하게 되였으며 조용한 건물의 방안에서 파리평화옹호대회에 보내는 三, 四통의 전보가 급속히 조리(調理)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전보들에도 결코 영미 전쟁방화자들에 대한 하등의 비난이 없었다. 반대로 찌또도당은 루마니야와 불가리야로부터 힘차게 울리어진 찌또도당의 파산한 침묵에 대한 비관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다 (四월 十三일부 『보르바』지)。
四월 十六일에 벨그라드에는 전국을 통하여 유일한 평화옹호군중대회가 있었다。그러나 이곳에서도 모든 연설자들은 미국통치층에 의하여 준비되고、있는 반쏘적 침략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독설(毒舌)을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제국가를 반대하는 데로 지향시켰던 것이며 그럼으로해서 그들은 자기를 제국주의진영과 같은 대렬에 서게 하였으며 또 『세계평화의 견고한 담보와 성벽은 유고슬라비야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찌또이다』라는 폭언으로써 자기의 놀탈만한 저급성을 폭로하였다。

『보르바』지는 『공산당의 기관지』라고 불리어지고 있다。그의 지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기꾼들인 찌또도당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파의 자기의 단결에 관하여 짓거리는 것을 결코 싫어하지는 않는다。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찌또도당들의 흉악한 증오、사실에 있어 파시스트적인 증오를 폭로하며 또 찌또도당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전선의 배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제五렬』의 더러운 역할을 한다는 것을 폭로하는 제사실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운동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반동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신문들까지도 그에 관하여 침묵할 수 없으리만큼 강력한 힘으로 되고 있다。그런데 찌또적이며 뜨로쯔끼적인『보르바』는 달리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인 것이다。『보르바』지는 외국공산당들의 활동을 전연 보도하지 않고 있다。이미 그들에게는 볼쉐위크당도、그의 창조적 사업과 교훈적 경험도、또한 인민민주주의제국가의 공산당도 안중(眼中)에 없는 것이다。

『보르바』지상에서 전동맹 공산당(볼쉐위크)을 선두로한 이 여러 당은 단지 악의에 찬 비방적 론문들의 『보도』、또는『항의 결의』들에서만 역할을 놀고 있는 것이다。

『보르바』지의 사기꾼들에게는 영 미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을 반대하여 매일과 같이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는 불란서와 이태리의 공산당들도 안중에 없는 것이다。四개월동안『보르바』지는 자본주의의 구라파의 이 두개의 대공산당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에 관하여 한개의 론문도、한개의 보도도 발표하지 않았다。반대로 이 신문지면으로부터는 이땅 공산당 지도자와『유마니테』지 및 『유니타』지에 대한 후안무치한 욕설이 계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로동계급의 사업을 배반한 찌또도당은 수개국 공산당 보도국에 가입하지 않은 공산당들의 활동도 자기 인민에게 숨기고 있다。그들은 수개국 공산당 보도국의 결의들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찌또도당의 배반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공산당들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있는 것이다。

이 四개월동안에 각국에서는 공산당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총회들이 진행되었다。불란서공산당 지도자 토레즈는 금년二월 二十三일에、이태리 공산당 지도자 톨리앗티는 二월 二十七일에、그리고 이들의 뒤를 이어 기타의 모든 자본주의국가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자기 인민을 대표하여『쏘베트동맹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이 있을 때에 공산당원들은 쏘베트동맹을 지지하여 일어설 것이다』라는 전세계에 지금 널리 알

려져 있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이 모든것이『보르바』지의 독자들에게는 알리어지지않고 있는 것이다。

찌또도당은 유고슬라비야 근로자들에게 정세를 알리지 않으면서 또는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제국가 인민들의 생활과 활동에 관한 보도들의 독하면서 이 보도들이 다른 방법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눈이 빨개서 날뛰고 있다。이미 출판물에는 모쓰크바、부다페스트、쁘라그 및 기타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유고슬라비야사람들을 엄벌에 처할데 관하여 이미 보도되었다。금년 四월초순에 벨그라드당국은 쏘련사진전람회를 금지하였다。쏘베트동맹 츄이그지구의 공장 및 꼴호즈들의 사진까지도 쏘베트동맹 인민의『벗』으로 자처하는、찌또도당에 치명적인 공포를 주고 있는 것이다。

『보르바』지 三월 二十일부에는 벨그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파란전람회가 유고슬라비야 당국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데 관한『단유구』통신사(유고슬라비야통신사)의 보도가 게재되었다。이와 아울러 동 신문에는 파란정부 및 기타를 반대하는 극히 악의에 찬 론설을 게재하였었다。

오늘날 벨그라드의 가장 좋은 건물에 미국 영국 및 불란서의 독서실과 전람회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나 『보르바』는 벨그라드에서의 미국 및 불란서의 선전방법과 본질을 폭로하지 않았다。왜 파란전람회는 벨그라드 통치자의 분노를 사게하였으며 파란전람회는 무엇으로써 유고슬라비야인민공화국련방의 리익을『파괴』하였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一월 十二일부 『보르바』지에서 찾아 볼수 있는것이다。『보르바』지는 파란인들이 벨그라드에서『파란의 생활필수품 및 식료품의 가격과 로동자의 로동임금에 관한 도표들을』전람할 것이 명백하다고 쓰고 있다。『보르바』지는 계속하여 쓰기를 이 전람회는『사고(思考)하며 또 분석적으로 보는 편력자(遍歷者)들의 관심을 야기하게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 × ×

만일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반제국주의의 무기를 놓았다면『보르바』지는 국제적 계획에 있어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보르바』지 一〇五호의 내용은 쏘련과 인민민주주의제국가와 이 나라들의 공산당과 그의 지도자들에 대한 추악한 비방으로 꽉찼었다。이에 관하여서는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제국가에 대한 적대적 풍자 및 흉악한 비방으로되는 一七四개의 론문『보도』、찌또에게온 길다란 전보 및 기타 자료들이 一〇五호신문에 발표되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 충분할 것이다。三월 一일부터 五월 一일에 이르는 신문지면에만 하여도 알바니야를 반대하는 대론문이 十三편이나 게재되었으며 유고슬라비야의 친선적 린방인 불가리야를 반대하는 론문은 十五편、항가리를 반대하는 론문은 八편이 각각 게재되어 있었다。신문 제一면은 정해놓은 것 같이 항가리、불가리야、파란 및 기타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 대한 겟펠스식 행제의 길다란 비방으로써 꽉 찼다。

편집부는 이 나라에 대한 즉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와 쏘베트동맹에 대한 악랄한 공세에 자기의 모든 에베르기와 힘을 다하고 있다。

찌또도당의 선전은 앵무새처럼 쏘베

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 관하 허위적이며 철면피적인 요언을 도처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보르바』 지는 유고슬라비야정부에 각서에 대한 경제 상호 원조 리사회에 참가한 쏘베트동맹과 기타 국가들의 외무성답서를 자기 독자들에게 알리지않았다。쏘베트동맹 외무성각서에 명백히 지적된 바와 같이 이 기만의 원인은 극히 명백하다。그것은 유고슬라비야인민들로하여금 유고슬라비야를 반대하는 가장적인 운동에 관하여 신엄케 하며 그럼으로써 그들을 혼란케 하려고 안해 낸것이다。『보르바』 지의 허위는 근로자들에 대한、대 다수의 당원들에 대한 찌또도당의 공포와 비법의 의심할바 없는 표현인 것이다。찌또도당은 허위로써 유고슬라비야인민들을 기만하며 자기의 반쏘적 로선을 정당화함에 리용하고 있다。그러나 쏘베트동맹 레닌—쓰딸린당의 위신、그리고 유고슬라비야인민들의 쏘베트인민에 대한 사랑은 유고슬라비야를 마샬안화한 국가로 전변시키는 찌또도당의 음모에 대한 강력한 방해로 되고 있는 것이다。바로 이 쏘베트동맹의 위신을 반대하여 『보르바』 지를 선두로한 질라스의 선전기관이 적대하고있다。모세·삐야제——이는 찌또도당의 번견(番犬)——는 세르비야공산당 제二차대회에서의 연설에서 쏘베트동맹의 국제적 위신과 볼쉐위크당 및 그의 령도자들을 적지않게 뒤흔들었으며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에게 있어서의 이 위신을 『훼손』 시키기 위하여 위협까지 하였다。(一九四九년 一월 二十二일부 『보르바』 지)

쏘베트인민과 그의 영예로운 당의 위신은 물론 뜨로쯔끼도배와 제국주의 앞잡이들의 각종의 비방으로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뜨로쯔끼도배와 제국주의 앞잡이들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요란스러운 소리는 례를 들면 三월 三十一일부 『보르바』의 지면으로부터 나왔다。어떤 사기군인 베시츠는 『의심할바 없는 진실』 이란 론문에서 『항구한 평화를 위하여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지를 론박하면서 『쏘련과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의 유고슬라비야、그의 인민、그의 투쟁、로력、력사 및 문화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수다한 적대적 행위에 관하여 구미 추잡하게 썼던 것이다。

四월 三일에 벨그라드에서 있었던 인민전선 근로돌격대 대회에서 미친개처럼 날뛰는 삐야제가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제국가를 반대하여 연설하였는데 그 연설이 너무나 추잡한 우설이었기때문에 『보르바』 지 조차도 감히 그 연설전문을 발표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찌또도당의 우뚬가는 사기꾼들은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 제국가에 대한 더러운 비방을 위하여 또는 쏘베트동맹 대외정책에 대한 진실을 의곡히는 허위를 전파함으로써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을 기만하고 혼란케 하기 위하여 꾸며진 인민전선 제三차대회결의와 유고슬라비야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五·一절 호소를 각종 구실로 변명하고 있다。

『보르바』 지 一〇五호는 민족주의적이며 뜨로쯔끼적이며 반쏘적인 찌또도당의 정체를 적라라하게 보여주는 문건인 것이다。이 一〇五호 신문의 내용은 이 신문을 발간하고 있는 반역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주의 진

영으로부터 리탈하였으며、제국주의 진영과의 투쟁을 중지하였으며、그리고 편집부도 『보르바』 지를 더러운 제三급의 뜨로쯔끼적 신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보르바』 지는 자기의 반쏘적이며 반공산주의적인 내용으로써 미국 딸라로 발간되고 있는 어떤 반동신문과 하등의 차이점이 없는 것이다。一九四八년 여름에 벨그라드에서 있었던 당대회의 상연이 있은 후 찌또도당은 명백히 그들의 새로운 정치로선과는 부합되지 않는 『파시즘에게는 죽음을! 인민에게는 자유를!』 이라는 표어를 『보르바』 지상으로부터 떼어 버렸다。그러나 찌또도당은 자기의 황색지(黃色紙)를 위하여 『만국의 로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표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모욕을 행하였다。

위에 인용한 『보르바』 지의 이 모든 내용、이 모든 정치적 방향은 찌또도당이 이 영예로운 명제를 결정적으로 배반하였다는것을 증명하여 주고있다。

(『견고한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제十三호에서)

일본에 있어서의 민주운동

일본공산당 서기장 도꾸다·규이찌

일본은 아세아와 태평양의 경계이다。일본 제국주의、발전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와 같은 일본의 지리적 위치였었다。현재 영 미 독점 자본에게 있어서 일본은 그들이 세계제패의 지향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그럼으로써 일본 독점 자본가들과 그의 앞잡이들은 국제 독점 자본과의 긴밀한 련결만이 자기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一九四五년에 일본이 패망한 직후——이 결과로 천황제도는 결정적 타격을 받았다——일본 독점 자본은 당분간 당황한 상태에 있었다。그러나 이미 一九四六년 六월에 즉 자유당과 『진보』 당의 련립내각인 제一차 요시다 정부가 조직되었던 그때에 독점자본은 군사적 패배로부터 회복되였으며 로동자、농민、어부、중소 상공업자들의 리익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갔었다。동시에 일본 자본가들은 자기의 행동을 국제 독점 자본의 경험과 병행시키기 시작하였다。이전 천황제도에 있어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군벌과 관료배들은 자기 활동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

현 수상 요시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공훈있는 대표자인 것이다。즉 요시다는 다나까 대장의 정부에서 一九二七년으로부터 一九二九년에 이르는 동안 봉천(奉天) 총령사로 있었으며 후에는 외무성 차관(次官)이었다。이와같이 요시다는 세계침략의 첫 단계인 중국에 대한 침략정책의 작정에 참가하였었다。이와같은 확실한 리유로써 억만장자 관료배 및 대흥업가들은 요시다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 반동분자들의 공개적이며 비밀적인 활동은 이미 천하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당, 「민주」당 및 「국민 협동」당의 연립정부인 가다야마 및 아시다 정부 시에 이미 반동은 사회민주주의 우익층을 도구로써 리용하며 뜨로쯔끼적 폐물들을 등용하며 조직하면서 자기의 활동을 비상히 적극화하였다. 현정부인 제三차 요시다 내각이 조직된 때로부터 즉 一九四九년 二월부터 파시즘은 더욱더 급속한 템포로써 발전되기 시작하였었다.

요시다 내각과 그를 지지하는 단체, 들의 정책은 온갖 방법을 다하여 영미자본의 리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반동이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 독점자본의 지배를 강화함에 있어 영미의 철저한 물질적 및 정신적 지지를 받기 위하여서인 것이다. 정부는 전시와 전후시에 국가 관료배의 관리하에 있던 재정기관들을 대 개인 은행의 수중에 넘겨주면서 금융자본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개인은행들은 대 외국 은행들과 직접적인 련결을 가지는 모든 가능성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산업에 대한 관료적 국가관리의 난화는 이 부문에 대한 금융자본와 지배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실시하는 대외정책의 결과도 일본은 손실을 보고 있으며 반면 의국자본은 거대한 리윤을 획득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들이는 수입 상품들은 가격에 있어 일본 국내 시장의 공인 가격보다 三배나 비싸며 동시에 수출 상품은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三분지一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와같은 두역으로부터 받는 손실은 인민들의 어깨위에 놓여진다. 그러나 독점 자본가들은 거기에서 거대한 리윤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정책은 미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예속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 및 과세정책, 로동법령, 행정적 정부의 제조치—이 모든것은 일본 독점자본의 리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지주제도의 부흥과 군국주의의 사회적 기초의 부흥을 기도하면서 정부는 토지에 대한 소작료를 다시 올이고 있으며 토지개혁의 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요시다 정부는 인민교육, 과학, 기술, 예술 및 문화를 식민지적 수준에 까지 저하시키면서 그를 물질적 면에서 와같이 도덕적 면에 있어서도 근절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요시다 정부는 일본을 폭멸, 자유 및 평화를 상실한 국가로 만들며 로동자 농민 및 어부들에게 빈궁을 가져다 주며 중소기업가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파산을 가져다 주는 일본통치층와 토착 상인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광범한 반항을 탄압할 반동적 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면을 다하여 공산당을 고립시키며 파시스트적 방법에 의하여 그의 활동을 탄압하려 해고 있다.

이 모든것은 일본에 있어서 계급적 적개심과 내부모순을 더욱 더 날카롭게 하고 있다. 한줌밖에 안되는 독점자본가들과 그들의 앞잡이에게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대립되고 있는 데 인민대중의 편에는 자본주의 중의 약간의 대표자들과 중소 토지소유자들까지도 들어 있는 것이다.

투쟁은 이미, 파업, 태공, 시위, 토지쟁의 또는 납세거부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투쟁은 민족산업, 교육 및 문화를 옹호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옹호하는 광범한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로동계급이 그의 전봉에 서 있는 강력한 인민들의 총체는 모든 사회층을 궐기시켰다. 반정부 투쟁에는 정부관리들과 자유민주당의 지방단체들까지도 흡수되고 있다. 이 투쟁과정에서 도시와 농촌들에서는 부정행위와 매수가 폭로되고 있으며 매일처럼 요시다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의 직접적 안내자인 경찰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증오가 확대되고 있다.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참가는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미 九十년대부터 일본의 직맹운동은 대중을 혁명적 정신으로 무장시킴에 있어 커다란 역활을 하여왔다. 현 세기의 수十년 동안에 조직된 농민운동이 발생하였다.

일본공산당은 지금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의 반역적 정책을 폭로하면서 반정부 투쟁에 있어 그의 지도자로서 선두에 나서고, 있다. 자유민주당의 하부조직들은 인민의 편에 서지 않을 수가 없게되었다. 왜 그러냐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있어 인민들의 격분의 파도는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며 또한 그들이 이와같은 위험을 받고있기 때문인 것이다. 결과에 대독점자본가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은 더욱 더 고립되고 있다. 오랫동안에 걸쳐 혹독한 군사적 및 경찰적 박해밑에서 자연한 공산당이 가지고있는 경험은 공산당이 전후시기에 있어 광범한 인민운동을 지도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인민투쟁의 지도가 결코 맑쓰—레닌주의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에게 전적으로 부합되었다는 것이다.

극동에 있어서는 식민지적 예속과 외국에 대한 예속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인민대중의 투쟁이 더욱 더 널리 벌어지고 있다. 이 투쟁의 지도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교의에 의하여 고무되고 있는 당의 수중에로 넘어갔다. 일본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국제 민주운동 전선의 일부분인 것이다.

(『견고한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제十一호에서)

113

一九四九년九월十일 인쇄
一九四九년九월十五일 발행

「근로자」 제十七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인쇄인 오 기 익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 동 신 문 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잡지편집국 전화 국장실二一五七六번
편집실三八〇一-五번

제ㄱ—14031